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1993. 7.

徐 載 鎮(北韓研究室長)
金 台 鎰(北韓研究室 責任研究員)
李 宇 榮(北韓研究室 責任研究員)
崔 壽 永(北韓研究室 責任研究員)
金 道 泰(政策研究室 責任研究員)
崔 春 欽(國際研究室 責任研究員)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報告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 되는 것으로서 發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목 차

제I장 서론	1
1. 연구의 개요	1
가. 조사연구의 목적	1
나. 연구내용	3
2. 표본조사방법	5
가. 조사대상	5
나. 표본크기	5
다. 표집방법	5
라. 조사대상자 선정 기준	6
마. 질문지의 구성	7
바. 조사기간	8
사. 면접실시 기관 및 면접원	8
아. 자료의 분석	8
자. 자료의 신뢰도	8
3. 조사대상자의 특성	9

제II장 북한 정세에 대한 인식 15

- 1. 북한에 대한 이미지 15
- 2. 북한당국의 신뢰도에 대한 평가 17
- 3. 북한에 대한 민족적 친화력 평가 17
- 4. 북한변화에 대한 평가 23
- 5. 북한체제의 붕괴가 통일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 29
- 6. 김정일여로의 권력이양이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29
- 7. 북한의 핵무기개발 가능성에 대한 평가 33
- 8.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에 대한 평가 35
- 9. 남북한의 이질화 정도에 대한 평가 38

제III장 통일관련 쟁점 및 통일정책에 대한 인식 및 평가 46

- 1. 「통일정책 3대기조」에 대한 지지도 46
- 2. 통일정책과 관련한 정부의 신뢰성에 대한 평가 49
- 3. 대북 정책방향 및 수단에 대한 평가 52
 - 가. 정책방향에 대한 평가 52
 - 나.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효과적인 ‘포용수단’에
대한 평가 55
 - 다.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효과적인 ‘압력수단’에
대한 평가 58

4. 대북 경제지원 여부에 대한 평가	58
5. 핵문제-경협 연계정책에 대한 평가	63
6. 이인모노인 송환에 대한 평가	66
7.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평가	66
8. 대북 창구단일화 정책에 대한 평가	71
9. 통일시기에 대한 인식	74
10. 남북통일의 '이상' 과 '현실' 에 대한 평가	74
가. 남북통일의 이상적인 방법	74
나. 남북통일의 현실적인 방법	78
11. 통일비용 부담에 대한 인식	82
12. 통일비용 충당방법에 대한 평가	82
13. 통일이 가져다 줄 이점에 대한 평가	85
14. 통일 이후의 상황에 대한 전망	90
가. '정치적 민주화' 의 변화 방향	90
나. '경제성장' 의 변화 방향	93
다. '빈부격차' 의 변화 방향	93
라. '실업문제' 의 변화 방향	96
마. '지역격차' 의 변화 방향	96

제Ⅳ장 통일의 대외적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100

- 1. 주변4강에 대한 인식 100
- 2. 북한-미국 관계개선에 대한 인식 103
- 3. 북한-일본 관계개선에 대한 인식 103
- 4. 중국의 남한 및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 107

제Ⅴ장 통일의 대내적 조건에 대한 인식 및 평가 112

- 1. 새정부 개혁정책과 통일과의 연관성에 대한 평가 112
- 2. 통일이 국민들의 관심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평가 .. 115
- 3. 국가보안법에 대한 평가 118
- 4.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인식 121
- 5. 주한미군 주둔경비에 대한 인식 124
- 6. 팀스피리트 훈련에 대한 평가 127
- 7. 국민적 합의도출 방안에 대한 인식 127

제Ⅵ장 요약 및 결론	132
1. 북한에 대한 인식	132
2. 통일정책에 대한 평가	134
3. 통일환경에 대한 인식	135
4. 통일관련 국내정치에 대한 인식	136
5. 배경변수들의 하위집단별 인식의 차이	136
6. 여론조사 결과의 통일정책에 대한 시사점	139
부록: 설문지	141

그림 목차

〈그림 2-1〉 북한에 대한 이미지	16
〈그림 2-2〉 북한당국에 대한 신뢰	18
〈그림 2-3-1〉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가?	20
〈그림 2-3-2〉 북한에 대한 민족적 친화력 평가	22
〈그림 2-4-1〉 북한변화에 대한 평가	24
〈그림 2-4-2〉 북한체제 유지요인	27
〈그림 2-4-3〉 북한체제 변화촉진요인	28
〈그림 2-5〉 김일성·김정일정권 붕괴가 통일에 미치는 영향 ...	30
〈그림 2-6〉 김정일체제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32
〈그림 2-7〉 북한 핵무기개발 가능성에 대한 평가	34
〈그림 2-8〉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	36
〈그림 2-9〉 남북한의 이질화 정도에 대한 평가	39
〈그림 3-1〉 통일정책 3대기준에 대한 평가	47
〈그림 3-2〉 통일정책의 정권유지 수단화 여부	50
〈그림 3-3-1〉 북한개방을 위한 정책방향	53
〈그림 3-3-2〉 북한에 대한 효과적 포용수단	56
〈그림 3-3-3〉 북한에 대한 효과적 압력수단	59
〈그림 3-4〉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여부	61
〈그림 3-5〉 핵-경협 연계에 대한 견해	64
〈그림 3-6〉 이인모노인 송환에 대한 평가	67
〈그림 3-7〉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견해	69
〈그림 3-8〉 북한접촉시 정부의 허가여부	72

<그림 3-9> 통일시기에 대한 인식	75
<그림 3-10-1> 이상적인 통일방법	77
<그림 3-10-2> 현실적인 통일방법	80
<그림 3-11> 통일비용부담 여부	83
<그림 3-12> 통일비용 충당방법	86
<그림 3-13> 통일이 가져다 줄 효과	88
<그림 3-14> 통일후의 사회생활 변화전망	91
<그림 4-1> 통일에 우호적인 주변국	101
<그림 4-2> 북한-미국 관계개선에 대한 인식	104
<그림 4-3> 북한-일본 관계개선에 대한 인식	106
<그림 4-4> 중국과 남북한관계 예측	109
<그림 5-1> 정부의 개혁정책이 통일에 주는 영향	113
<그림 5-2> 새정부의 역점 추진정책	116
<그림 5-3> 국가보안법 존폐여부	119
<그림 5-4>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인식	122
<그림 5-5> 주한미군에 대한 남한의 경비부담	125
<그림 5-6> 팀스피리트 훈련 존폐여부	128
<그림 5-7> 국민적 합의도출 방안에 대한 인식	131

표 목차

〈표 1-1〉 거주 지역별 분포	9
〈표 1-2〉 거주 지역 규모별 분포	10
〈표 1-3〉 성별 분포	10
〈표 1-4〉 연령별 분포	10
〈표 1-5〉 교육수준별 분포	11
〈표 1-6〉 경제적 지위별 분포	12
〈표 1-7〉 사회적 지위별 분포	12
〈표 1-8〉 본인소득별 분포	13
〈표 1-9〉 가구소득별 분포	13
〈표 1-10〉 주택유무별 분포	14
〈표 1-11〉 무주택자 거주유형별 분포	14
〈표 2-2〉 북한당국에 대한 신뢰	19
〈표 2-4〉 북한변화에 대한 평가	25
〈표 2-5〉 김일성·김정일정권 붕괴가 통일에 미치는 영향	31
〈표 2-8〉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	37
〈표 2-9-1〉 언어의 유사성	40
〈표 2-9-2〉 전통관습의 유사성	41
〈표 2-9-3〉 식생활의 유사성	42
〈표 2-9-4〉 교육내용의 유사성	43
〈표 2-9-5〉 문화/예술의 유사성	44
〈표 2-9-6〉 여가생활의 유사성	45

〈표 3-1〉 통일정책 3대기조에 대한 평가	48
〈표 3-2〉 통일정책의 정권유지 수단화 여부	51
〈표 3-3-1〉 북한개방을 위한 정책방향	54
〈표 3-3-2〉 북한에 대한 효과적 포용수단	57
〈표 3-3-3〉 북한에 대한 효과적 압력수단	60
〈표 3-4〉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여부	62
〈표 3-5〉 핵-경협 연계에 대한 견해	65
〈표 3-6〉 이인모노인 송환에 대한 평가	68
〈표 3-7〉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견해	70
〈표 3-8〉 북한접촉시 정부의 허가여부	73
〈표 3-9〉 통일시기에 대한 인식	76
〈표 3-10-1〉 이상적인 통일방법	79
〈표 3-10-2〉 현실적인 통일방법	81
〈표 3-11〉 통일비용부담 여부	84
〈표 3-12〉 통일비용 부담방법	87
〈표 3-13〉 통일이 가져다 줄 효과	89
〈표 3-14-1〉 통일후 정치적 민주화 전망	92
〈표 3-14-2〉 통일후 경제성장 전망	94
〈표 3-14-3〉 통일후 빈부격차 전망	95
〈표 3-14-4〉 통일후 실업문제 전망	97
〈표 3-14-5〉 통일후 지역격차 전망	99
〈표 4-1〉 통일에 우호적인 주변국	102
〈표 4-2〉 북한-미국 관계개선에 대한 인식	105
〈표 4-3〉 북한-일본 관계개선에 대한 인식	108

<표 4-4> 중국과 남북한관계 예측	111
<표 5-1> 정부의 개혁정책이 통일에 주는 영향	114
<표 5-2> 새정부의 역점 추진정책	117
<표 5-3> 국가보안법 존폐여부	120
<표 5-4>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인식	123
<표 5-5> 주한미군에 대한 남한의 경비부담	126
<표 5-6> 팀스피리트 훈련 존폐여부	129

제1장 서론

1. 연구의 개요

가. 조사연구의 목적

80년대 후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함에 따른 세계질서의 재편과정에서 독일이 통일되고 또 비슷한 시점에서 예멘이 통일됨에 따라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민족 뿐만 아니라 세계의 관심으로 등장하였다. 북한이 대외적 고립, 권력승계, 경제난 등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 북한이 그러한 국면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남북관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의 전문가들 사이에도 북한정세 및 통일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이 엇갈리고 있다. 그럴수록 우리 국민이 통일을 둘러싼 주변환경과 북한의 정세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응하고 있는 정부의 통일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은 통일정책수립에 매우 중요하다.

이 조사연구 보고서는 6월 5일 부터 6월 17일 사이에 전국의 20세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한 통일관련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통일문제에 대한 본 여론조사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구체적인 배경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금년 2월에 출범한 새정부는 통일정책에 있어서 과거 정부의 통일정책과는 구별되는 세가지 새로운 기초를 제시하였고 이러한

기초에 기초한 통일정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세가지 통일 정책의 기초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통일정책의 수립, 남북한 민족의 「공존·공영」 그리고 「민족복리」이다. 본 조사연구는 새정부가 출범하고 통일정책의 새로운 기초가 천명된지 100일이 되는 시점에서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와 인식을 조사하여 통일정책에 대한 점검 및 새로운 정책방향 정립을 위한 기초자료 개발을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둘째, 지난 3월 12일 북한의 NPT 탈퇴선언 이후 경색된 남북한 관계가 6월 3일부터 11일 사이에 북한-미국 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됨으로써 북한정세 및 통일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셋째,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를 둘러싸고 통일관련 정책 입안자와 전문가들 사이에는 강경과 온건의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민적 여론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통일정책을 개발할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여론수렴 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통일정책은 정당성과 명분을 가질 뿐 아니라 대북 교섭에 있어서도 높은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과거 정부의 통일정책이 '정권유지용'이라는 일부의 비판이 있었던 것은 통일정책의 수립과정에 있어서 국민적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 때문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남북간에 존재하는 통일의 과정과 방식에 대한 이견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국민들의 사고와 인식을 정확히 파악하여 우리사회 내부의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나. 연구내용

이 조사연구를 통하여 분석한 구체적인 설문내용은 북한에 대한 인식, 통일관련 쟁점 및 통일정책에 대한 평가, 통일의 대외적 환경에 대한 인식, 통일의 대내적 조건에 대한 인식 등 네가지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다.

(1) 북한정세에 대한 인식

- ㉠ 북한에 대한 이미지 (#14)
- ㉡ 북한당국의 신뢰도에 대한 평가 (#15)
- ㉢ 북한에 대한 민족적 친화력 평가 (#23, #18)
- ㉣ 북한 변화에 대한 평가 (#19, #20, #21)
- ㉤ 북한체제의 붕괴가 통일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 (#32)
- ㉥ 김정일에로의 권력이양이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16)
- ㉦ 북한의 핵무기개발 가능성에 대한 평가 (#30)
- ㉧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에 대한 평가(#17)
- ㉨ 남북한의 이질화 정도에 대한 평가 (#22: 6개항목)

(2) 통일관련 쟁점 및 통일정책에 대한 인식 및 평가

- ㉠ 통일정책 3대기조에 대한 지지도(#26)
- ㉡ 통일정책과 관련한 정부의 신뢰성에 대한 평가 (#34)
- ㉢ 대북 정책방향 및 수단에 대한 평가 (#35, #36, #37)

- ㉔ 대북 경제지원 여부에 대한 평가 (#27)
- ㉕ 핵문제-경협 연계정책에 대한 평가 (#31)
- ㉖ 이인모 노인 송환에 대한 평가 (#28)
- ㉗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평가 (#29)
- ㉘ 대북 창구단일화 정책에 대한 평가 (#40)
- ㉙ 통일시기에 대한 인식 (#24)
- ㉚ 통일방법의 '이상'과 '현실'에 대한 평가 (#38-39)
- ㉛ 통일비용 부담에 대한 인식 (#25)
- ㉜ 통일비용 충당방법에 대한 평가 (#41)
- ㉝ 통일이 가져다 줄 이점 및 문제점에 대한 평가 (#33)
- ㉞ 통일 이후의 상황에 대한 전망(#42)

(3) 통일의 대외적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 ㉟ 주변4강에 대한 인식 (#4)
- ㊱ 미국-북한 관계개선에 대한 인식 (#1)
- ㊲ 일본-북한 관계개선에 대한 인식 (#2)
- ㊳ 중국의 남한 및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 (#3)

(4) 통일의 대내적 조건에 대한 인식 및 평가

- ㊴ 새정부 개혁정책과 통일과의 연관성에 대한 평가 (#10)
- ㊵ 통일이 국민들의 관심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평가 (#7)
- ㊶ 국가보안법에 대한 평가 (#8)
- ㊷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인식 (#5)

- ㉔ 주한미군 주둔정비에 대한 인식 (#6)
- ㉕ 팀스피리트 훈련에 대한 평가 (#9)
- ㉖ 국민적 합의도출방안에 대한 인식 (#11)

2. 표본조사방법

본 연구에서는 표본집단에 대한 설문지를 사용한 설문조사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조사에서 사용된 표본조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대상: 전국의 20대 이상 한국인 (제주도등 도서지역 제외)

나. 표본크기: 1,500 유효표본

다. 표집방법

표집방법은 다단계 지역 무작위 추출법 (Multi-stage area sampling)을 사용하였는데 실제의 표집은 다음과 같이 4단계로 이루어졌다.

(1) 제1 단계

6개 특별·직할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8개 道에 대해 1992년 12월 대통령 선거시의 유권자수의 비율에 의거하여 각 특별·직할시, 道별

로 조사할 표본수를 결정하였고 실제 표집된 결과는 <표 1-1>과 같다.

(2) 제2단계

제1 단계에서 결정된 표본수를 기준으로 하여 각 특별시, 직할시, 도 지점을 무작위 추출하였다. 이때 지역별 가구수의 크기를 고려한 무작위 추출을 하고, 그 결과 市지역의 경우는 '班'을, 郡지역의 경우는 '里' 또는 '자연부락'을 실사 지점으로 선정하였다.

(3) 제3단계

선정된 각 실사 지점에서 '반'의 경우 7가구, '리'나 '자연부락'의 경우는 10가구를 무작위 추출하였다.

(4) 제4단계

최종적으로 선정된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당일로부터 생일이 가장 빨리 돌아오는 가구원을 면접하였다. 선정된 가구원이 부재하거나 응답을 거절할 경우는 동일지역내에서 그 가구원과 성별, 연령, 직업이 같은 다른 응답자로 대체하였다.

라. 조사대상자 선정 기준

조사대상자를 선정할 때 다음의 일반적인 원칙을 따랐다.

(가) 조사는 만 20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나) 남자가 여자보다 약간 많도록 표집하였다.

(다) 연령의 비율은 각 시/도별로 연령의 중앙값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중앙값보다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이 각각 반반씩 표집되도록 하였다.

(라) 郡府의 경우 성별, 연령별 할당량은 리 단위에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정이 허락하지 않을 때에는 면 단위에서 맞추었다. 한 가옥에 가옥주와 세입자가 동시에 있을 경우에는; 세입자가 두가구 이상일 경우, 가옥주가 아닌 세입자 중에서 한 가구를 선택하여 조사하고 세입자가 한가구일 경우 첫번째 경우에는 가옥주를 조사하고 두번째 경우에는 세입자를 조사하였다.

(마) 각 지역을 지역별 생활수준에 따라 위로부터 1/4씩 상, 중상, 중하, 하지역으로 나누고(강원도, 충청북도는 위로부터 1/3씩 상, 중, 하의 3지역) 해당지역에서 한 班 또는 한 里를 선택한 다음, 임의의 가옥에서 시작하여 순서대로 조사하였다.

마. 질문지의 구성

질문지는 하위분야별로 조사항목을 정한 다음 각 조사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문항과 척도를 구성하였다. 이렇게 구성한 설문지를 사회조사 연구의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 3인(홍두승 서울대 사회학 교

수, 강정구 동국대 사회학 교수, 설동훈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에게 질문지의 기술적 문제를 검토하게 하였다. 그것을 본 조사에 앞서 서울지역 시민 20명을 대상으로 사전검사 (pre-test)를 실시하고 응답결과의 분석을 바탕으로 문항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질문을 더욱 간결하고 쉬운 용어로 수정하여 최종문항을 확정하였다.

바. 조사기간: 1993년 6월 5일 - 6월 17일 (13일간)

사. 면접실시 기관 및 면접원

민족통일연구원에서 기획하고 작성한 설문지를 (주)미디어 리서치에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직접 응답자를 면접한 면접원들은 (주)미디어 리서치에서 고용하여 훈련시킨 학생 및 가정주부들이다.

아. 자료의 분석

수집된 자료는 코딩, 응답내용의 논리성 검토 및 범위검토를 거친 후, 퍼스널 컴퓨터에서 SAS 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처리하였다.

자. 자료의 신뢰도

본 여론조사결과의 오차는 95%의 신뢰구간에서 표본수 1500을 기준으로 했을때 $\pm 2.53\%$ 를 넘지 않는다.

3. 조사대상자의 특성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우리나라 국민전체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표집된 1,500명은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특성을 대표하여야 한다. 이하의 표와 같이 약간의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모집단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조사대상자의 지역별 분포는 <표 1-1>과 같이 최초의 계획대로 표집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유권자의 분포를 그대로 반영하는 분포이다. 거주지역 규모별 분포도 마찬가지이다.

<표 1-1> 거주 지역별 분포

지역명	빈도	%
서울	378	25.2%
부산	130	8.7%
대구	77	5.1%
인천	63	4.2%
광주	38	2.5%
대전	35	2.3%
경기	217	14.5%
강원	56	3.7%
충북	49	3.3%
충남	70	4.7%
전북	71	4.7%
전남	86	5.7%
경북	102	6.8%
경남	128	8.5%
전체	1500	100.0%

〈표 1-2〉 거주 지역 규모별 분포

대도시	721	48.1%
중소도시	388	25.9%
읍면지역	391	26.0%
전체	1500	100.0%

〈표 1-3〉 성별 분포

남자	814	54.3%
여자	686	45.7%
전체	1500	100.0%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남녀 비율은 100.7로서 남녀 비율이 거의 같지만 사회활동 인구는 남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 조사연구에서는 남자의 비율을 54%되게 표집되었다.

〈표 1-4〉 연령별 분포

20대	458	30.5%
30대	518	34.5%
40대	251	16.7%
50대	166	11.1%
60대이상	107	7.2%
전체	1500	100.0%

우리나라 전체국민의 연령별 분포는 1990년 현재 20세이하가 36%, 20대가 20.1%, 30대가 17.1%, 40대가 10.9%, 50대가 8.3%, 60세 이상이 7.8%인데 20세 이하를 제외하면 20대와 30대가 가장 두터운 층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표본에서도 20대와 30대를 더 많이 표집하였는데 30대가 사실보다 약간 많이 표집되었다.

〈표 1-5〉 교육수준별 분포

무학	36	2.4%
국민학교	126	8.4%
중학교	202	13.5%
고등학교	666	44.4%
초급전문대학(2년제)	129	8.6%
4년제대학	311	20.7%
대학원 이상	30	2.0%
전체	1500	100.0%

우리나라 국민전체의 학력구성비는 1990년 현재 남자의 경우 고졸이 38.6%, 대졸이상이 20.2%인데, 조사대상자인 20세 이상의 경우만 보면 〈표 1-5〉의 분포가 모집단의 특성과 유사하다.

〈표 1-6〉 경제적 지위별 분포

1	아주 못하는 층	89	5.9%
2	.	115	7.7%
3	.	427	28.5%
4	중간정도	759	50.6%
5	.	97	6.5%
6	.	11	.7%
7	아주 잘사는 층	2	.1%
전체		1500	100.0%

〈표 1-7〉 사회적 지위별 분포

1	아주 낮은 지위	131	8.7%
2		163	10.9%
3		358	23.9%
4	중간정도	752	50.1%
5		83	5.5%
6		9	.6%
7	아주 높은 지위	4	.3%
전체		1500	100.0%

〈표 1-8〉 본인소득별 분포

소득 없음	552	36.8%
40만원 미만	150	10.0%
40만원- 79만원	249	16.6%
80만원- 119만원	290	19.3%
120만원- 199만원	189	12.6%
200만원- 299만원	44	2.9%
300만원- 499만원	13	.9%
500만원- 999만원	7	.5%
1000만원 이상	2	.1%
무응답	4	.3%
전체	1500	100.0%

〈표 1-9〉 가구소득별 분포

40만원 미만	85	5.7%
40만원- 79만원	207	13.8%
80만원- 119만원	486	32.4%
120만원- 199만원	467	31.1%
200만원- 299만원	175	11.7%
300만원- 499만원	54	3.6%
500만원- 999만원	20	1.3%
1000만원 이상	3	.2%
무응답	3	.2%
전체	1500	100.0%

<표 1-6>과 <표 1-7>에서는 계층귀속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 평가를 보여주고 있다. 응답자의 절반이 중간정도라고 응답하였고 중간 한 계단 아래와 위를 합하면 80%에 상당하는 응답자가 스스로를 「중간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경제적 지위와 사회적 지위에 대한 자기평가가 매우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개인의 수준에서도 동일한지는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표 1-8>과 <표 1-9>과 같이 본인소득 보다는 가구소득에 근거하여 내리는 평가이다.

<표 1-10> 주택유무별 분포

예	944	62.9%
아니오	556	37.1%
전체	1500	100.0%

국민전체의 주택보급율은 1990년 현재 72.1%인데 이 연구의 응답자 63% 정도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1-11> 무주택자 거주유형별 분포

전세(독채)	253	45.5%
전세(방)	206	37.1%
월세	81	14.6%
기타	16	2.9%
전체	55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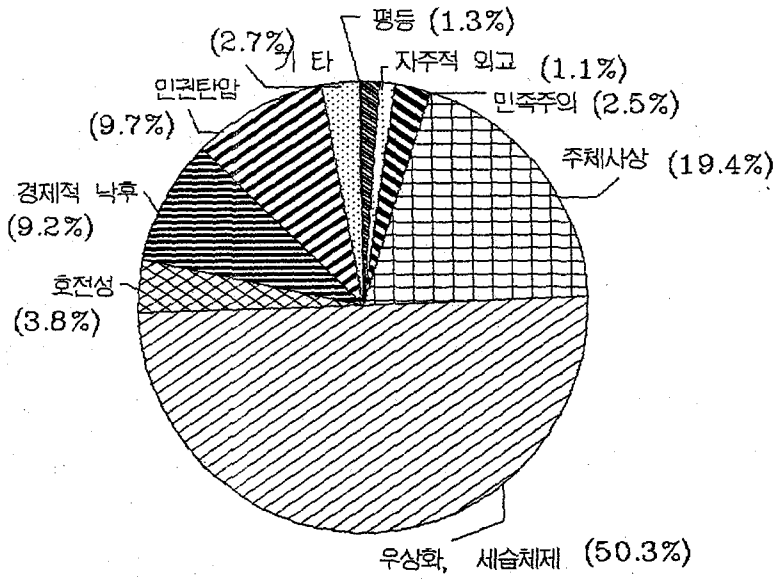
제Ⅱ장 북한 정세에 대한 인식

1. 북한에 대한 이미지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귀하는 북한을 생각할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는데 그 결과가 정리된 것이 <그림 2-1>이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을 보면 「우상화·세습체제」가 전체의 50.3%로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주체사상」(19.4%), 「인권탄압」(9.7%), 「경제적 낙후」(9.2%), 「호전성」(3.8%)으로 부정적인 이미지의 응답이 많았다. 반면에 「민족주의」(2.5%), 「자주적외교」(1.1%), 「평등」(1.3%)와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응답 비율은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부정적인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 「우상화·세습체제」, 「주체사상」, 「인권탄압」, 「경제적 낙후」, 「호전성」 등으로 응답한 비율을 합하면 전체의 92.4%에 달하였다. 이 가운데 「주체사상」은 부정적인 이미지만을 갖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하더라도 부정적인 이미지의 응답 비율이 73%나 되는 반면, 긍정적인 이미지의 응답 비율은 4.9%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국민들이 북한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이미지는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1> 북한에 대한 이미지



2. 북한당국의 신뢰도에 대한 평가

북한 정부당국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귀하는 북한당국을 얼마만큼 신뢰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그림 2-2〉 참조). 「조금불신한다」라는 응답의 비율이 40.4%로 제일 높았고 그 다음이 「매우불신한다」(33.6%), 「보통이다」(19.5%), 「조금신뢰한다」(6.1%), 「매우신뢰한다」(0.1%)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이를 다시 불신과 신뢰라는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북한 당국을 불신하는 응답 비율이 74.0%나 되는 반면 신뢰한다는 비율은 6.2%에 불과하여 국민 대다수가 북한 당국을 불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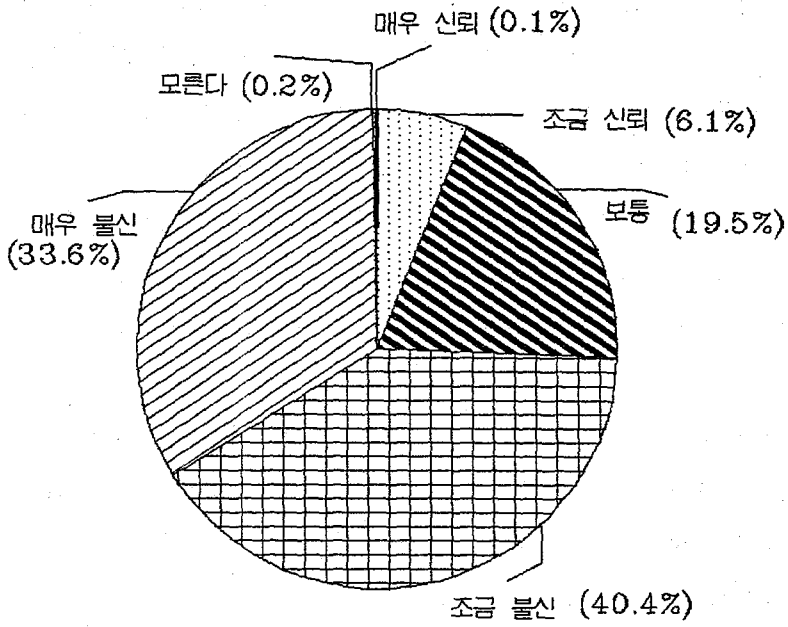
북한당국에 대한 신뢰도를 주요 배경 변수별로 정리한 것이 〈표 2-2〉이다.

연령별로 본다면 60대이상 연령층에서 북한당국을 불신하는 비율이 86.9%에 달하여 상대적으로 노인층이 북한당국에 대한 불신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학력별로는 대제이상의 고학력자가 북한당국을 불신하는 비율이 68.5%로 상대적으로 낮다.

3. 북한에 대한 민족적 친화력 평가

북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귀하는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은 〈그림 2-3-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이 「도와주어야 할 대상」(50.8%)이거나 「대등한 협력대상」(28.7%)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적대대상」(14.3%)이거나 「경쟁대상」(5.7%)이라는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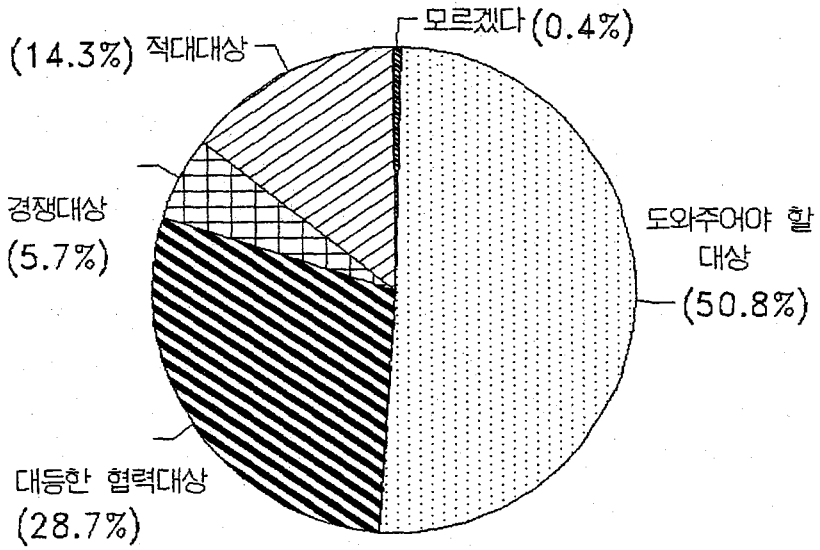
<그림 2-2> 북한당국에 대한 신뢰



<표 2-2> 북한당국에 대한 신뢰

변수		항목	신뢰					모르겠다	유의도
			매우신뢰	조금신뢰	보통이다	조금불신	매우불신		
나이	20대	0.00	6.77	27.07	41.48	24.67	0.00	X ² =89.78 P=.000 N=1500	
	30대	0.19	7.14	21.24	42.28	28.96	0.19		
	40대	0.00	5.18	13.55	39.44	41.43	0.40		
	50대	0.60	4.22	9.64	37.35	48.19	0.00		
	60세이상	0.00	3.74	8.41	33.64	53.27	0.93		
거주지역	서울경기	0.00	6.23	18.24	38.45	36.93	0.15	X ² =65.68 P=.000 N=1500	
	경상	0.00	5.26	22.43	44.39	27.92	0.00		
	전라	1.03	7.69	23.59	47.18	20.51	0.00		
	충청강원	0.00	6.19	13.81	31.90	47.14	0.95		
학력	중졸이하	0.27	6.59	14.29	40.11	38.19	0.55	X ² =22.746 P=.012 N=1500	
	고졸	0.15	4.95	19.22	42.79	32.73	0.15		
	대제이상	0.00	7.45	24.04	37.23	31.28	0.00		
가구소득	79만원이하	0.68	6.16	17.47	35.96	39.04	0.68	X ² =27.361 P=.125 N=1497	
	80-119만원	0.00	6.38	18.72	40.95	33.95	0.00		
	120-199만원	0.00	6.00	22.06	39.83	31.91	0.21		
	200-299만원	0.00	5.14	16.00	49.14	29.71	0.00		
	300만원이상	0.00	7.79	24.68	36.36	31.17	0.00		
전체		0.1	6.1	19.5	40.4	33.6	0.2	N=1500	

<그림 2-3-1>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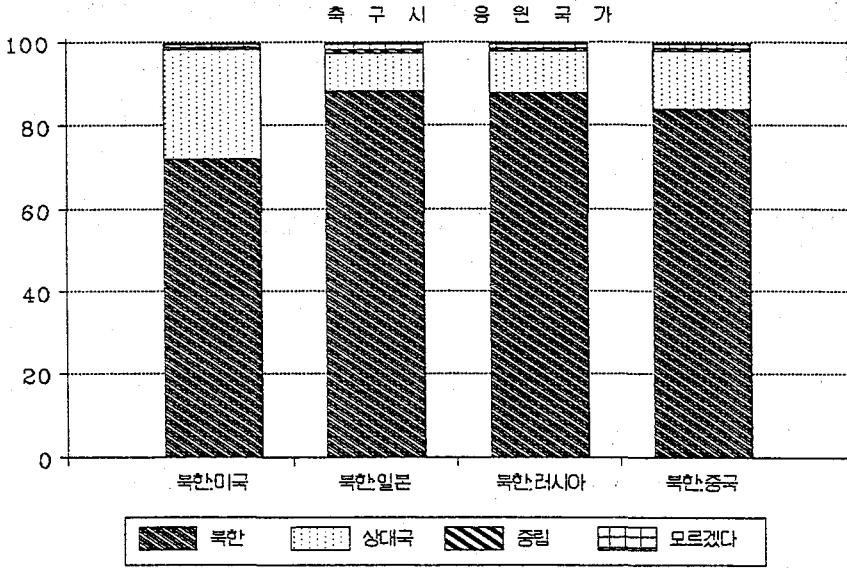
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

기존의 학교 교육에서 북한을 적대국가로 규정하였으며 「국가보안법」에서도 북한을 적대국가로 상정하고 있는 현실과 관련시켜 볼 때 이러한 결과는 주목할 만 하다. 이는 국민들이 북한에 대하여 민족적 친화력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남한이 북한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우월하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에 대한 민족적 친화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북한이 미국·일본·러시아·중국과 각각 축구시합을 하는 경우 어느 나라를 응원할 것인가를 국민들에게 물어보았는데 이에 대한 응답을 정리한 것이 <그림 2-3-2>이다.

응답 비율을 보면 북한과 미국이 경기를 하는 경우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비율이 71.8%인 반면 미국을 응원하겠다는 비율이 26.3%이며, 일본과 경기를 하는 경우에는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비율이 88.1%인 반면 일본을 응원하겠다는 비율은 9.1%이다. 러시아와 경기를 하는 경우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비율이 87.7%인 반면 러시아를 응원하겠다는 비율이 10.1%이고, 중국과 경기를 하는 경우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비율이 83.8%인 반면 중국을 응원하겠다는 비율이 14.0%이다. 어느 경우든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응답이 압도적일 뿐 아니라 특히 일본과 중국을 비교하여 보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보다 자본주의 국가인 일본에 대한 친화력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념과 체제의 차이보다는 민족적 감정이 앞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3-2> 북한에 대한 민족적 친화력 평가



4. 북한변화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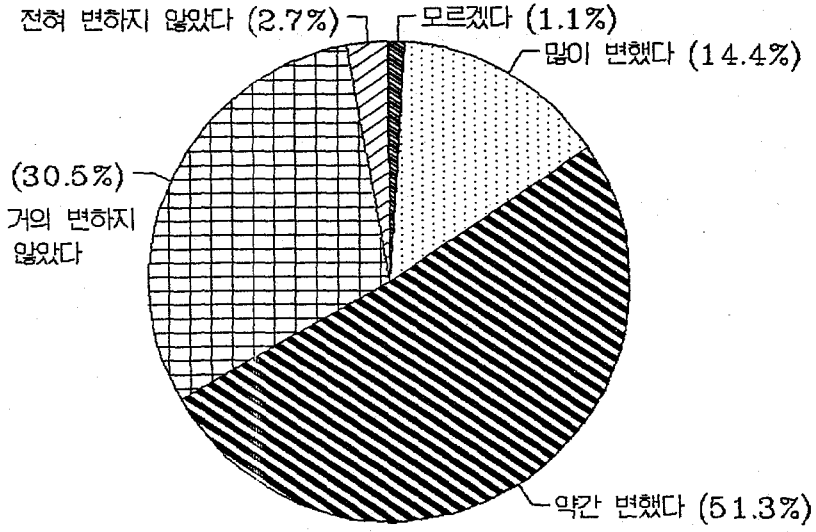
북한의 변화에 대하여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귀하는 2~3년전에 비하여 북한이 어느정도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은 <그림 2-4-1>에 정리되어 있는데, 「약간 변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51.3%이고, 「많이 변했다」가 14.4% 그리고 「거의 변하지 않았다」가 30.5%, 「전혀 변하지 않았다」가 2.7%였다. 북한의 변화 여부로 기준을 삼아 다시 살펴보면 전체의 65.7%가 변했다고 보는 반면 33.2%의 국민들은 변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이 북한이 변했다고 보고 있으며, 그 비율은 변화하지 않았다고 보는 사람들 보다 거의 두배에 이른다. 이와 같이 변화했다고 보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것은 최근 2~3년 동안에 「남북한기본합의서」의 타결, 「남북한고위급회담」의 개최, 「남북한 UN동시가입」 등의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여 남북한간에 화해 분위기가 고조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체제의 변화정도를 배경 변수별로 정리한 것이 <표 2-4>이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의 국민들이 변하지 않았다고 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지역별로는 뚜렷한 차이가 없다. 가구소득별로 보면 3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상대적으로 변했다고 보는 비율이 높다.

국민들이 북한의 변화 혹은 체제유지의 요인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북한이 변화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

<그림 2-4-1> 북한변화에 대한 평가



<표 2-4> 북한변화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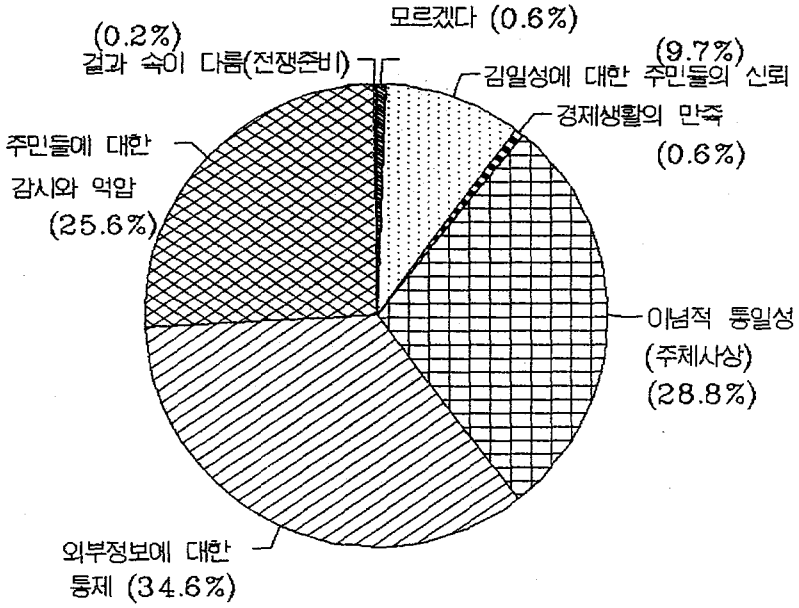
변수		항목	많이 변함	약간 변함	거의 안변함	전혀 안변함	모르 겠다	유의도
나이	20대		16.81	53.71	27.73	1.53	0.22	X ² =64.12 P=.000 N=1500
	30대		13.90	49.81	32.43	3.47	0.39	
	40대		13.55	54.18	29.48	2.39	0.40	
	50대		12.05	51.81	31.33	0.60	4.22	
	60세이상		12.15	41.12	33.64	7.48	5.61	
거주지역	서울경기		11.40	55.17	29.94	2.28	1.22	X ² =51.66 P=.000 N=1500
	경상		12.13	53.78	31.35	2.52	0.23	
	전라		23.08	42.05	32.31	2.56	0.00	
	충청강원		20.48	42.86	28.57	4.29	3.81	
학력	중졸이하		16.76	46.43	29.95	3.02	3.85	X ² =39.66 P=.000 N=1500
	고졸		12.16	54.95	30.18	2.55	0.15	
	대재이상		15.74	50.00	31.28	2.55	0.43	
가구소득	79만원이하		19.52	43.84	28.77	3.77	4.11	X ² =54.31 P=.000 N=1497
	80-119만원		12.55	54.53	28.81	3.29	0.82	
	120-199만원		14.13	51.39	32.76	1.50	0.21	
	200-299만원		14.86	49.14	34.29	1.71	0.00	
	300만원이상		6.49	63.64	25.97	3.90	0.00	
전체			14.4	51.3	30.5	2.7	1.1	N=1500

들에게는 “북한이 변하지 않았다면 귀하는 북한체제가 유지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그리고 북한이 변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는 “북한이 변했다면, 귀하는 북한의 변화를 촉진시킨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여 보았다. 이에 대한 응답을 정리한 것이 각각 <그림 2-4-2>과 <그림 2-4-3>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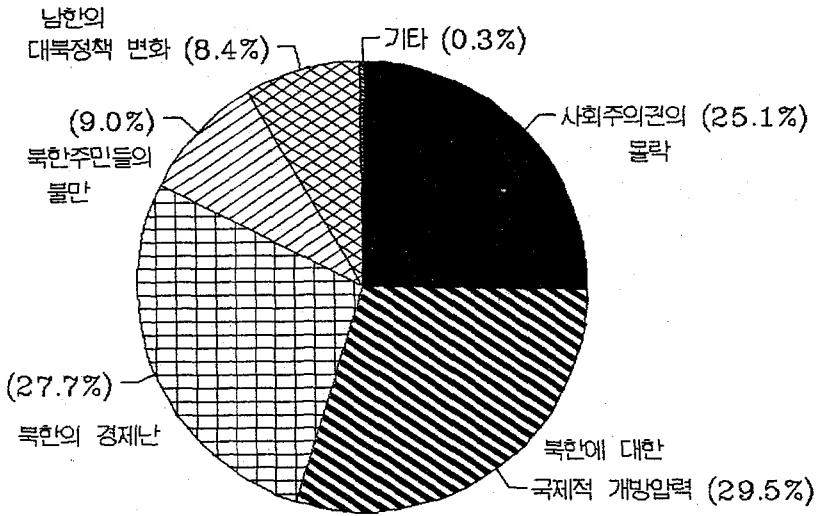
북한체제유지 요인에 대한 응답 비율 중 「외부정보에 대한 통제」가 34.6%로 제일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이념적 통일성」(28.8%), 「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억압」(25.6%), 「김일성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9.7%), 「경제생활의 만족」(0.6%) 순서였다. 비록 「외부정보에 대한 통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억압」이라고 하는 강제적 체제유지 요인을 응답한 비율이 높았지만(60.2%), 「이념적 통합성」 및 「김일성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 그리고 「경제생활의 만족」이라는 북한체제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는 비율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39.1%).

북한 변화의 요인으로 응답자들이 첫번째로 꼽고 있는 것이 「북한에 대한 국제적 개방압력」(29.5%)이지만, 「북한의 경제난」(27.7%)이나 「사회주의권의 몰락」(25.1%)을 변화 요인으로 보는 비율과 별차이가 없다. 그리고 다음으로 「북한주민들의 불만」(9.0%), 「남한의 대북정책 변화」(8.4%)의 순이다. 이를 다시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으로 구분한다면 외부적 요인(「북한에 대한 국제적 개방압력」, 「사회주의권의 몰락」, 「남한의 대북 정책 변화」)으로 응답한 비율이 63.0%로 내부적 요인(「북한의 경제난」, 「북한주민들의 불만」)으로 응답한 비율 36.7%보다 월등히 높았다.

<그림 2-4-2> 북한체제 유지요인



〈그림 2-4-3〉 북한체제 변화촉진요인



5. 북한체제의 붕괴가 통일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

현재의 북한체제가 붕괴되면 통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귀하는 북한의 김일성·김정일 정권의 붕괴가 남북한 통일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그림 2-5>에 나와 있는데, 「통일을 앞당길 것이다」라는 응답이 67.3%로, 「통일을 지연시킬 것이다」라는 응답 18.7%보다 두배이상 많았다. 따라서 국민들은 현재 북한의 김일성·김정일 체제가 「반통일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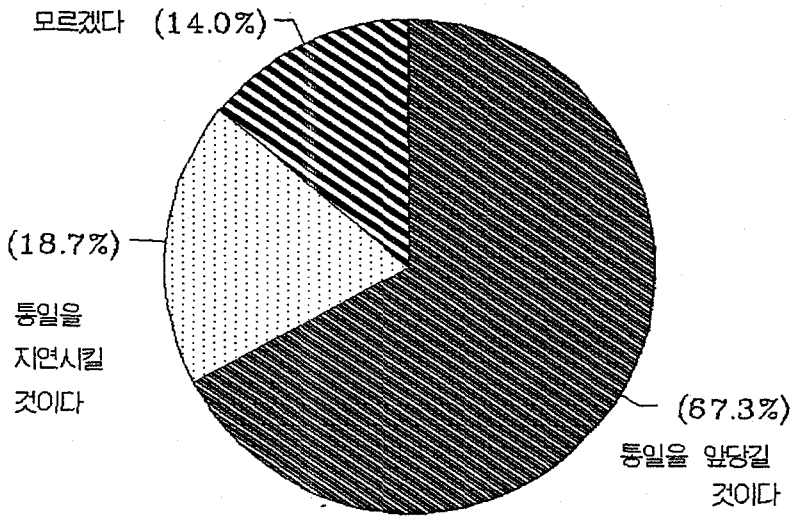
이 질문에 대하여 배경변수별로 정리한 것이 <표 2-5>이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50대가 김일성·김정일정권의 붕괴가 통일을 앞당긴다고 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지역적으로는 경상도와 전라도지역 주민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학력별로는 대제이상 이 통일을 앞당긴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경제적으로는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응답자들이 김일성·김정일 체제가 통일을 앞당긴다고 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6. 김정일로의 권력이양이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국민들이 김정일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귀하는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일로 권력이 이양되는 것이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그림 2-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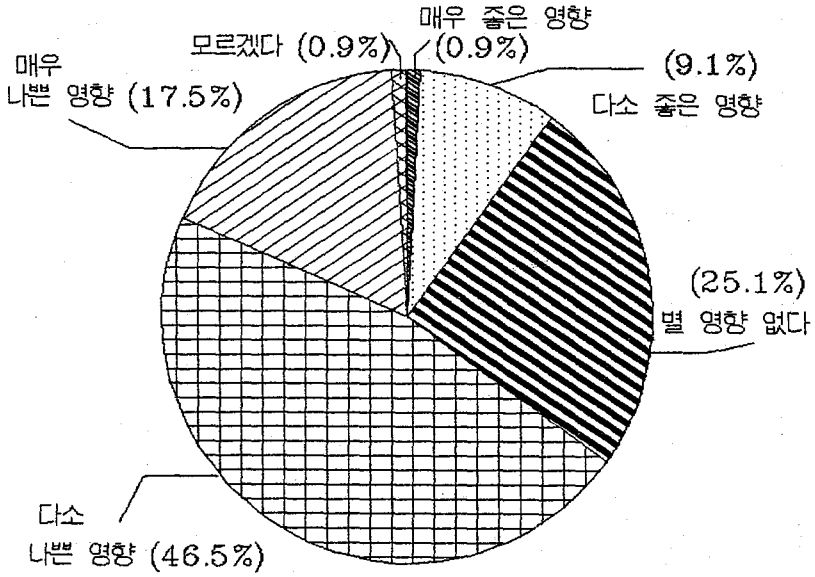
<그림 2-5> 김일성·김정일정권 붕괴가 통일에 미치는 영향



<표 2-5> 김일성·김정일정권 붕괴가 통일에 미치는 영향

변수		항목	앞당긴다	늦는다	모르겠다	유의도
나이	20대	71.62	17.47	10.92	$X^2=22.84$ $P=.004$ $N=1500$	
	30대	62.36	22.39	15.25		
	40대	68.13	17.53	14.34		
	50대	70.48	17.47	12.05		
	60세이상	66.36	10.28	23.36		
거주지역	서울경기	65.50	21.88	12.61	$X^2=33.98$ $P=.000$ $N=1500$	
	경상	72.31	16.70	10.98		
	전라	73.33	9.74	16.92		
	충청강원	57.14	20.95	21.90		
학력	중졸이하	66.48	14.01	19.51	$X^2=35.68$ $P=.000$ $N=1500$	
	고졸	63.21	24.32	12.46		
	대제이상	73.83	14.26	11.91		
가구소득	79만원이하	67.12	13.36	19.52	$X^2=19.68$ $P=.012$ $N=1497$	
	80-119만원	65.43	20.58	13.99		
	120-199만원	69.81	19.27	10.92		
	200-299만원	66.29	22.29	11.43		
	300만원이상	70.13	12.99	16.88		
전체		67.3	18.7	14.0	$N=1500$	

<그림 2-6> 김정일체제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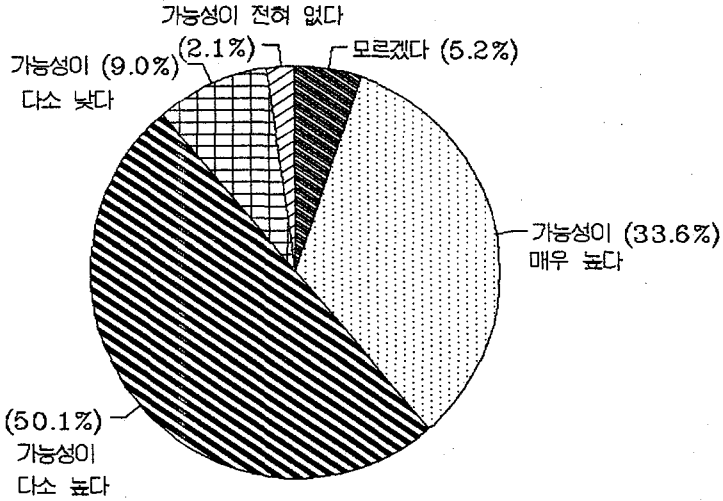


「다소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응답이 전체의 46.5%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이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25.1%),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17.5%), 「매우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0.9%)라는 순서로 응답하였다. 이를 다시 부정적인 평가와 긍정적인 평가로 나누어 보면 부정적인 응답 비율이 64.0%로 긍정적인 응답 비율 10.0%에 비하여 6배이상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민들이 김정일에 대한 평가는 지극히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7. 북한의 핵무기개발 가능성에 대한 평가

북한의 핵무기개발 문제는 현재 남북관계의 핵심적인 관심사이다. 북한의 핵무기개발 여부를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귀하는 북한의 핵무기개발 가능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한 응답은 <그림 2-7>에 정리되어 있다. 「가능성이 다소 높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50.1%로 제일 높고, 다음이 「가능성이 매우 높다」(33.6%), 「가능성이 다소 낮다」(9.0%), 「가능성이 전혀 없다」(2.1%)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전체적으로 북한의 핵무기개발 가능성을 인정한 사람이 83.7%나 되는 반면, 핵무기개발 가능성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11.1%에 불과해 대부분의 국민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7> 북한 핵무기개발 가능성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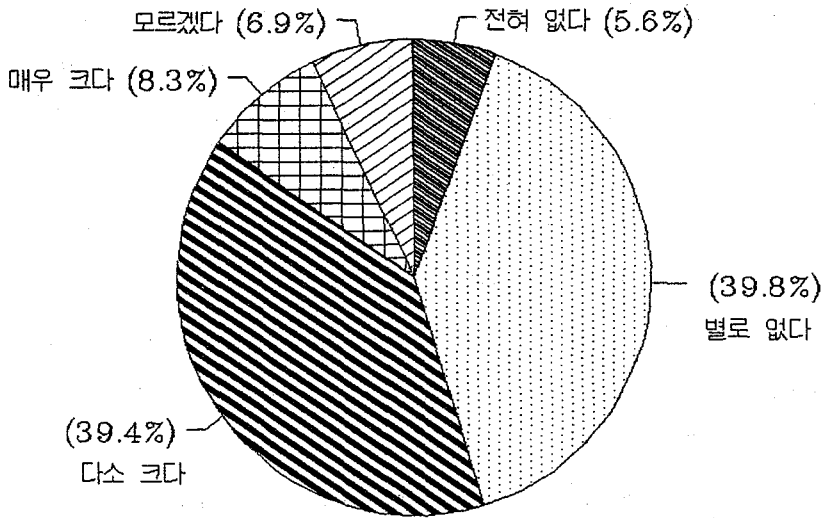
8.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에 대한 평가

북한이 전쟁을 유발할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귀하는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리라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은 <그림 2-8>에 정리되어 있는데 「별로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9.8%로 제일 높지만, 「다소 크다」라는 응답도 39.4%나 되어 북한의 전쟁 유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응답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매우 크다」가 8.3%이고 「전혀 없다」가 5.6%이기 때문에 북한이 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비율이 47.7%로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비율 45.4%보다 약간 높기는 하지만 그 차이는 미미하다. 따라서 북한이 전쟁을 도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여론이 반반씩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주요 배경 변수별로 응답비율을 정리한 것이 <표 2-8>이다.

연령별로 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북한이 전쟁을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나이가 적을수록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충청·강원지역 주민과 서울·경기주민들이 북한이 전쟁을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52.9%, 50.8%로 과반수가 넘고 있다. 학력별로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전쟁도발의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50대 이상은 한국전쟁의 경험자라는 점에서 북한의 전쟁 도발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지역적 편차는 북한과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있는가가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된다.

<그림 2-8>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



<표 2-8>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

변수		항목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다소 크다	매우 크다	모르 겠다	유의도
나이	20대		8.08	46.72	33.41	8.08	3.71	X ² =50.70 P=.000 N=1500
	30대		4.44	40.15	41.12	6.76	7.53	
	40대		6.37	38.25	38.65	9.16	7.57	
	50대		3.61	29.52	44.58	12.65	9.64	
	60세이상		1.87	28.04	50.47	8.41	11.21	
주거지역	서울경기		5.47	39.67	42.25	8.51	4.10	X ² =30.81 P=.002 N=1500
	경상		4.58	42.33	36.84	7.32	8.92	
	전라		7.18	44.10	34.36	5.64	8.72	
	충청강원		6.67	30.95	40.48	12.38	9.52	
학력	중졸이하		3.85	31.32	44.51	9.62	10.71	X ² =45.07 P=.000 N=1500
	고졸		4.65	39.49	40.69	9.61	5.56	
	대제이상		8.30	46.81	33.62	5.53	5.74	
가구소득	79만원이하		6.16	33.90	41.44	8.22	10.27	X ² =25.26 P=.065 N=1497
	80-119만원		3.91	39.71	40.33	9.88	6.17	
	120-199만원		5.78	40.47	40.26	7.49	6.00	
	200-299만원		6.29	44.00	37.14	6.86	5.71	
	300만원이상		1.69	48.05	25.97	7.79	6.49	
전체			5.6	39.8	39.4	8.3	6.9	N=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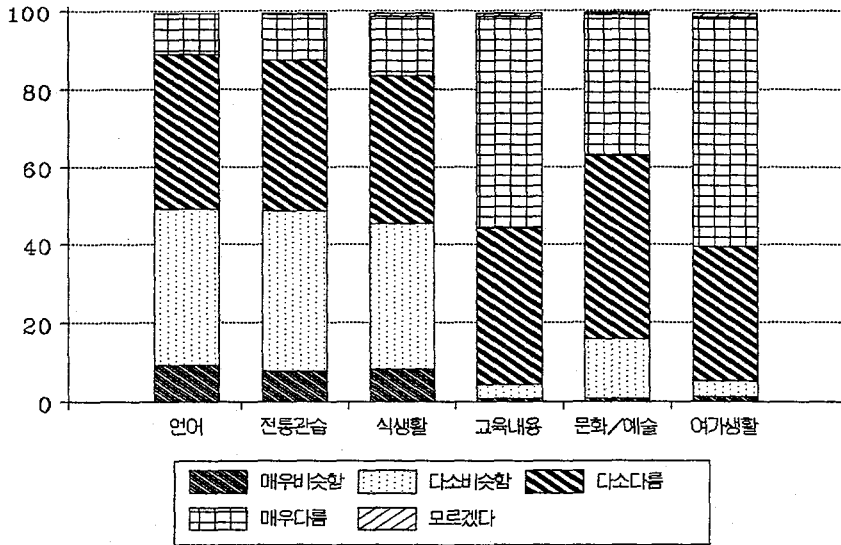
9. 남북한의 이질화 정도에 대한 평가

본 조사에서는 각 분야별로 남북한의 이질화 정도에 대한 국민들의 견해를 물어 보았다. 여론조사 결과는 실제적인 이질화 수준과는 다를 수도 있으나, 일반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이질감 자체가 남북관계에서는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각 분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은 남북간 이질성이 높다고 응답하였다(<그림 2-9> 참조). 그중에서 일상적인 생활과 연관된 언어, 전통관습, 식생활에 있어서는 남북한이 동질적이라는 견해와 이질적이라는 견해가 대체로 반반씩 엇갈리고 있다(49.3%:50.5%, 48.7%:50.9%, 45.4%:53.7%). 그러나 교육내용이나 문학예술과 같이 정치와 연관된 부문과 여가생활에 있어서는 이질적이라는 응답이 월등하게 많았다(94.7%, 83.4%, 94.2%).

이질화 정도에 대한 응답을 주요 배경별로 정리한 것이 <표2-9-1>~<2-9-6>이다. 이질화 문제에 대하여서는 배경변수 별로 뚜렷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림 2-9> 남북한의 이질화 정도에 대한 평가



<표 2-9-1> 언어의 유사성

변수		항목	매 우	다 소	다 소	매 우	모 르	유의도
			비 슷	비 슷	다 림	다 림	겠 다	
나 이	20대		9.17	41.05	40.17	9.61	0.00	X ² =17.08 P=.380 N=1500
	30대		9.07	41.12	40.54	9.27	0.00	
	40대		10.76	38.25	39.84	11.16	0.00	
	50대		7.23	40.96	38.55	12.65	0.60	
	60세이상		7.48	36.45	39.25	15.89	0.93	
주 거 지 역	서울경기		9.27	37.99	43.31	9.42	0.00	X ² =34.54 P=.001 N=1500
	경 상		8.47	38.44	43.48	9.61	0.00	
	전 라		9.74	47.69	31.28	11.28	0.00	
	충청강원		9.05	44.29	30.48	15.24	0.95	
학 력	중졸이하		6.04	39.29	39.84	14.29	0.55	X ² =24.11 P=.002 N=1500
	고 졸		8.71	40.54	39.94	10.81	0.00	
	대재이상		11.91	40.64	40.21	7.23	0.00	
가 구 소 득	79만원이하		6.85	41.78	39.04	11.64	0.68	X ² =26.87 P=.043 N=1497
	80-119만원		7.41	41.56	40.74	10.29	0.00	
	120-199만원		9.85	41.54	38.76	9.85	0.00	
	200-299만원		10.86	34.29	44.57	10.29	0.00	
	300만원이상		19.48	32.47	36.36	11.69	0.00	
전 체			9.1	40.3	40.0	10.5	0.1	N=1500

〈표 2-9-2〉 전통관습의 유사성

변수		항목	매 우	다 소	다 소	매 우	모 르	유의도
			비 슷	비 슷	다 름	다 름	겠 다	
나 이	20대	7.86	42.79	39.52	9.83	0.00	X ² =27.82 P=.033 N=1500	
	30대	8.30	40.15	38.03	13.32	0.19		
	40대	7.57	41.43	41.04	9.96	0.00		
	50대	6.02	39.76	38.55	13.25	2.41		
	60세이상	5.61	40.19	38.32	14.95	0.93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6.69	40.43	42.10	10.64	0.15	X ² =44.98 P=.000 N=1500	
	경 상	7.09	38.44	42.11	12.36	0.00		
	전 라	10.26	44.62	34.87	10.26	0.00		
	충청강원	9.05	45.71	27.14	15.71	2.38		
학 력	중졸이하	5.22	42.03	39.01	12.36	1.37	X ² =21.28 P=.006 N=1500	
	고 졸	6.76	41.74	39.49	11.86	0.15		
	대재이상	10.64	39.57	38.51	11.28	0.00		
가 구 소 득	79만원이하	7.88	45.55	33.22	11.64	1.71	X ² =37.86 P=.002 N=1497	
	80-119만원	6.58	39.30	43.62	10.29	0.21		
	120-199만원	6.85	41.33	39.19	12.63	0.00		
	200-299만원	9.14	34.86	41.14	14.86	0.00		
	300만원이상	14.29	49.35	27.27	9.09	0.00		
전 체		7.6	41.1	39.1	11.8	0.4	N=1500	

<표 2-9-3> 식생활의 유사성

변수		항목	매 우		다 소		모 르	유의도
			비 슷	비 슷	다 름	다 름		
나 이	20대	9.17	38.43	38.65	13.10	0.66	X ² =24.52 P=.079 N=1500	
	30대	8.11	39.38	36.49	15.83	0.19		
	40대	7.57	37.45	37.45	16.73	0.80		
	50대	7.23	31.33	38.55	19.88	3.01		
	60세이상	6.54	31.78	47.66	13.08	0.93		
주 거 지 역	서울경기	6.99	34.95	40.43	17.02	0.61	X ² =50.77 P=.000 N=1500	
	경 상	7.78	37.76	40.05	14.42	0.00		
	전 라	13.33	44.62	32.31	9.74	0.00		
	충청강원	7.62	37.14	33.81	17.62	3.81		
학 력	중졸이하	4.67	34.89	42.31	15.93	2.20	X ² =30.50 P=.000 N=1500	
	고 졸	7.81	38.14	36.34	17.27	0.45		
	대제이상	11.28	38.09	38.09	12.34	0.21		
가 구 소 득	79만원이하	9.59	32.53	43.84	11.99	2.05	X ² =31.05 P=.013 N=1497	
	80-119만원	5.76	41.15	37.65	14.61	0.82		
	120-199만원	8.35	37.90	36.83	16.49	0.43		
	200-299만원	10.86	30.86	37.14	21.14	0.00		
	300만원이상	10.39	42.86	33.77	12.99	0.00		
전 체		8.1	37.3	38.3	15.4	0.8	N=1500	

<표 2-9-4> 교육내용의 유사성

변수		항목	매 우	다 소	다 소	매 우	모 르	유의도
			비 슷	비 슷	다 림	다 림	겠 다	
나 이	20대	0.66	5.02	41.05	52.84	0.44	X ² =28.43 P=.028 N=1500	
	30대	1.16	2.12	42.28	54.05	0.39		
	40대	0.40	5.18	39.84	52.99	1.59		
	50대	0.00	5.42	33.73	59.64	1.20		
	60세이상	0.00	0.93	34.58	61.68	2.80		
주 거 지 역	서울경기	0.91	3.34	40.43	54.71	0.61	X ² =74.46 P=.000 N=1500	
	경 상	0.46	2.29	46.45	50.80	0.00		
	전 라	0.00	8.72	40.00	51.28	0.00		
	충청강원	0.95	3.81	25.24	65.71	4.29		
학 력	중졸이하	0.55	3.57	37.36	56.87	1.65	X ² =8.23 P=.411 N=1500	
	고 졸	0.45	3.30	41.44	54.05	0.75		
	대제이상	1.06	4.68	40.00	53.83	0.43		
가 구 소 득	79만원이하	1.37	4.45	40.41	51.37	2.40	X ² =19.66 P=.236 N=1497	
	80-119만원	0.62	3.29	41.98	53.50	0.62		
	120-199만원	0.21	3.43	39.83	56.10	0.43		
	200-299만원	1.14	4.57	36.57	57.71	0.00		
	300만원이상	0.00	5.19	36.36	57.14	1.30		
전 체		0.7	3.8	40.0	54.7	0.9	N=1500	

<표 2-9-5> 문화/예술의 유사성

변수		항목	매 우	다 소	다 소	매 우	모 르	유의도
			비 슷	비 슷	다 름	다 름	겠 다	
나 이	20대	0.87	18.12	43.45	37.55	0.00	X ² =31.95 P=.010 N=1500	
	30대	0.97	13.71	48.26	36.87	0.19		
	40대	0.40	15.14	50.60	33.07	0.80		
	50대	0.60	14.46	49.40	34.34	1.20		
	60세이상	0.00	13.08	44.86	38.32	3.74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0.46	11.85	48.94	38.30	0.46	X ² =41.73 P=.000 N=1500	
	경 상	0.92	19.45	46.00	33.64	0.00		
	전 라	1.03	15.90	51.79	31.28	0.00		
	충청강원	0.95	17.14	39.05	40.00	2.86		
학 력	중졸이하	1.10	16.21	47.53	33.52	1.65	X ² =16.79 P=.032 N=1500	
	고 졸	0.75	15.92	48.35	34.53	0.45		
	대재이상	0.43	13.83	44.89	40.85	0.00		
가 구 소 득	79만원이하	1.71	18.15	47.95	29.79	2.40	X ² =38.75 P=.001 N=1497	
	80-119만원	0.62	15.84	48.77	34.36	0.41		
	120-199만원	0.43	13.49	46.04	40.04	0.00		
	200-299만원	0.57	12.57	47.43	39.43	0.00		
	300만원이상	0.00	19.48	37.66	42.86	0.00		
전 체		0.7	15.3	47.1	36.3	0.6	N=1500	

<표 2-9-6> 여가생활의 유사성

변수		항목	매 우	다 소	다 소	매 우	모 르	유의도
			비 슷	비 슷	다 름	다 름	겠 다	
나 이	20대	1.09	6.55	32.75	58.73	0.87	X ² =24.99 P=.070 N=1500	
	30대	1.16	3.09	35.14	59.85	0.77		
	40대	1.59	2.79	33.86	61.35	0.40		
	50대	0.00	3.61	39.16	55.42	1.81		
	60세이상	0.93	1.87	32.71	60.75	3.74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1.06	3.50	37.54	57.14	0.76	X ² =70.26 P=.000 N=1500	
	경 상	1.14	3.43	29.52	65.68	0.23		
	전 라	0.51	5.64	47.69	46.15	0.00		
	충청강원	1.43	5.71	22.86	65.24	4.76		
학 력	중졸이하	1.37	4.95	37.64	53.85	2.20	X ² =14.62 P=.067 N=1500	
	고 졸	0.75	3.15	33.33	62.31	0.45		
	대제이상	1.28	4.68	33.62	59.36	1.06		
가 구 소 득	79만원이하	1.37	5.82	39.73	51.37	1.71	X ² =30.01 P=.018 N=1497	
	80-119만원	0.82	2.67	34.77	60.29	1.44		
	120-199만원	0.64	3.64	35.55	59.74	0.43		
	200-299만원	2.86	5.71	25.14	65.71	0.57		
	300만원이상	0.00	5.19	28.57	64.94	1.30		
전 체		1.1	4.1	34.5	59.3	1.1	N=1500	

제Ⅲ장 통일관련 쟁점 및 통일정책에 대한 인식 및 평가

1. 「통일정책 3대기조」에 대한 지지도

새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지지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귀하는 새정부 통일정책 추진의 3대기조인 ‘민족복리, 공존공영, 국민적 합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그림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가는 대단히 긍정적이다. 「대체로 찬성한다」(60.0%), 「적극 찬성한다」(15.6%)를 합해서 보면, 새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응답자들의 찬성율은 75.6%에 달하고 있다. 「통일정책 3대기조」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는 높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표 3-1>는 「통일정책 3대기조」에 대한 지지도를 배경변수별로 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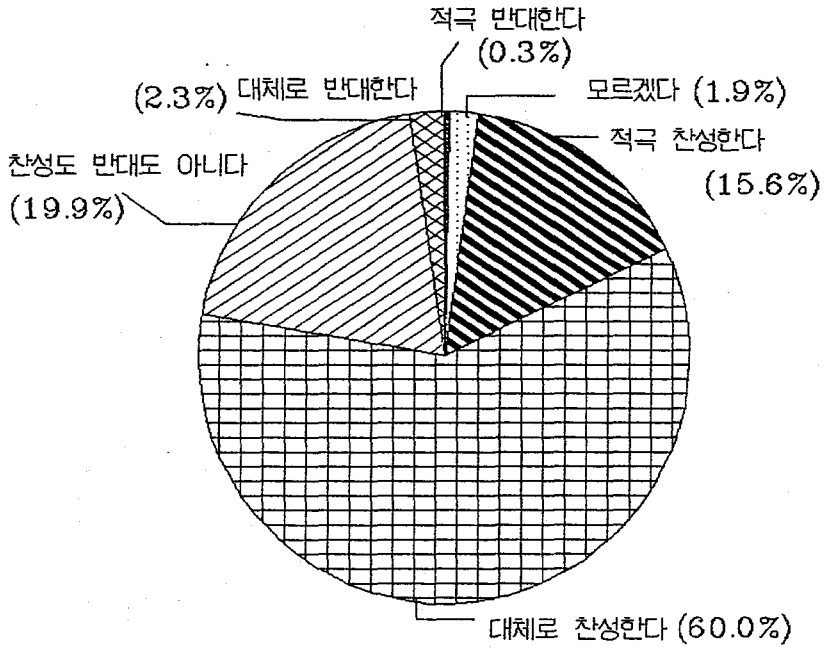
나이에서는 청년층(20~30대)이 장년층(40~50대), 노년층(60대 이상)에 비해 약간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거주지역에서는 서울 경기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전라지역이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학력에서는 대재이상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가구소득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 통일정책 3대기조에 대한 평가



<표 3-1> 통일정책 3대기준에 대한 평가

변수		항목	적극 찬성	대체 찬성	중간 이다	대체 반대	적극 반대	모르 겠다	유의도
나이	20대		15.94	60.26	20.09	3.06	0.00	0.66	X ² =50.59 P=.000 N=1500
	30대		16.22	61.39	18.92	1.54	0.39	1.54	
	40대		14.34	64.54	15.94	3.19	0.40	1.59	
	50대		17.47	55.42	23.49	0.60	0.60	2.41	
	60세이상		11.21	48.60	28.04	3.74	0.00	8.41	
주거 지역	서울경기		14.74	63.98	15.65	3.65	0.30	1.67	X ² =99.91 P=.000 N=1500
	경상		11.90	62.24	24.03	0.69	0.23	0.92	
	전라		11.28	58.97	27.69	2.05	0.00	0.00	
	충청강원		30.00	43.81	17.62	1.90	0.48	6.19	
학력	중졸이하		13.46	55.49	25.00	1.37	0.27	4.40	X ² =29.36 P=.001 N=1500
	고졸		16.07	60.66	19.37	2.40	0.30	1.20	
	대제이상		16.60	62.55	16.81	2.98	0.21	0.85	
가구 소득	79만원이하		16.44	54.45	22.95	1.37	0.00	4.79	X ² =40.65 P=.004 N=1500
	80-119만원		17.08	58.64	19.96	1.85	0.41	2.06	
	120-199만원		15.20	61.67	18.63	3.21	0.43	0.86	
	200-299만원		10.29	66.86	21.14	1.71	0.00	0.00	
	300만원이상		18.18	63.64	12.99	5.19	0.00	0.00	
전체			15.6	60.0	19.9	2.3	0.3	1.9	N=1500

나이가 젊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새정부의 통일정책 3대기조를 지지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

2. 통일정책과 관련한 정부의 신뢰성에 대한 평가

통일정책과 관련하여 새정부에 대한 신뢰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귀하는 새정부가 통일정책을 정권유지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했다.

<그림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에 대하여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응답비율이 46.8%,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이 15.9%로서, 모두 62.7%의 응답자가 ‘그렇지 않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통일정책과 관련한 새정부의 신뢰성은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의 <표 3-2>는 통일정책과 관련한 새정부의 신뢰성에 대한 평가를 배경변수별로 본 것이다.

나이에서는 청년층(20~30대)의 신뢰감이 상대적으로 가장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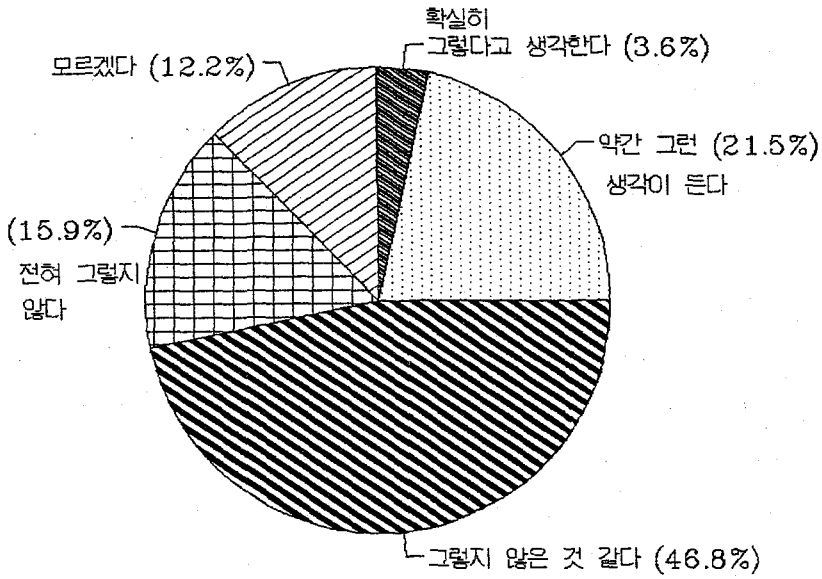
거주지역에서는 전라도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신뢰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력에서는 대재이상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가구소득에서는 그다지 주목할만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통일정책 3대기조」에 대한 지지도와 통일정책과 관련한 새정부의 신뢰성에 대한 평가를 비교해보면, 국민들은 새정부의 통일정책에는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고, 그것을 추진하는 새정부의 신뢰성도

<그림 3-2> 통일정책의 정권유지 수단화 여부



〈표 3-2〉 통일정책의 정권유지 수단화 여부

변수		항목	확실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다	모르 겠다	유의도
나이	20대		5.24	26.64	46.72	12.66	8.73	X ² =65.88 P=.000 N=1500
	30대		3.09	22.78	48.84	13.71	11.58	
	40대		3.59	15.54	50.60	19.92	10.36	
	50대		3.01	17.47	42.17	18.67	18.67	
	60세이상		0.00	14.02	35.51	26.17	24.30	
거주지역	서울경기		1.98	20.21	55.32	14.29	8.21	X ² =64.52 P=.000 N=1500
	경상		3.89	19.68	43.02	19.91	13.50	
	전라		7.69	27.18	36.92	11.79	16.41	
	충청강원		4.29	24.29	37.14	16.19	18.10	
학력	중졸이하		1.65	19.23	39.56	16.21	23.35	X ² =70.92 P=.000 N=1500
	고졸		3.15	20.27	51.05	16.22	9.31	
	대제이상		5.74	25.11	46.38	15.11	7.66	
가구소득	79만원이하		5.48	18.49	41.44	15.41	19.18	X ² =34.36 P=.000 N=1497
	80-119만원		2.67	24.49	46.09	16.46	10.29	
	120-199만원		2.36	20.13	51.39	14.35	11.78	
	200-299만원		5.14	21.71	48.00	16.57	8.57	
	300만원이상		5.19	22.08	41.56	22.08	9.09	
전체			3.6	21.5	46.8	15.9	12.2	N=1500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정책과 관련한 새정부의 신뢰성 평가는 통일정책 자체에 대한 평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권위주의정치하에서 정부가 통일정책을 정권안보를 위해 악용한 것으로부터 생겨난 국민들의 의혹이 아직도 의식 속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3. 대북 정책방향 및 수단에 대한 평가

가. 정책방향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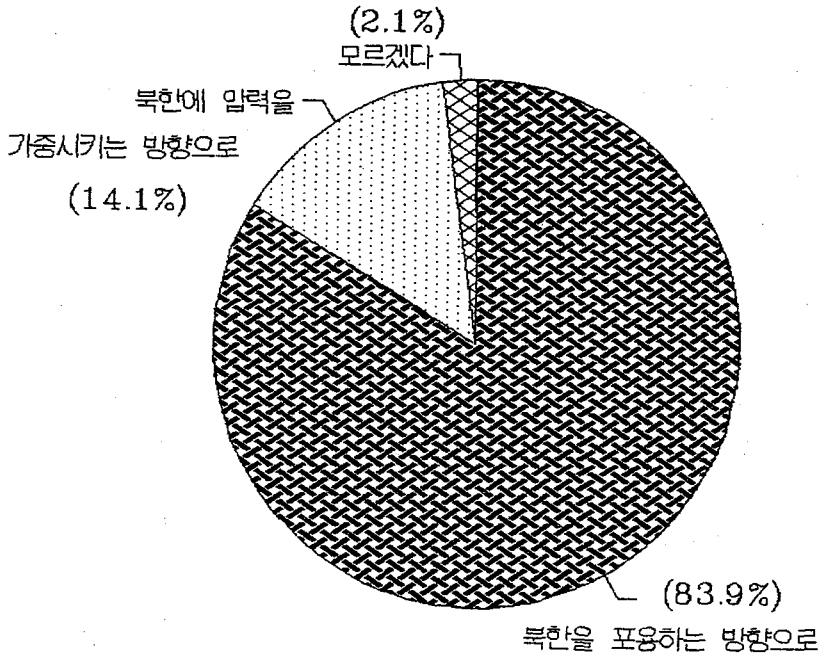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대북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서 “귀하는 현시점에서 북한을 개혁·개방하기 위해 어떤 방향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을 했다. <그림 3-3-1>은 이에 대한 응답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응답자의 83.9%가 「북한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대답하였고, 14.1%만이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북한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의 방향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다음 <표 3-3-1>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대북정책의 방향 및 정책수단에 대한 평가를 배경변수별로 살펴본 것이다.

나이에서는 청년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포용하는 방향’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거주지역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으나 전라지역이 ‘포용하는 방향’

<그림 3-3-1> 북한개방을 위한 정책방향



<표 3-3-1> 북한개방을 위한 정책방향

변수 \ 항목		북한포용 방 향	압력가중 방 향	모르겠다	유의도
나 이	20대	84.28	14.85	0.87	X ² =22.28 P=.004 N=1500
	30대	85.52	12.93	1.54	
	40대	85.26	13.15	1.59	
	50대	79.52	15.06	5.42	
	60세이상	77.57	16.82	5.61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84.19	14.59	1.22	X ² =14.53 P=.024 N=1500
	경 상	83.98	12.59	3.43	
	전 라	85.13	14.87	0.00	
	충청강원	81.43	14.76	3.81	
학 력	중졸이하	80.49	14.01	5.49	X ² =28.04 P=.000 N=1500
	고 졸	84.83	14.11	1.05	
	대재이상	85.11	14.04	0.85	
가 구 소 득	79만원이하	81.16	14.73	4.11	X ² =14.15 P=.078 N=1497
	80-119만원	86.01	12.55	1.44	
	120-199만원	85.65	13.06	1.28	
	200-299만원	80.00	17.14	2.86	
	300만원이상	79.22	19.48	1.30	
전 체		83.9	14.1	2.1	N=1500

을 약간 더 지지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학력에서는 대재이상이 '포용하는 방향'의 지지를 상대적으로 약간 높게 보이고 있다.

가구소득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차이는 그다지 주목할만한 것은 아니다. 응답자의 압도적인 다수가 집단간의 큰 차이없이 '포용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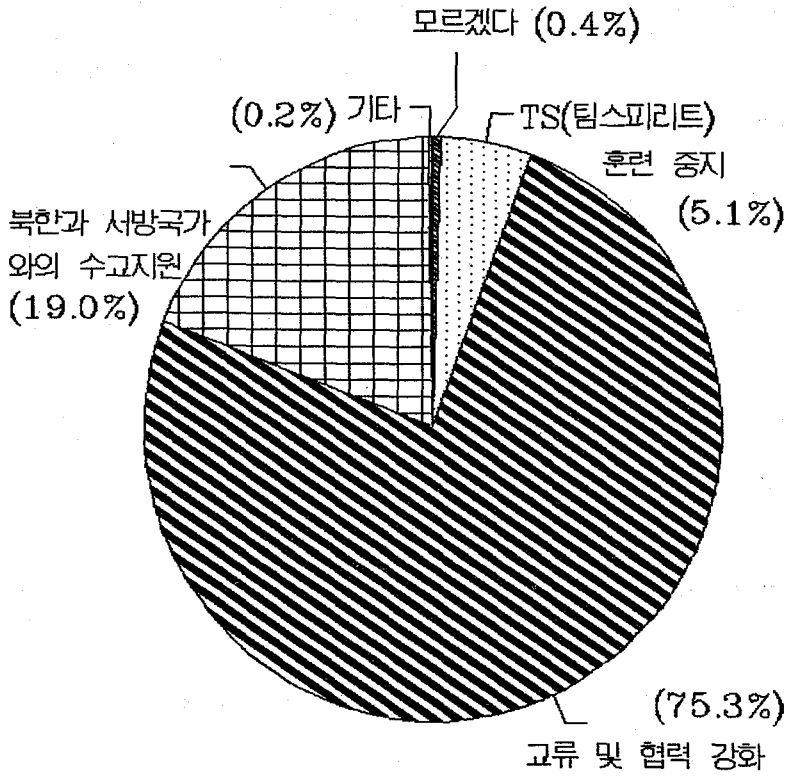
나.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효과적인 '포용수단'에 대한 평가

위 문항의 '정책방향에 대한 평가'에서 「북한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대답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현 시점에서 북한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포용수단은 무엇이겠습니까?”라는 질문을 했다. <그림 3-3-2>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이 생각하는 가장 효과적인 포용수단은 「교류 및 협력 강화」(75.3%)이고, 그 다음으로 「북한과 서방국가와의 수교지원」(19.0%),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5.1%)의 순서로 나타났다.

다음 <표 3-3-2>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효과적인 '포용수단'에 대한 평가를 배경변수별로 살펴본 것이다.

여기에서는 나이, 거주지역, 학력,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집단들이 「교류 및 협력 강화」, 「북한과 서방국가와의 수교지원」,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 등의 순서로 대답하고 있다.

<그림 3-3-2> 북한에 대한 효과적 포용수단



<표 3-3-2> 북한에 대한 효과적 포용수단

변수		항목	T S 중 지	교 류 협 력	수 교 지 원	기 타	모 르 겠 다	유의도
나 이	20대		4.66	79.02	15.54	0.52	0.26	X ² =15.79 P=.467 N=1258
	30대		5.19	74.49	19.64	0.00	0.68	
	40대		6.07	70.56	22.90	0.47	0.00	
	50대		6.82	73.48	18.94	0.00	0.76	
	60세이상		1.20	77.11	21.69	0.00	0.00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5.60	78.52	14.62	0.36	0.90	X ² =30.66 P=.002 N=1258
	경 상		3.27	70.84	25.89	0.00	0.00	
	전 라		7.23	76.51	16.27	0.00	0.00	
	충청강원		5.26	73.10	21.05	0.58	0.00	
학 력	중졸이하		3.07	70.31	26.28	0.00	0.34	X ² =18.23 P=.020 N=1258
	고 졸		5.31	75.75	18.05	0.35	0.53	
	대재이상		6.25	78.25	15.00	0.25	0.25	
가 구 소 득	79만원이하		2.53	73.00	22.78	0.42	1.27	X ² =30.20 P=.017 N=1256
	80-119만원		5.74	74.88	19.38	0.00	0.00	
	120-199만원		4.50	77.25	17.75	0.00	0.50	
	200-299만원		9.29	72.86	16.43	1.43	0.00	
	300만원이상		4.92	80.33	14.75	0.00	0.00	
전 체			5.1	75.3	19.0	0.2	0.4	N=1258

다.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효과적인 '압력수단'에 대한 평가

위 문항의 '정책방향에 대한 평가'에서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대답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북한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압력수단은 무엇이겠습니까?”라는 질문을 했다. <그림 3-3-3>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이 생각하는 가장 효과적인 압력수단은 「외교적 고립화」(45.0%)이고, 그 다음으로는 「경제봉쇄」(33.6%), 「남한의 군사력 증강」(19.0%) 순서로 나타났다.

다음 <표 3-3-3>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효과적인 '압력수단'에 대한 평가를 배경변수별로 살펴본 것이다.

여기에서도 나이, 거주지역, 학력, 가구소득에 차이없이 모든 집단들이 「외교적 고립화」, 「경제봉쇄」, 「남한의 군사력 증강」 순서로 대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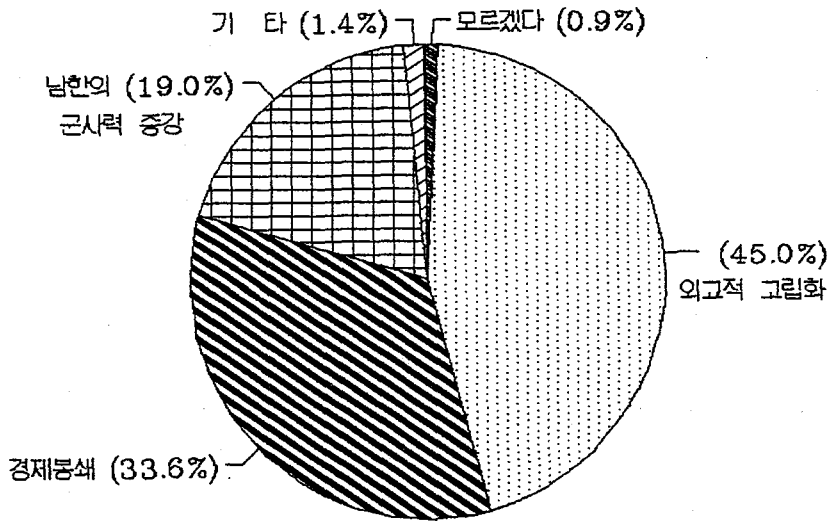
4. 대북 경제지원 여부에 대한 평가

“귀하는 경제난에 빠진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58.6%가 「대체로 찬성한다」, 14.7%가 「적극 찬성한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모두 73.3%의 응답자가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다 (<그림 3-4> 참조).

다음 <표 3-4>는 대북 경제지원 여부에 대한 평가를 배경변수별로 살펴본 것이다.

나이에서는 청년층의 찬성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약간 높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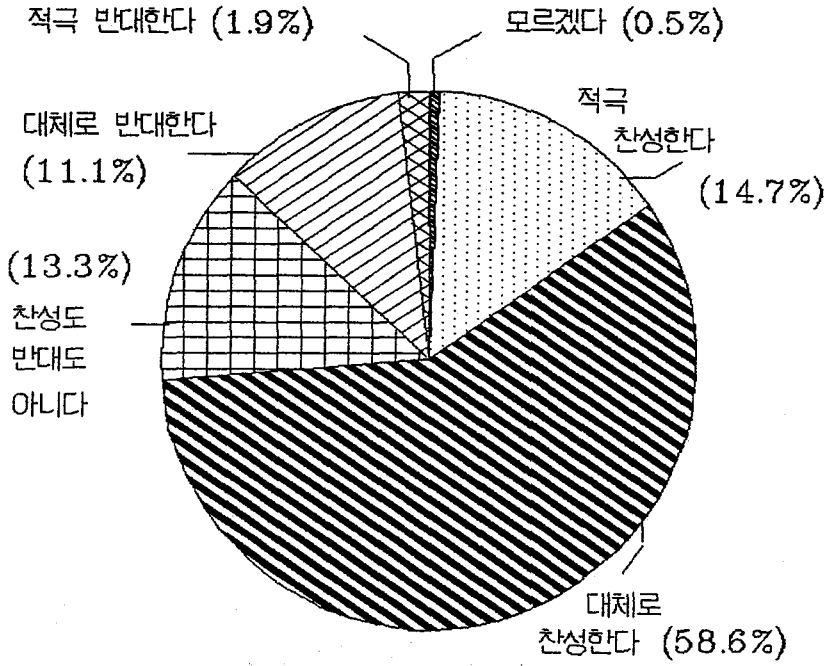
<그림 3-3-3>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압력수단



<표 3-3-3> 북한에 대한 효과적 압력수단

변수		항목	외 교 고 령	경 제 봉 쇄	군 사 증 강	기 타	모 르 겠 다	유의도
나 이	20대		44.12	42.65	11.76	1.47	0.00	X ² =11.40 P=.784 N=211
	30대		43.28	28.36	23.88	2.99	1.49	
	40대		42.42	30.30	24.24	0.00	3.03	
	50대		52.00	32.00	16.00	0.00	0.00	
	60세이상		50.00	27.78	22.22	0.00	0.00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44.79	30.21	21.87	2.08	1.04	X ² =14.13 P=.292 N=211
	경 상		49.09	40.00	10.91	0.00	0.00	
	전 라		51.72	31.03	10.34	3.45	3.45	
	충청강원		32.26	35.48	32.26	0.00	0.00	
학 력	중졸이하		43.14	27.45	29.41	0.00	0.00	X ² =13.73 P=.089 N=211
	고 졸		43.62	36.17	19.15	0.00	1.06	
	대제이상		48.48	34.85	10.61	4.55	1.52	
가 구 소 득	79만원이하		44.19	34.88	18.60	0.00	2.33	X ² =6.85 P=.976 N=210
	80-119만원		42.62	34.43	19.67	3.28	0.00	
	120-199만원		47.54	32.79	18.03	0.00	1.64	
	200-299만원		43.33	33.33	20.00	3.33	0.00	
	300만원이상		53.33	33.33	13.33	0.00	0.00	
전 체			45.0	33.6	19.0	1.4	0.9	N=211

<그림 3-4>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여부



〈표 3-4〉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여부

변수		항목	적극 찬성	대체 찬성	중간이다	대체 반대	적극 반대	모르겠다	유의도
		나이	20대	16.38	61.14	13.54	7.64	1.31	0.00
30대	13.51		58.69	14.67	11.97	0.97	0.19		
40대	13.15		58.17	11.95	14.74	1.99	0.00		
50대	17.47		51.81	13.25	11.45	4.82	1.20		
60세이상	12.15		58.88	8.41	13.08	3.74	3.74		
거주지역	서울경기	12.92	58.36	14.13	12.61	1.98	0.00	X ² =61.83 P=.000 N=1500	
	경상	13.27	62.93	13.04	9.38	1.14	0.23		
	전라	17.95	63.08	10.77	7.69	0.51	0.00		
	충청강원	20.00	46.19	13.33	13.33	4.29	2.86		
학력	중졸이하	14.01	57.69	11.81	12.09	3.02	1.37	X ² =27.74 P=.002 N=1500	
	고졸	11.71	60.36	13.96	12.16	1.65	0.15		
	대재이상	19.36	56.81	13.40	8.94	1.28	0.21		
가구소득	79만원이하	16.44	54.11	13.70	10.96	3.08	1.71	X ² =28.29 P=.103 N=1497	
	80-119만원	14.20	60.29	13.37	10.49	1.44	0.21		
	120-199만원	13.28	59.31	12.63	13.06	1.50	0.21		
	200-299만원	13.14	64.00	13.14	8.00	1.71	0.00		
	300만원이상	23.38	48.05	14.29	11.69	2.60	0.00		
전체		14.7	58.6	13.3	11.1	1.9	0.5	N=1500	

향을 보인다.

거주지역에서는 전라도 지역의 찬성율이 아주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서는 대재이상이 약간 높은 수준이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5. 핵문제-경협 연계정책에 대한 평가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남북경제협력을 제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비율은 <그림 3-5>에서 볼 수 있듯이 「대체로 찬성한다」가 54.5%, 「적극 찬성한다」가 20.4%로서, 모두 74.9%의 응답자가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중립적인 태도는 13.6%, 반대한다는 응답은 10.8%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국민들의 대부분이 핵문제 해결과 경제협력 제한을 연계하는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다음 <표 3-5>는 핵문제 해결과 경제협력 제한을 연계하는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배경변수별로 살펴본 것이다.

나이에서는 청년층이 찬성에 소극적이고, 장년층(4,50대), 노년층(60대이상)은 높은 찬성율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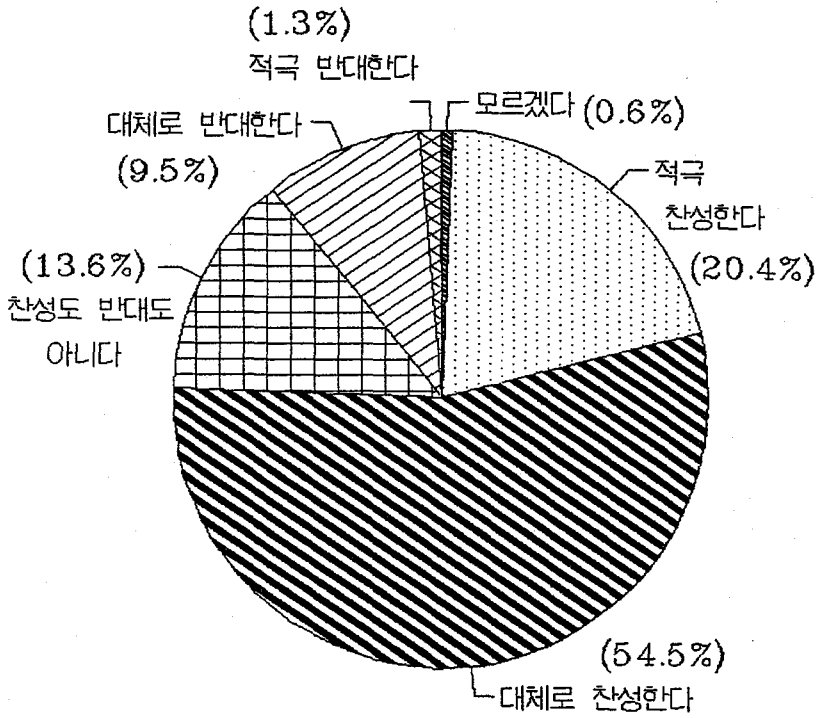
거주지역에서는 전라도 지역이 찬성에 가장 소극적으로 나타났다.

학력에서는 대재이상이 찬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구소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나이가 젊을수록, 고학력일수록 핵문제와 경협을 연계시키는 것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3-5> 핵-경협 연계에 대한 견해



<표 3-5> 핵-경험 연계에 대한 견해

변수		항목	적극	대체	중간	대체	적극	모르	유의도
			찬성	찬성	이다	반대	반대	겠다	
나이	20대	16.16	51.97	14.85	13.97	2.62	0.44	X ² =60.66 P=.000 N=1500	
	30대	18.34	58.88	13.32	8.30	0.77	0.39		
	40대	23.51	54.98	11.16	8.76	1.59	0.00		
	50대	29.52	47.59	15.06	6.63	0.00	1.20		
	60세이상	27.10	54.21	13.08	2.80	0.00	2.80		
거주지역	서울경기	20.82	54.71	10.49	12.31	1.52	0.15	X ² =107.24 P=.000 N=1500	
	경상	15.79	61.33	16.02	5.49	1.14	0.23		
	전라	13.33	57.44	20.51	8.21	0.51	0.00		
	충청강원	35.24	37.14	11.90	10.48	1.90	3.33		
학력	중졸이하	23.08	54.40	14.84	5.77	0.55	1.37	X ² =37.66 P=.000 N=1500	
	고졸	19.82	57.36	13.06	8.71	0.60	0.45		
	대제이상	19.15	50.64	13.40	13.62	2.98	0.21		
가구소득	79만원이하	22.95	51.03	16.10	7.53	1.03	1.37	X ² =33.30 P=.031 N=1497	
	80-119만원	21.40	55.14	12.96	8.44	1.03	1.03		
	120-199만원	17.99	57.60	13.06	10.49	0.86	0.00		
	200-299만원	20.57	52.00	14.86	9.71	2.86	0.00		
	300만원이상	19.48	50.65	7.79	18.18	3.90	0.00		
전체		20.4	54.5	13.6	9.5	1.3	0.6	N=1500	

6. 이인모노인 송환에 대한 평가

새정부가 이인모노인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아무런 조건없이 북한에 송환한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정부는 이인모노인을 조건없이 북한에 송환한 바 있습니다. 귀하는 이 같이 인도적인 문제에 전향적으로 대처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는 <그림 3-6>에서 나타나 있는 것처럼 「대체로 찬성한다」가 50.5%, 「적극 찬성한다」가 28.7%로서, 모두 79.2%가 찬성한다는 것이었다.

다음 <표 3-6>는 이인모노인 송환에 대한 평가를 배경변수별로 살펴본 것이다.

나이에서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거주지역에서는 서울·경기와 전라도 지역이 약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라도 지역은 반대의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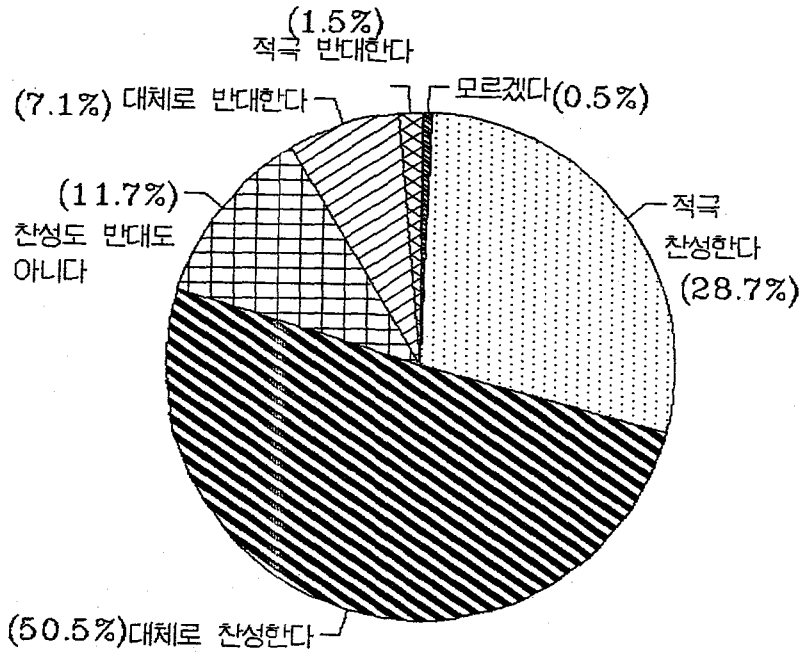
학력에서는 대재이상의 찬성율이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다.

7.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평가

“귀하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대체로 찬성한다」가 49.9%, 「적극 찬성한다」가 37.4%로서 모두 87.3%의 응답자가 찬성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불과 8.9%가 유보적인 태도를, 3.3%가 반대의사를 보였을 뿐이다(<그림 3-7> 참조).

다음 <표 3-7>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배경변수별로 살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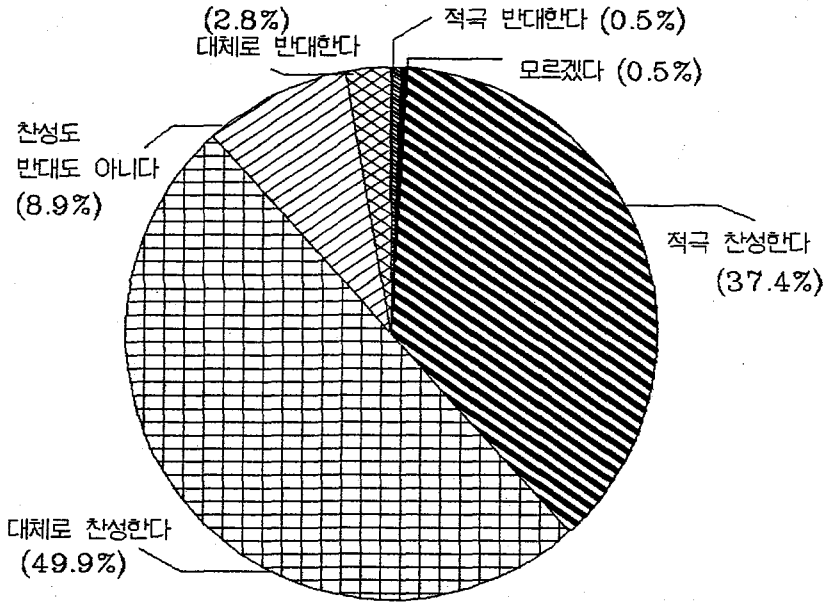
<그림 3-6> 이인모노인 송환에 대한 평가



〈표 3-6〉 이인모노인 송환에 대한 평가

변수		항목	적극	대체	중간	대체	적극	모르	유의도
			찬성	찬성	이다	반대	반대	겠다	
나이	20대	28.60	49.34	12.01	8.52	1.31	0.22	X ² =13.45 P=.857 N=1500	
	30대	28.96	50.77	11.97	6.95	0.97	0.39		
	40대	27.89	52.19	10.36	6.37	2.79	0.40		
	50대	28.92	51.20	11.45	6.02	1.20	1.20		
	60세이상	28.97	48.60	13.08	5.61	1.87	1.87		
거주지역	서울경기	32.52	49.24	8.05	8.66	1.22	0.30	X ² =73.45 P=.000 N=1500	
	경상	22.20	57.89	12.81	5.26	1.60	0.23		
	전라	26.15	55.38	11.79	5.13	1.54	0.00		
	충청강원	32.38	34.29	20.95	8.10	1.90	2.38		
학력	중졸이하	26.10	51.37	12.64	6.87	1.37	1.65	X ² =28.70 P=.001 N=1500	
	고졸	25.83	50.90	13.36	8.26	1.35	0.30		
	대제이상	34.68	49.15	8.72	5.74	1.70	0.00		
가구소득	79만원이하	29.11	46.23	15.41	6.16	1.71	1.37	X ² =22.51 P=.314 N=1497	
	80-119만원	25.72	54.94	9.67	7.82	1.44	0.41		
	120-199만원	30.62	48.82	12.63	6.42	1.07	0.43		
	200-299만원	29.71	52.57	8.00	8.00	1.71	0.00		
	300만원이상	32.47	44.16	11.69	9.09	2.60	0.00		
전체		28.7	50.5	11.7	7.1	1.5	0.5	N=1500	

<그림 3-7>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견해



<표 3-7>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견해

변수		항목	적극	대체	중간	대체	적극	모르	유의도
			찬성	찬성	이다	반대	반대	겠다	
나이	20대	37.55	48.03	9.39	4.59	0.44	0.00	X ² =49.64 P=.000 N=1500	
	30대	36.29	54.44	7.53	1.35	0.39	0.00		
	40대	38.25	48.61	9.16	2.79	1.20	0.00		
	50대	37.35	46.99	10.24	2.41	0.60	2.41		
	60세이상	40.19	43.93	10.28	2.80	0.00	2.80		
거주지역	서울경기	43.16	48.33	5.78	2.43	0.30	0.00	X ² =81.40 P=.000 N=1500	
	경상	25.17	59.27	11.21	2.97	0.69	0.69		
	전라	33.85	48.21	14.36	3.59	0.00	0.00		
	충청강원	48.10	37.14	8.57	2.86	1.43	1.90		
학력	중졸이하	39.84	46.70	9.34	1.92	0.27	1.92	X ² =30.80 P=.001 N=1500	
	고졸	35.14	53.15	8.71	2.40	0.60	0.00		
	대제이상	38.72	47.87	8.72	4.04	0.64	0.00		
가구소득	79만원이하	38.36	50.00	7.19	2.40	0.68	1.37	X ² =20.48 P=.428 N=1497	
	80-119만원	37.65	48.97	9.47	3.09	0.21	0.62		
	120-199만원	37.47	50.32	9.21	2.36	0.64	0.00		
	200-299만원	38.86	49.14	9.71	1.71	0.57	0.00		
	300만원이상	28.57	57.14	6.49	6.49	1.30	0.00		
전체		37.4	49.9	8.9	2.8	0.5	0.5	N=1500	

본 것이다.

나이, 거주지역, 학력, 가구소득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국민들이 남북정상회담을 전폭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좋을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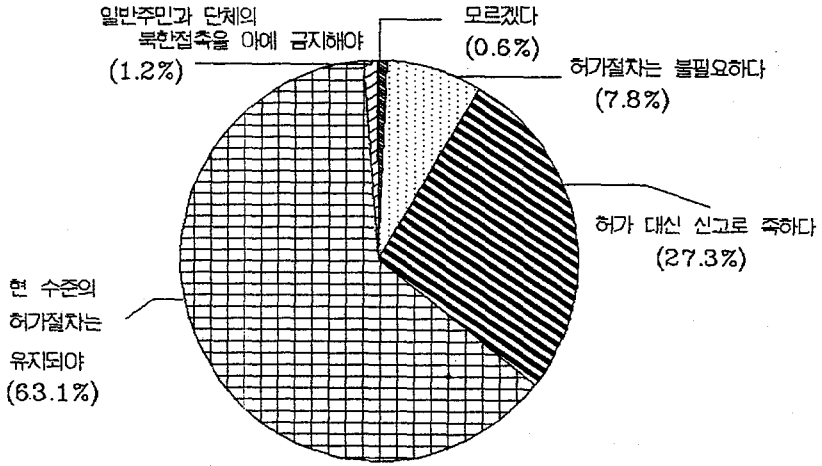
8. 대북 창구단일화 정책에 대한 평가

정부의 대북 창구단일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귀하는 남한의 주민이나 단체가 북한과 접촉하기 위해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했다. 다음 <그림 3-8>은 그것에 대한 응답의 분포를 표시한 것이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현 수준의 허가절차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63.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허가 대신 신고로 족하다」는 응답자가 27.3%였으며, 「허가 절차는 불필요하다」는 응답자는 7.8%에 지나지 않았다.

다음 <표 3-8>는 정부의 대북 창구단일화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배경변수별로 살펴본 것이다.

나이에서는 청년층이, 그리고 지역에서는 전라도 지역이, 학력에서는 대재이상인, 가구소득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은 층이, 「현 수준의 허가절차를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허가 대신 신고로 족하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약간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8> 북한접촉시 정부의 허가여부



〈표 3-8〉 북한집착시 정부의 허가여부

변수		항목	허가 불필요	신고로 즉합	현절차 유지	접촉 금지	모르 겠다	유의도
나이	20대		6.33	35.37	56.99	0.87	0.44	X ² =65.41 P=.000 N=1500
	30대		8.30	27.99	63.13	0.39	0.19	
	40대		9.56	22.31	66.53	1.59	0.00	
	50대		6.63	18.67	70.48	3.01	1.20	
	60세이상		9.35	14.02	70.09	2.80	3.74	
거주지역	서울경기		6.69	27.96	64.13	1.06	0.15	X ² =110.81 P=.000 N=1500
	경상		3.89	24.26	69.79	1.37	0.69	
	전라		23.59	33.33	42.05	1.03	0.00	
	충청강원		4.76	25.71	65.71	1.43	2.38	
학력	중졸이하		8.24	18.13	70.05	1.92	1.65	X ² =51.61 P=.000 N=1500
	고졸		8.11	25.08	65.47	1.20	0.15	
	대재이상		7.02	37.45	54.47	0.64	0.43	
가구소득	79만원이하		10.96	19.86	65.41	1.37	2.40	X ² =58.60 P=.000 N=1497
	80-119만원		8.02	29.01	61.52	1.23	0.21	
	120-199만원		5.57	25.91	67.45	0.86	0.21	
	200-299만원		7.43	32.57	60.00	0.00	0.00	
	300만원이상		9.09	40.26	45.45	5.19	0.00	
전체			7.8	27.3	63.1	1.2	0.6	N=1500

9. 통일시기에 대한 인식

“귀하는 통일이 언제쯤 이루어지리라고 예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5~10년’(37.3%), ‘10~30년’(30.8%), ‘5년 이내’(7.8%), ‘30년 이상’(9.2%) 순으로 대답했으며, ‘절대 불가능하다’는 의견은 13.3%에 달했다(<그림 3-9> 참조).

다음 <표 3-9>는 통일시기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배경변수별로 살펴본 것이다.

여기에서는 나이, 거주지역, 학력, 가구소득의 차이에 따라 통일시기에 대한 대답 순서의 변동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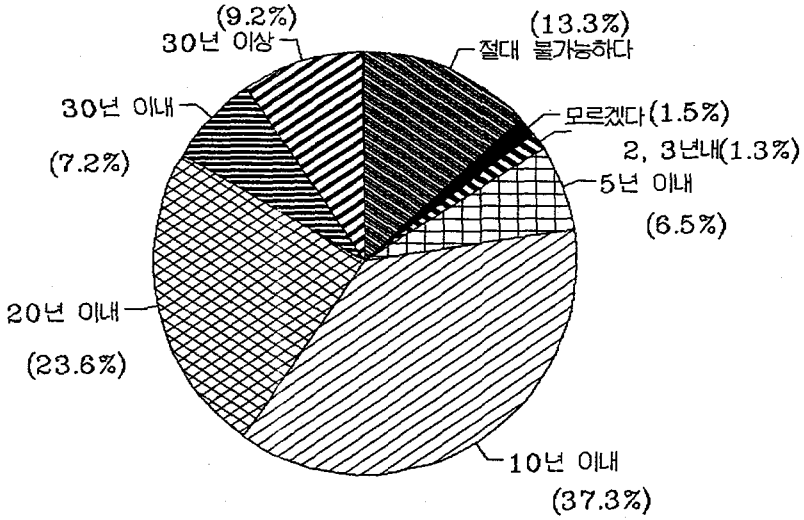
10. 남북통일의 ‘이상’과 ‘현실’에 대한 평가

국민들이 평가하는 남북통일의 방법에 대한 ‘이상’과 ‘현실’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가. 남북통일의 이상적인 방법

국민들이 ‘이상적인’ 남북통일의 방법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귀하는 남북통일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그림 3-10-1>에서 볼 수 있듯이 이에 대해 압도적 다수의 응답자가 「교류협력에 의한 점진적·합의적 통일」(82.8%)을 지적했다. 「독일 방식의 평화적 흡수 통일」(15.3%), 「군사력을 통한 무력통일」(1.5%)을 선택한 응답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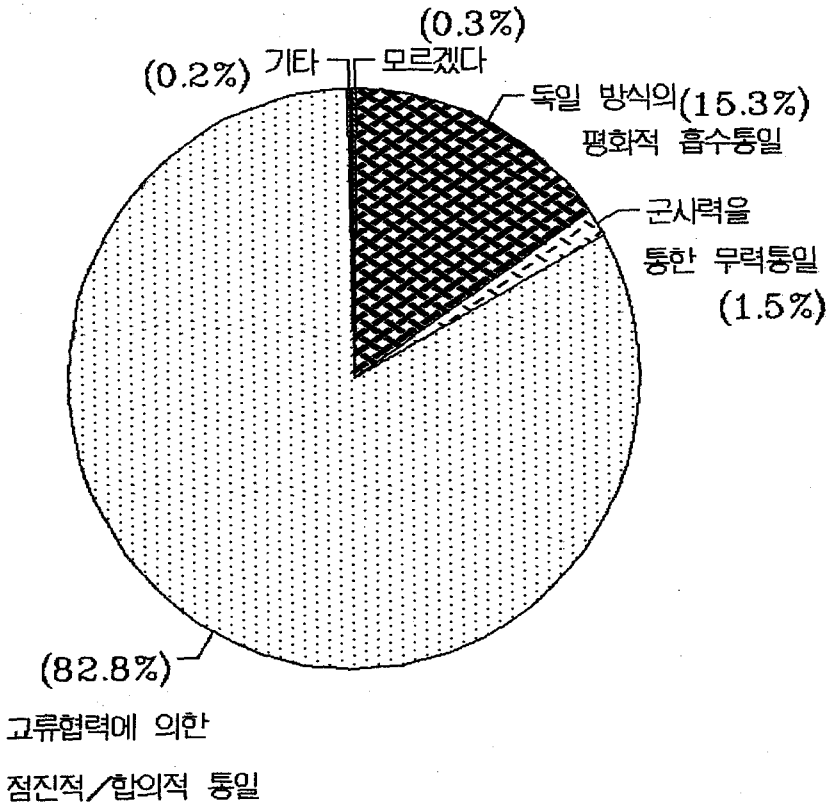
<그림 3-9> 통일시기에 대한 인식



〈표 3-9〉 통일시기에 대한 인식

변수		항목		2~3	5년	10년	20년	30년	30년	불	모르	유의도
		년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상	가능	겠다			
나이	20대	1.53	7.86	35.59	21.83	7.64	12.45	12.45	0.66	X ² =76.79		
	30대	0.58	6.37	38.61	28.19	6.76	6.76	11.97	0.77	P=.000		
	40대	1.59	4.38	40.24	25.50	8.37	4.78	14.74	0.40	N=1500		
	50대	1.81	7.23	35.54	16.27	6.02	12.05	16.27	4.82			
	60세이상	1.87	5.61	34.58	15.89	6.54	13.08	15.89	6.54			
거주지역	서울경기	0.46	6.08	37.69	25.53	7.60	8.51	12.31	1.82	X ² =46.31		
	경상	1.60	6.64	38.67	23.11	6.64	8.24	14.65	0.46	P=.001		
	전라	3.08	8.21	34.36	22.56	8.72	14.36	8.72	0.00	N=1500		
	충청강원	1.43	6.19	36.19	19.52	5.71	8.57	18.10	4.29			
학력	중졸이하	2.47	6.04	31.32	20.05	7.97	9.89	17.58	4.67	X ² =60.17		
	고졸	1.05	5.71	38.74	24.62	6.61	8.86	14.11	0.30	P=.000		
	대제이상	0.64	8.09	40.00	24.89	7.45	9.15	8.94	0.85	N=1500		
가구소득	79만원이하	0.68	7.19	34.59	19.52	7.19	12.67	13.70	4.45	X ² =51.19		
	80-119만원	1.65	6.58	39.51	20.78	6.58	8.64	15.02	1.23	P=.000		
	120-199만원	0.86	7.07	35.97	29.34	8.14	6.64	11.56	0.43	N=1497		
	200-299만원	1.71	4.57	40.57	24.00	5.71	9.71	13.14	0.57			
	300만원이상	2.60	5.19	35.06	22.08	9.09	12.99	11.69	1.30			
전체		1.3	6.5	37.3	23.6	7.2	9.2	13.3	1.5	N=1500		

<그림 3-10-1> 이상적인 통일방법



아주 적었다.

다음 <표 3-10-1>는 남북통일의 이상적인 방법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배경변수별로 살펴본 것이다. 합의통일에 대한 지지도에 있어서 60세 이상의 연령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약간 낮으며, 학력 별로 미약한 정도이나마 학력이 높을수록 합의통일을 더 많이 지지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나. 남북통일의 현실적인 방법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남북통일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귀하는 남북통일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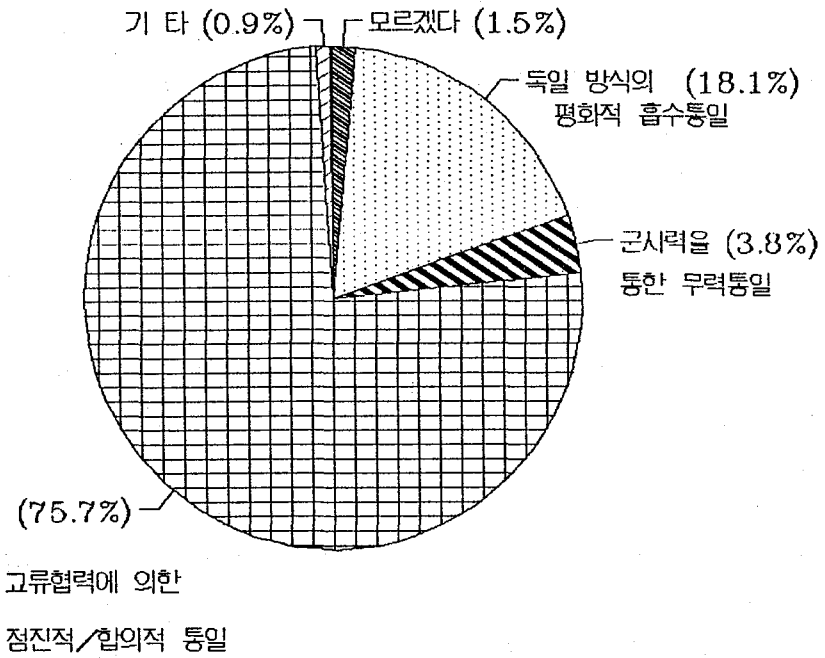
이에 대해 역시 압도적 다수의 응답자가 현실적으로도 「교류협력에 의한 점진적·합의적 통일」(75.7%)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가장 많다고 보았다. 「독일 방식의 평화적 흡수통일」(18.1%), 「군사력을 통한 무력통일」(3.8%)의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보았다(<그림 3-10-2> 참조).

다음 <표 3-10-2>는 남북통일의 현실적인 방법에 대한 국민여론을 배경변수별로 살펴본 것이다. 여기에서도 앞의 「가」항의 이상적인 통일의 방법에서와 마찬가지로 미약한 정도이나마 학력이 높을수록, 60세미만의 연령일수록 합의통일을 지지하는 정도가 높다.

<표 3-10-1> 이상적인 통일방법

변수		항목	흡수 통일	무력 통일	합의 통일	기타	모르 겠다	유의도
나이	20대		15.94	1.97	81.44	0.66	0.00	X ² =48.98 P=.000 N=1500
	30대		13.71	1.74	84.56	0.00	0.00	
	40대		14.34	0.40	85.26	0.00	0.00	
	50대		13.86	1.20	84.34	0.00	0.60	
	60세이상		24.30	0.93	71.96	0.00	2.80	
주거지역	서울경기		15.50	1.52	82.52	0.30	0.15	X ² =31.15 P=.002 N=1500
	경상		11.90	1.14	86.73	0.23	0.00	
	전라		23.08	0.51	76.41	0.00	0.00	
	충청강원		14.29	2.86	81.43	0.00	1.43	
학력	중졸이하		20.60	1.37	77.20	0.00	0.82	X ² =23.87 P=.002 N=1500
	고졸		14.11	1.65	84.08	0.00	0.15	
	대제이상		12.77	1.28	85.32	0.64	0.00	
가구소득	79만원이하		18.84	1.03	78.77	0.34	1.03	X ² =24.66 P=.076 N=1497
	80-119만원		15.84	1.23	82.51	0.41	0.00	
	120-199만원		12.21	1.07	86.51	0.00	0.21	
	200-299만원		14.86	2.86	82.29	0.00	0.00	
	300만원이상		16.88	3.90	79.22	0.00	0.00	
전체			15.3	1.5	82.8	0.2	0.3	N=1500

<그림 3-10-2> 현실적인 통일방법



<표 3-10-2> 현실적인 통일방법

변수		항목	흡수 통일	무력 통일	합의 통일	기타	모르 겠다	유의도
나이	20대		19.87	3.71	73.14	1.75	1.53	$X^2=23.12$ P=.111 N=1500
	30대		16.99	4.05	77.03	0.77	1.16	
	40대		13.15	4.78	79.68	0.80	1.59	
	50대		19.88	1.20	77.71	0.00	1.20	
	60세이상		24.30	4.67	67.29	0.00	3.74	
거주지역	서울경기		19.45	4.41	72.95	1.22	1.98	$X^2=53.24$ P=.000 N=1500
	경상		11.67	1.37	85.58	0.92	0.46	
	전라		26.67	5.13	67.69	0.51	0.00	
	충청강원		19.05	5.71	70.95	0.48	3.81	
학력	중졸이하		17.58	5.49	73.90	0.00	3.02	$X^2=21.12$ P=.007 N=1500
	고졸		18.32	3.90	75.98	0.75	1.05	
	대제이상		18.09	2.34	76.60	1.91	1.06	
가구소득	79만원이하		17.47	6.16	72.95	0.34	3.08	$X^2=36.96$ P=.002 N=1497
	80-119만원		18.93	3.91	75.31	0.62	1.23	
	120-199만원		15.85	2.36	79.66	0.64	1.50	
	200-299만원		21.71	4.00	72.00	1.71	0.57	
	300만원이상		19.48	2.60	72.73	5.19	0.00	
전체			18.1	3.8	75.7	0.9	1.5	N=1500

11. 통일비용 부담에 대한 인식

독일통일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남북한의 통일에는 상당한 액수의 통일비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민들이 얼마나 흔쾌히 통일비용을 부담하려고 하는지는 통일정책 결정에 대단히 중요한 참고사항이다.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귀하는 ‘통일비용의 부담이 있더라도 통일을 빨리 이루는 것이 좋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했다. 다음 <그림 3-11>은 그것에 대한 응답의 결과를 표시한 것이다.

이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대체로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41.9%, 「적극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22.5%에 이르러, 모두 64.4%의 응답자가 찬성의사를 밝혔다. 유보적인 태도를 가진 응답자는 15.2%, 반대하는 응답자는 20%에 지나지 않는다.

다음 <표 3-11>는 통일비용 부담에 대한 태도를 배경변수별로 살펴본 것이다.

나이에서 청년층의 찬성율이 약간 높게 나타난다.

거주지역에서는 전라도 지역의 찬성율이 가장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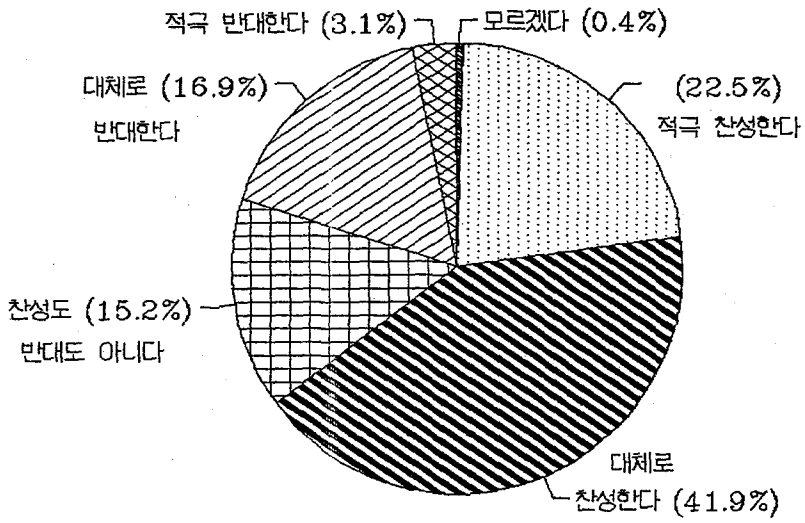
학력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은 층이 약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소득수준이 높은 층이 약간 소극적이다.

12. 통일비용 충당방법에 대한 평가

통일비용 충당 방법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귀하는 통일에 소요될 비용은 어떤 방법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

〈그림 3-11〉 통일비용부담 여부



〈표 3-11〉 통일비용부담 여부

변수		항목	적극	대체	중간	대체	적극	모르	유의도
			찬성	찬성	이다	반대	반대	겠다	
나이	20대		23.14	38.21	16.59	18.78	3.06	0.22	X ² =34.54 P=.023 N=1500
	30대		19.11	44.98	16.02	16.99	2.70	0.19	
	40대		20.32	42.23	15.94	16.33	4.78	0.40	
	50대		30.12	37.95	12.05	17.47	1.81	0.60	
	60세이상		29.91	47.66	8.41	9.35	2.80	1.87	
거주지역	서울경기		20.82	43.77	12.46	19.60	3.34	0.00	X ² =147.88 P=.000 N=1500
	경상		11.67	47.37	21.51	16.02	3.43	0.00	
	전라		39.49	38.97	12.31	9.23	0.00	0.00	
	충청강원		34.76	27.14	13.33	17.62	4.29	2.86	
학력	중졸이하		23.90	45.60	14.84	11.81	2.47	1.37	X ² =25.66 P=.004 N=1500
	고졸		21.17	41.74	15.47	19.07	2.55	0.00	
	대재이상		23.40	39.15	15.11	17.87	4.26	0.21	
가구소득	79만원이하		26.71	38.36	16.78	13.70	2.74	1.71	X ² =58.23 P=.000 N=1497
	80-119만원		23.87	45.68	11.32	16.67	2.26	0.21	
	120-199만원		18.63	45.18	15.63	17.13	3.43	0.00	
	200-299만원		20.00	32.57	24.57	18.29	4.57	0.00	
	300만원이상		25.97	33.77	9.09	27.27	3.90	0.00	
전체			22.5	41.9	15.2	16.9	3.1	0.4	N=1500

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했다.

응답자들이 보는 통일비용 충당방법은 「정부예산항목의 재조정」(35.3%), 「자발적 성금 모금」(27.2%), 「기금조성」(18.9%), 「세금으로 징수(통일세 신설 등)」(15.1%) 순서이다(<그림 3-12> 참조).

다음 <표 3-12>는 통일비용 충당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배경변수별로 살펴본 것이다.

여기에서도 통일비용 충당방안에 대한 의견의 차이를 크게 발견할 수 없다. 모든 집단들의 대답 순서는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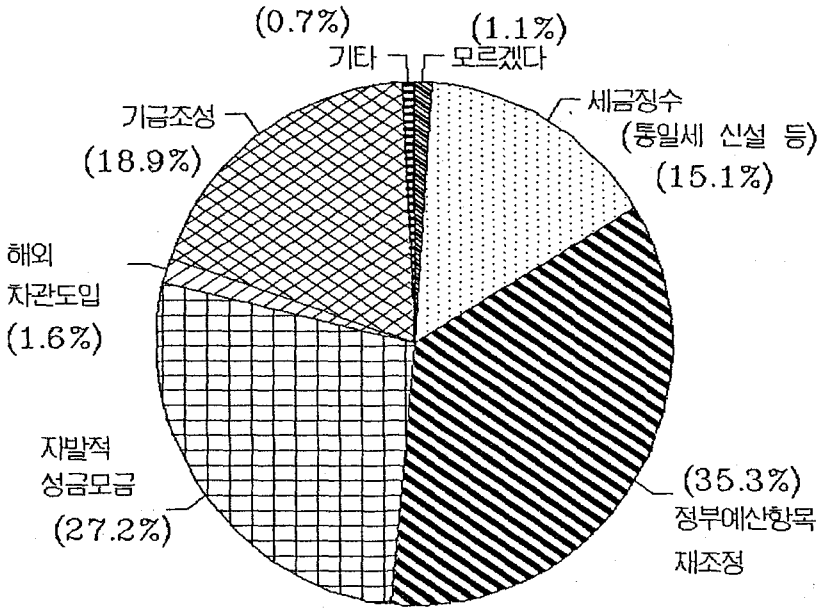
13. 통일이 가져다 줄 이점에 대한 평가

“귀하는 통일이 가져다 주는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국민들은 정서적 요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응답자의 47.4%가 정서적 요소인 「이산가족의 고통해소 및 단일민족의 재결합」을 들었고, 그 다음으로 경제적 요소인 「경제발전으로 선진공업국으로 도약」(22.2), 정치적 요소인 「민족 자주성의 확립」(14.9%)과 「전쟁발생 방지」(9.9%)를 지적했다(<그림 3-13> 참조).

다음 <표 3-13>는 통일이 가져다 줄 좋은 점에 대한 평가를 배경변수별로 살펴본 것이다.

나이에서는 청년층이, 거주지역에서는 서울·경기 지역이, 학력에서는 고학력층이, 가구소득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은 층이, 「이산가족의 고통해소 및 단일민족의 재결합」에 대해서는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보이는 가운데, 「민족 자주성의 확립」과 「경제발전으로 선진산업국 도약」에 대해서는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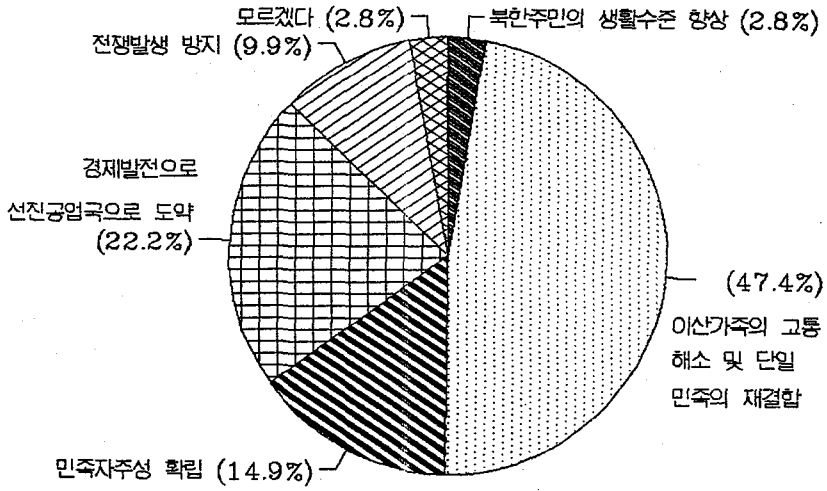
<그림 3-12> 통일비용 충당방법



〈표 3-12〉 통일비용 증당방법

변수		항목	세	예	성	차	기	기	모	유의도
			금	산	금	관	금	타	르	
			징	조	모	도	조	조	졌	
		수	수	정	금	입	성	성	다	
나 이	20대	14.41	34.50	31.22	0.87	17.03	1.53	0.44	X ² =57.72 P=.000 N=1500	
	30대	13.13	37.45	24.52	2.12	21.24	0.58	0.97		
	40대	15.14	33.86	25.50	1.59	23.51	0.40	0.00		
	50대	22.29	33.73	28.31	1.81	12.05	0.00	1.81		
	60세이상	16.82	34.58	25.23	1.87	15.89	0.00	5.61		
주 거 지 역	서울경기	15.20	34.95	27.05	1.67	20.06	0.76	0.30	X ² =59.48 P=.000 N=1500	
	경 상	13.27	35.70	23.80	1.83	23.57	1.14	0.69		
	전 라	16.41	38.97	32.31	0.51	10.77	0.51	0.51		
	충청강원	17.62	32.38	30.00	1.90	13.33	0.00	4.76		
학 력	중졸이하	18.96	32.97	29.12	0.82	15.11	0.27	2.75	X ² =40.70 P=.000 N=1500	
	고 졸	13.51	36.94	28.83	2.25	17.72	0.45	0.30		
	대재이상	14.47	34.89	23.40	1.28	23.62	1.49	0.85		
가 구 소 득	79만원이하	20.55	32.19	25.68	0.68	15.75	1.37	3.77	X ² =62.45 P=.000 N=1497	
	80-119만원	17.08	37.04	25.93	1.85	17.49	0.21	0.41		
	120-199만원	12.21	35.33	28.69	2.36	20.34	0.64	0.43		
	200-299만원	8.00	34.29	30.29	0.00	25.14	1.71	0.57		
	300만원이상	15.58	37.66	25.97	2.60	18.18	0.00	0.00		
전 체		15.1	35.3	27.2	1.6	18.9	0.7	1.1	N=1500	

<그림 3-13> 통일이 가져다 줄 효과



〈표 3-13〉 통일이 가져다 줄 효과

변수		항목	복생활 향상	민족 결합	자주 확립	경제 선진	전쟁 방지	모르 겠다	유의도
나 이	20대	1.75	43.89	22.27	20.74	9.17	2.18	X ² =59.78 P=.000 N=1500	
	30대	3.67	47.49	13.90	21.24	11.00	2.70		
	40대	4.38	43.03	10.76	29.88	9.56	2.39		
	50대	1.20	56.02	9.64	21.69	8.43	3.01		
	60세이상	1.87	58.88	6.54	15.89	10.28	6.54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3.19	44.38	14.44	24.47	10.79	2.74	X ² =30.17 P=.000 N=1500	
	경상	1.14	46.91	14.42	23.34	11.21	2.97		
	전라	4.62	52.82	17.44	18.46	6.15	0.51		
	충청강원	3.33	52.86	15.24	16.19	7.62	4.76		
학 력	중졸이하	3.57	53.30	7.69	19.51	10.71	5.22	X ² =76.60 P=.000 N=1500	
	고졸	3.60	45.95	12.01	25.23	11.11	2.10		
	대재이상	1.06	44.89	24.68	20.00	7.45	1.91		
가 구 소 득	79만원이하	2.05	57.53	10.27	16.78	8.90	4.45	X ² =56.40 P=.000 N=1497	
	80-119만원	4.53	47.53	12.96	22.22	10.29	2.47		
	120-199만원	1.71	48.61	16.27	21.63	9.42	2.36		
	200-299만원	2.86	32.00	21.71	29.14	12.57	1.71		
	300만원이상	1.30	35.06	22.08	29.87	7.79	3.90		
전 체		2.8	47.4	14.9	22.2	9.9	2.8	N=1500	

적으로 약간 높은 선호를 보이고 있다.

14. 통일 이후의 상황에 대한 전망

남북통일 이후 예상되는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전망을 알아보기 위해서 “귀하는 통일후 다음 각 분야가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했다. 응답자들은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성장’은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큰 반면, ‘빈부격차’, ‘실업문제’, ‘지역격차’는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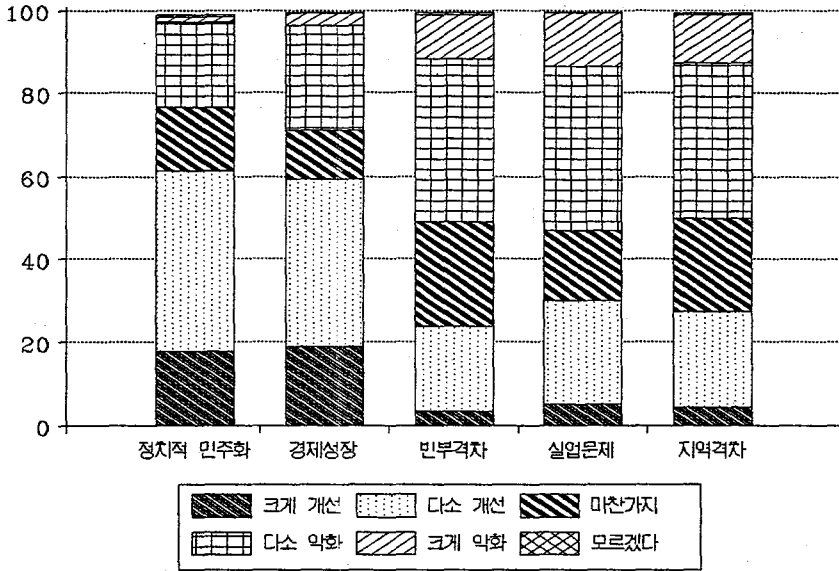
가. ‘정치적 민주화’의 변화 방향

이 질문에 대하여 「다소 개선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43.7%, 「크게 개선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17.8%로서 응답자의 61.5%가 통일 이후 ‘정치적 민주화’가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22.4%이고, 마찬가지로 일 것이라는 전망이 15.3%이다(<그림 3-14> 참조).

다음 <표 3-14-1>은 통일후 정치적 민주화의 전망에 대한 국민여론을 배경변수별로 살펴본 것이다.

여기에서도 나이, 거주지역, 학력, 가구소득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주목할만한 정도는 아니다. 집단에 관계없이 대체로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림 3-14〉 통일후의 사회생활 변화전망



<표 3-14-1> 통일후 정치적 민주화 전망

변수		항목	크	다	마	다	크	모	유의도
			개	소	찬	소	개	르	
			선	개	가	악	악	겠	
			다	선	지	화	화	다	
나이	20대		17.69	43.23	16.59	20.52	1.75	0.22	X ² =63.90 P=.000 N=1500
	30대		18.92	42.08	13.51	23.94	1.35	0.19	
	40대		18.33	47.41	12.35	19.12	2.39	0.40	
	50대		16.27	42.77	18.67	19.88	0.60	1.81	
	60세이상		14.02	45.79	19.63	13.08	0.93	6.54	
거주지역	서울경기		14.29	45.14	13.37	25.08	1.37	0.76	X ² =96.27 P=.000 N=1500
	경상		16.48	45.54	14.87	21.28	1.83	0.00	
	전라		22.05	42.05	27.18	8.72	0.00	0.00	
	충청강원		27.62	36.67	10.95	18.10	2.86	3.81	
학력	중졸이하		14.56	45.60	17.86	17.31	1.65	3.02	X ² =54.42 P=.000 N=1500
	고졸		14.71	44.14	15.17	23.87	1.80	0.30	
	대재이상		24.68	41.49	13.40	19.36	1.06	0.00	
가구소득	79만원이하		19.86	39.04	18.84	17.81	1.71	2.74	X ² =52.61 P=.000 N=1497
	80-119만원		16.26	47.53	15.02	18.31	2.26	0.62	
	120-199만원		16.27	41.97	16.70	23.77	1.07	0.21	
	200-299만원		20.00	40.00	8.57	29.71	1.14	0.57	
	300만원이상		23.38	54.55	10.39	11.69	0.00	0.00	
전체			17.8	43.7	15.3	20.9	1.5	0.9	N=1500

나. '경제성장'의 변화 방향

이 질문에 대하여 「다소 개선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40.4%, 「크게 개선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18.8%로서 응답자의 59.2%가 통일 이후 '경제성장'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28.6%이고, 마찬가지로일 것이라는 전망이 11.8%이다. 통일 이후 경제 성장에 대해 낙관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더 많다(<그림 3-14> 참조).

다음 <표 3-14-2>는 통일 이후 경제성장 전망에 대한 국민여론을 배경변수별로 살펴본 것이다.

여기에서도 나이, 거주지역, 학력, 가구소득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주목할만한 정도는 아니다. 집단에 관계없이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소득수준이 낮은 층에서 통일 이후 경제성장 전망에 대해 약간 덜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특징은 흥미있다. 이것은 소득수준이 낮은 층의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 '빈부격차'의 변화 방향

통일 이후 '빈부격차'가 개선될 것이라고 보는 응답자가 23.9%, 마찬가지로일 것이라고 보는 응답자가 25.4%인 것에 비해, 「다소 악화될 것이다」라고 보는 응답자가 39.1%, 「크게 악화될 것이다」라고 보는 응답자가 10.9%로서 전체응답자의 50.0%가 통일 이후 빈부격차가 악화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그림 3-14> 참조).

다음 <표 3-14-3>는 통일 이후 빈부격차 전망에 대한 국민여론을

<표 3-14-2> 통일후 경제성장 전망

변수		항목		크 게 개 선	다 소 개 선	마 찬 가 지	다 소 악 화	크 게 악 화	모 르 겠 다	유의도
		크 게 개 선	다 소 개 선							
나 이	20대	22.27	38.21	11.35	24.67	3.28	0.22	X ² =38.34 P=.000 N=1500		
	30대	17.57	38.80	14.09	25.10	4.25	0.19			
	40대	16.33	43.82	7.57	28.69	3.59	0.00			
	50대	18.67	43.37	12.65	24.10	0.60	0.60			
	60세이상	15.89	44.86	11.21	23.36	1.87	2.80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15.20	40.12	14.74	26.90	2.74	0.30	X ² =50.75 P=.000 N=1500		
	경 상	18.76	40.73	10.53	25.86	4.12	0.00			
	전 라	23.08	45.64	11.28	18.46	1.54	0.00			
	충청강원	26.19	35.71	5.71	25.71	4.76	1.90			
학 력	중졸이하	15.11	45.05	15.11	21.15	2.20	1.37	X ² =40.78 P=.000 N=1500		
	고 졸	17.12	39.34	12.76	27.48	3.30	0.00			
	대제이상	24.04	38.30	7.87	25.53	4.04	0.21			
가 구 소 득	79만원이하	21.92	42.12	11.30	19.86	3.42	1.37	X ² =45.59 P=.001 N=1497		
	80-119만원	17.90	43.21	12.76	22.84	2.88	0.41			
	120-199만원	15.85	40.26	10.92	30.41	2.57	0.00			
	200-299만원	20.57	32.57	10.86	28.57	7.43	0.00			
	300만원이상	27.27	33.77	14.29	24.68	0.00	0.00			
전 체		18.8	40.4	11.8	25.3	3.3	0.4	N=1500		

<표 3-14-3> 통일후 빈부격차 전망

변수		항목	크	다	마	다	크	모	유의도
			개	소	찬	소	개	르	
			선	개	가	악	악	겠	
			선	선	치	화	화	다	
나 이	20대		3.28	17.25	27.29	40.39	11.57	0.22	X ² =40.45 P=.004 N=1500
	30대		2.70	18.34	24.32	40.15	13.71	0.77	
	40대		4.38	21.91	22.71	42.23	8.37	0.40	
	50대		3.61	25.30	27.71	34.34	7.83	1.20	
	60세이상		3.74	35.51	25.23	28.04	5.61	1.87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1.98	22.19	23.71	39.97	11.40	0.76	X ² =59.10 P=.000 N=1500
	경 상		2.75	19.45	26.77	42.11	8.92	0.00	
	전 라		4.62	20.51	31.28	37.95	5.64	0.00	
	충청강원		7.62	18.10	22.38	30.95	18.57	2.38	
학 력	중졸이하		3.30	26.10	28.02	34.34	6.32	1.92	X ² =33.52 P=.000 N=1500
	고 졸		3.60	19.67	24.62	39.49	12.46	0.15	
	대제이상		2.98	17.66	24.47	42.13	12.34	0.43	
가 구 소 득	79만원이하		5.14	23.29	28.08	33.56	8.56	1.37	X ² =31.99 P=.043 N=1497
	80-119만원		3.09	22.43	25.31	37.04	11.32	0.82	
	120-199만원		2.14	17.56	25.48	42.61	11.99	0.21	
	200-299만원		5.14	16.00	23.43	42.29	13.14	0.00	
	300만원이상		1.30	27.27	19.48	44.16	6.49	1.30	
전 체			3.3	20.6	25.4	39.1	10.9	0.7	N=1500

배경변수별로 살펴본 것이다.

여기에서도 소득수준이 낮은 층에서 통일 이후 빈부격차 전망에 대해 약간 덜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특징은 흥미있다. 이것 역시 소득수준이 낮은 층의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라. '실업문제'의 변화 방향

통일 이후 '실업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보는 응답자가 30.3%인 반면, 「마찬가지일 것이다」라고 보는 응답자가 16.9%이고, 「다소 악화될 것이다」가 39.5%, 「크게 악화될 것이다」가 13.1%로서 응답자의 52.6%가 통일 이후 '실업문제'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그림 3-14〉 참조).

다음 〈표 3-14-4〉는 통일 이후 실업문제 전망에 대한 국민여론을 배경변수별로 살펴본 것이다.

여기에서도 집단의 차이에 상관없이 비관적이다. 특이한 사항은 소득수준이 낮은 층에서 통일후 실업문제 전망에 대해 약간 덜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 역시 소득수준이 낮은 층의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 '지역격차'의 변화 방향

통일 이후 '지역격차'가 「다소 악화될 것이다」라고 보는 응답자가 37.5%, 「크게 악화될 것이다」라고 보는 응답자가 11.9%로서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전체에서 49.4%를 차지하는 반면, 「마찬가지일 것

〈표 3-14-4〉 통일후 실업문제 전망

변수		항목	크 게		다 소		모 르		유의도
			개 선	개 선	마 찬 가 지	다 소 악 화	크 게 악 화	겠 다	
나 이	20대	5.02	20.96	18.34	42.79	12.88	0.00	X ² =48.57 P=.000 N=1500	
	30대	4.25	24.32	16.02	39.00	16.41	0.00		
	40대	5.58	28.29	13.94	41.04	11.16	0.00		
	50대	6.63	30.12	19.88	33.13	8.43	1.81		
	60세이상	5.61	32.71	16.82	33.64	9.35	1.87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3.04	29.48	14.89	39.06	13.22	0.30	X ² =52.80 P=.000 N=1500	
	경 상	4.58	21.28	19.22	43.02	11.90	0.00		
	전 라	6.15	20.00	21.03	40.00	12.82	0.00		
	충청강원	11.43	24.76	14.29	32.86	15.24	1.43		
학 력	중졸이하	4.95	28.02	19.23	35.99	10.44	1.37	X ² =24.35 P=.007 N=1500	
	고 졸	5.56	24.92	15.77	40.54	13.21	0.00		
	대재이상	4.47	23.40	16.60	40.64	14.89	0.00		
가 구 소 득	79만원이하	9.25	24.66	18.15	34.93	11.30	1.71	X ² =58.42 P=.000 N=1497	
	80-119만원	3.91	24.49	18.93	40.12	12.55	0.00		
	120-199만원	2.78	25.91	14.99	42.40	13.92	0.00		
	200-299만원	4.57	25.71	17.71	34.29	17.71	0.00		
	300만원이상	10.39	27.27	9.09	46.75	6.49	0.00		
전 체		5.1	25.2	16.9	39.5	13.1	0.3	N=1500	

이다」가 22.5%, 「개선될 것이다」가 27.6%를 차지하고 있다. 통일 이후 「지역격차」가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다(〈그림 3-14〉 참조).

다음 〈표 3-14-5〉는 통일 이후 실업문제 전망에 대한 국민여론을 배경변수별로 살펴본 것이다.

여기에서 보이는 특징은 청년층, 전라도 지역, 대재이상, 고소득 계층의 집단들이 상대적으로 덜 비관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의 차이는 크지 않다.

〈표 3-14-5〉 통일후 지역격차 전망

변수		항목	크 게 개 선	다 소 개 선	마 찬 가 지	다 소 악 화	크 게 악 화	모 르 겠 다	유의도
나 이	20대	3.93	21.40	24.24	37.34	13.10	0.00	X ² =31.12 P=.054 N=1500	
	30대	4.44	21.81	20.66	39.38	13.13	0.58		
	40대	3.98	27.09	18.33	40.64	9.96	0.00		
	50대	3.01	24.70	27.11	34.94	9.04	1.20		
	60세이상	6.54	28.97	27.10	26.17	9.35	1.87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2.28	27.51	19.76	38.15	11.70	0.61	X ² =58.08 P=.000 N=1500	
	경상	3.43	18.31	24.71	41.88	11.67	0.00		
	전라	8.72	25.13	27.18	31.28	7.69	0.00		
	충청강원	7.62	19.52	22.38	32.38	16.67	1.43		
학 력	중졸이하	3.85	23.63	27.75	34.89	8.24	1.65	X ² =35.01 P=.000 N=1500	
	고졸	3.75	20.87	21.77	40.69	12.76	0.15		
	대제이상	5.11	26.81	19.57	35.11	13.40	0.00		
가 구 소 득	79만원이하	7.19	20.21	25.68	34.25	10.96	1.71	X ² =56.17 P=.000 N=1497	
	80-119만원	4.12	23.66	23.66	40.33	8.02	0.21		
	120-199만원	2.78	21.63	21.41	40.04	13.92	0.21		
	200-299만원	2.86	25.71	18.86	33.71	18.86	0.00		
	300만원이상	5.19	38.96	18.18	27.27	10.39	0.00		
전 체		4.2	23.4	22.5	37.5	11.9	0.5	N=1500	

제Ⅳ장 통일의 대외적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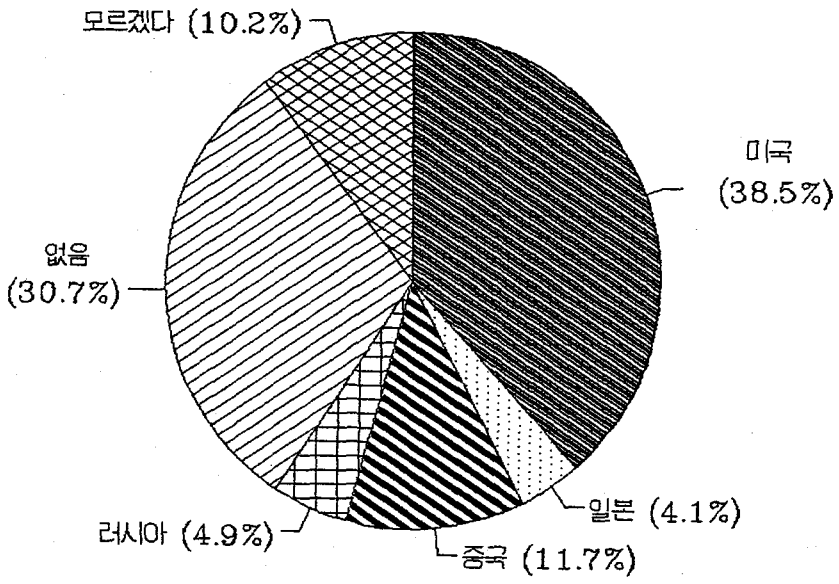
1. 주변4강에 대한 인식

국민들이 주변4강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하여 “귀하는 주변 강국중 한반도의 통일에 ‘가장 우호적인’ 국가는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한 응답은 <그림 4-1>에 정리되어 있다. 응답자 중에서 「미국」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전체의 38.5%로 제일 높고, 다음이 「없음」(30.7%), 「중국」(11.7%), 「러시아」(4.9%), 「일본」(4.1%)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의 비율이 높으나, 없다고 대답한 비율도 30%를 넘고 있는 것은 주변 4강이 한반도 통일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와 60세 이상의 반이상이 미국이 통일에 우호적인 국가라고 응답한 반면 20대는 주변강국 중에서 통일에 우호적인 국가는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제일 높았다. 학력별로는 중졸이하의 응답자들이 미국을 우호적인 국가로 꼽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소득별로는 가구당 소득이 79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이 미국을 우호적인 국가로 생각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배경변수별로 응답 비율을 정리한 것이 <표 4-1>이다.

<그림 4-1> 통일에 우호적인 주변국



<표 4-1> 통일에 우호적인 주변국

변수		항목		미 국	일 본	중 국	러 시 아	없 음	모 르 겠 다	유의도
나 이	20대	25.11	4.15	14.63	3.71	41.70	10.70	X ² =103.19 P=.000 N=1500		
	30대	38.80	4.63	10.42	5.02	31.47	9.65			
	40대	44.22	4.38	13.15	6.37	25.10	6.77			
	50대	54.22	3.61	7.23	4.82	17.47	12.65			
	60세이상	56.07	0.93	8.41	5.61	14.02	14.95			
주 거 지 역	서울경기	37.08	4.71	14.44	5.78	31.31	6.69	X ² =29.92 P=.012 N=1500		
	경 상	38.22	3.89	9.15	5.03	30.66	13.04			
	전 라	41.03	2.56	11.28	2.56	28.72	13.85			
	충청강원	40.95	3.81	8.57	3.81	30.95	11.90			
학 력	중졸이하	54.95	5.49	6.59	3.57	15.66	13.74	X ² =151.77 P=.000 N=1500		
	고 졸	38.59	4.20	15.62	5.86	26.88	8.86			
	대재이상	25.53	2.77	10.00	4.47	47.87	9.36			
가 구 소 득	79만원이하	44.52	4.11	10.27	3.77	23.63	13.70	X ² =43.02 P=.002 N=1497		
	80-119만원	40.95	5.76	10.91	4.12	26.54	11.73			
	120-199만원	33.83	3.00	12.85	6.00	35.97	8.35			
	200-299만원	34.29	2.86	11.43	5.14	38.86	7.43			
	300만원이상	36.36	2.60	15.58	5.19	35.06	5.19			
전 체		38.5	4.1	11.7	4.9	30.7	10.2	N=1500		

2. 북한-미국 관계개선에 대한 인식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미국간 고위급 접촉과 관련,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귀하는 미국이 북한과 가까워지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그림 4-2〉 참조). 「대체로 찬성한다」가 41.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적극 찬성한다」의 8.5%를 합하면, 찬성의 비율이 60.4%이고 반대하는 비율이 28.3%로 찬성하는 비율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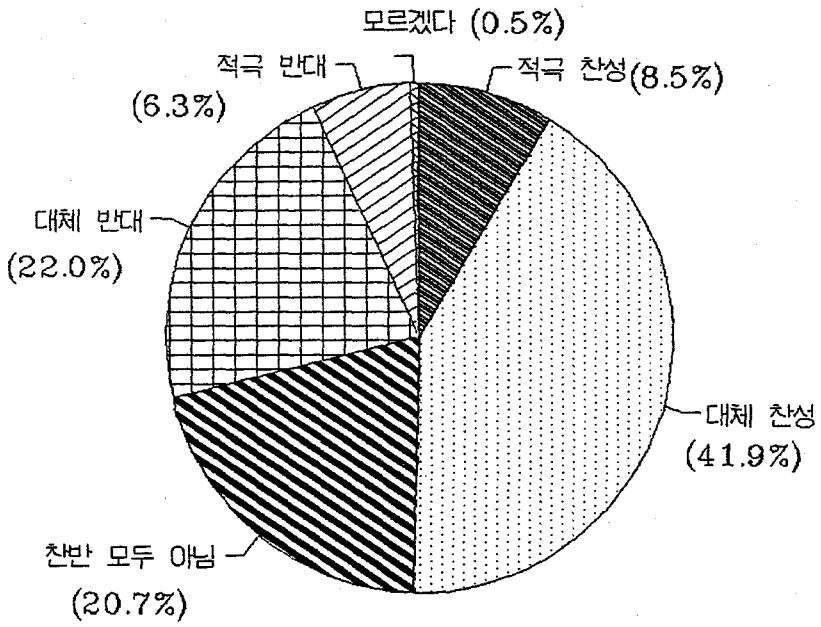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30대가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지역별로 보면 경상도 지역의 주민들이 북한-미국의 관계개선을 찬성하는 비율이 높다. 학력별로 보면 대제이상의 응답자가 찬성하는 비율이 높으며, 가구소득별로는 300만원이상의 고소득자가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배경변수별로 응답 비율을 정리한 것이 〈표 4-2〉이다.

3. 북한-일본 관계개선에 대한 인식

북한과 일본의 관계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귀하는 일본이 북한과 가까워지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은 〈그림 4-3〉에 정리되어있는데 「대체로 반대한다」라는 응답의 36.6%와 「적극 반대한다」의 12.1%를 합하면, 반대한다는 견해가 전체의 48.7%로 찬성한다는 견해 28.8%보다 많다. 앞의 질문에서 북한-미국 관계개선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비율이 많았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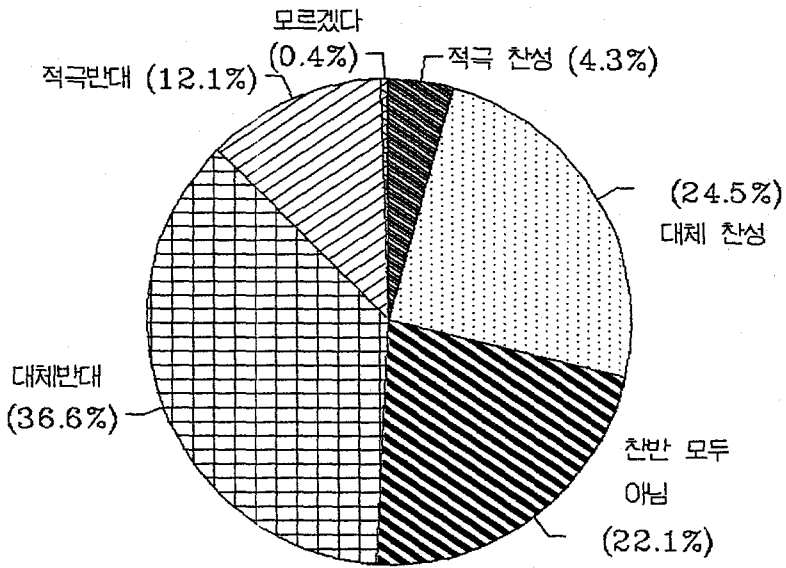
<그림 4-2> 북한-미국 관계개선에 대한 인식



<표 4-2> 북한-미국 관계개선에 대한 인식

변수		항목	적극	대체	중간	대체	적극	모르	유의도
		찬성	찬성	이다	반대	반대	겠다		
나이	20대	8.95	44.98	19.87	20.74	5.02	0.44	X ² =49.13 P=.000 N=1500	
	30대	8.88	45.56	19.50	19.50	6.18	0.39		
	40대	8.37	40.64	20.32	24.70	5.98	0.00		
	50대	9.04	29.52	24.70	28.31	8.43	0.00		
	60세이상	4.67	33.64	24.30	23.36	10.28	3.74		
거주지역	서울경기	6.38	44.68	18.39	24.92	5.47	0.15	X ² =92.56 P=.000 N=1500	
	경상	9.15	45.08	21.05	19.22	5.26	0.23		
	전라	6.15	37.44	30.26	22.56	3.59	0.00		
	충청강원	16.19	30.95	18.10	18.10	13.81	2.86		
학력	중졸이하	6.32	31.87	26.37	25.82	7.97	1.65	X ² =41.92 P=.000 N=1500	
	고졸	9.16	43.84	19.97	21.62	5.41	0.00		
	대재이상	9.36	47.02	17.23	19.57	6.38	0.43		
가구소득	79만원이하	9.25	33.22	22.26	21.58	10.96	2.74	X ² =69.42 P=.000 N=1497	
	80-119만원	10.29	41.77	20.78	21.81	5.35	0.00		
	120-199만원	6.21	46.25	19.49	23.55	4.50	0.00		
	200-299만원	7.43	42.86	25.14	19.43	5.14	0.00		
	300만원이상	11.69	49.35	10.39	19.48	9.09	0.00		
전체		8.5	41.9	20.7	22.0	6.3	0.5	N=1500	

<그림 4-3> 북한-일본 관계개선에 대한 인식



것은 측구시험에서 응원할 국가를 물어본 질문이나 주변4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문제와 연관시켜 볼 때 여전히 일본에 대한 적대감이 국민사이에서 강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이상의 응답자들은 20대와 30대의 응답자에 비해서 북한-일본 관계개선에 대하여 반대하는 비율이 높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지역과 충청·강원 지역의 주민들의 경우 북한-일본의 관계개선에 대하여 반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학력별로는 저학력자가 반대하는 비율이 높다. 가구소득별로 보면 소득이 적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반대하는 비율이 높다.

북한-일본의 관계개선에 대한 배경변수별 응답율을 정리한 것이 <표 4-3>이다.

4. 중국의 남한 및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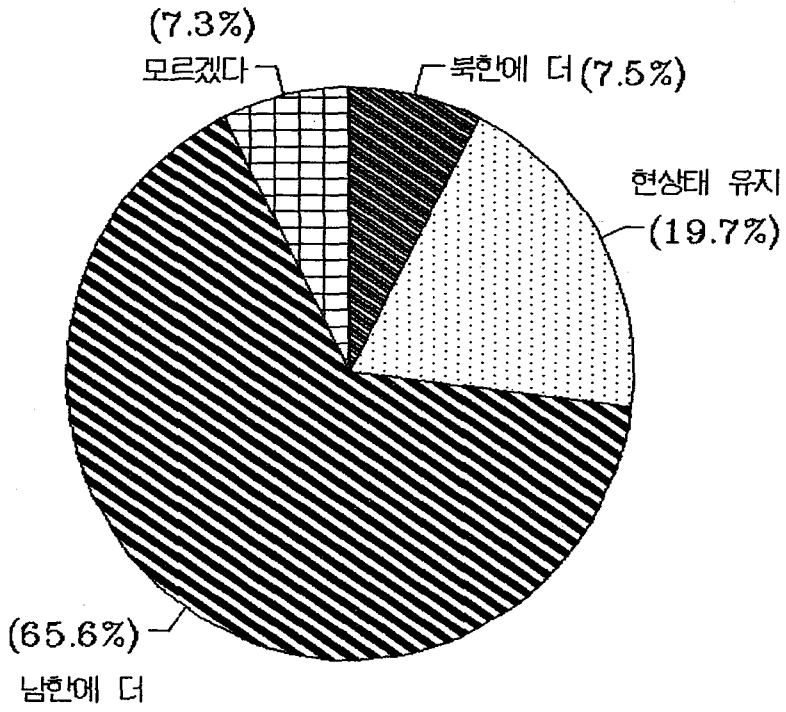
중국이 향후 남북한과 어떤 관계를 갖게 될 것으로 국민들은 생각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귀하는 중국이 앞으로 남한과 북한의 어느쪽에 더 가까워 지리라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을 정리한 것이 <그림 4-4>로서 전체 응답자 중에 65.6%가 「남한에 더 가까워질 것이다」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9.7%이나 「북한과 가까워질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7.5%에 불과해 국민 대다수가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이상에서 중국이 남한에 접근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지역별로는 충청·강원지역의 주민들이 남한

<표 4-3> 북한-일본 관계개선에 대한 인식

변수		항목	적극	대체	중간	대체	적극	모르	유의도
			찬성	찬성	이다	반대	반대	겠다	
나이	20대	5.02	29.91	22.05	29.91	12.88	0.22	X ² =51.75 P=.000 N=1500	
	30대	4.63	25.68	22.59	35.91	10.81	0.39		
	40대	3.19	21.51	20.72	41.83	12.75	0.00		
	50대	5.42	16.27	22.89	44.58	10.84	0.00		
	60세이상	0.93	14.95	22.43	43.93	14.95	2.80		
거주지역	서울경기	3.34	25.84	17.63	42.86	10.33	0.00	X ² =106.97 P=.000 N=1500	
	경상	4.81	28.60	25.17	29.06	12.36	0.00		
	전라	2.56	16.92	32.82	38.97	8.72	0.00		
	충청강원	8.10	18.57	20.00	30.48	20.00	2.86		
학력	중졸이하	3.30	15.93	23.90	43.96	12.09	0.82	X ² =33.14 P=.000 N=1500	
	고졸	4.95	25.38	20.87	37.24	11.26	0.30		
	대재이상	4.26	29.79	22.55	30.00	13.19	0.21		
가구소득	79만원이하	5.14	18.15	23.29	36.99	15.07	1.37	X ² =34.48 P=.023 N=1497	
	80-119만원	4.94	24.49	22.22	36.42	11.52	0.41		
	120-199만원	3.00	26.77	22.06	37.47	10.71	0.00		
	200-299만원	2.29	26.29	24.00	34.86	12.57	0.00		
	300만원이상	10.39	29.87	12.99	36.36	10.39	0.00		
전체		4.3	24.5	22.1	36.6	12.1	0.4	N=1500	

<그림 4-4> 중국과 남북한관계 예측



에 접근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학력별로는 중
졸이하의 저학력자가 남한에 접근할 것이라고 본 비율이 비교적 낮
다. 가구소득별로는 3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남한에 접근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배경변수별로 응답 비율을 정리한 것이 <표 4-4>이다.

<표 4-4> 중국과 남북한관계 예측

변수		항목	북한에			유의도
			접근	현상태 유지	남한에 접근	
나이	20대	5.90	21.62	66.81	5.68	X ² =47.16 P=.000 N=1500
	30대	5.98	20.46	67.37	6.18	
	40대	7.57	20.32	67.33	4.78	
	50대	11.45	12.05	62.05	14.46	
	60세이상	14.95	17.76	53.27	14.02	
거주지역	서울경기	6.23	15.81	72.19	5.78	X ² =53.15 P=.000 N=1500
	경상	5.72	25.86	63.16	5.26	
	전라	9.74	18.97	61.03	10.26	
	충청강원	12.86	19.52	54.29	13.33	
학력	중졸이하	12.09	13.19	57.69	17.03	X ² =103.00 P=.000 N=1500
	고졸	7.06	18.77	70.42	3.75	
	대재이상	4.47	25.96	64.89	4.68	
가구소득	79만원이하	10.27	16.44	59.59	13.70	X ² =52.44 P=.000 N=1497
	80-119만원	8.64	20.37	62.14	8.85	
	120-199만원	5.57	20.99	70.24	3.21	
	200-299만원	4.57	23.43	68.00	4.00	
	300만원이상	5.19	11.69	77.92	5.19	
전체		7.5	19.7	65.6	7.3	N=1500

제V장 통일의 대내적 조건에 대한 인식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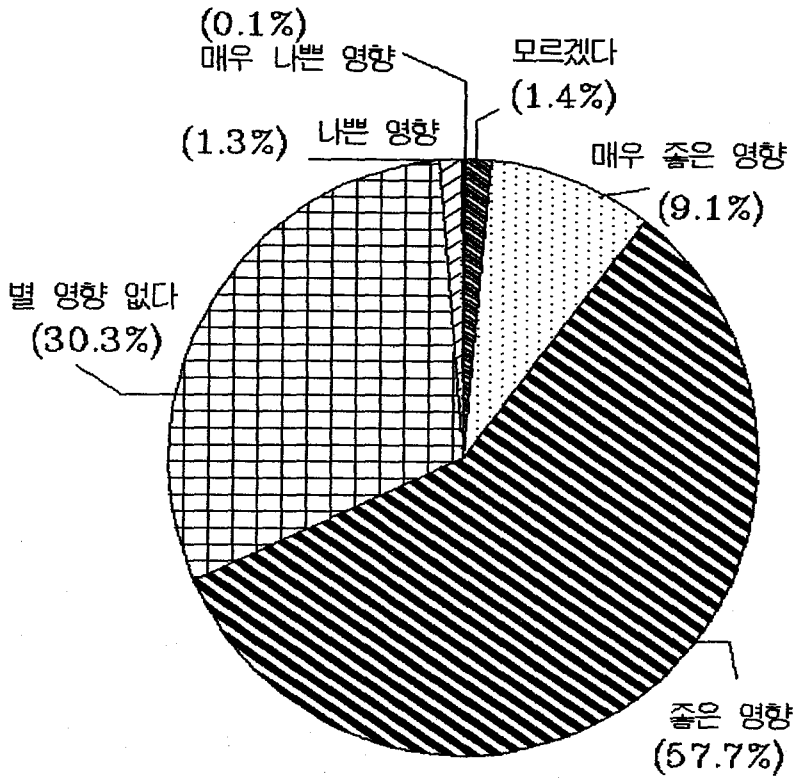
1. 새정부 개혁정책과 통일과의 연관성에 대한 평가

국민들이 최근의 개혁정책이 통일과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귀하는 현재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이 통일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그림 5-1〉 참조).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응답이 전체의 57.7%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별영향이 없을 것이다」(30.3%), 「매우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9.1%),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1.3%),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0.1%)의 순서로 응답이 나왔다. 개혁정책이 통일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한 국민이 전체의 66.8%로 과반수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개혁이 통일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전라도주민들이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학력별로는 대제이상의 고학력자가 개혁이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소득별로는 79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 개혁이 통일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배경변수별로 응답율을 정리한 것이 〈표 5-1〉이다.

<그림 5-1> 정부의 개혁정책이 통일에 주는 영향



<표 5-1> 정부의 개혁정책이 통일에 주는 영향

변수		항목	매우 중요	중요 영향	영향 없음	나쁜 영향	매우 나쁨	모르 겠다	유의도
나이	20대		7.21	56.55	34.06	1.09	0.22	0.87	X ² =41.18 P=.004 N=1500
	30대		10.62	58.88	28.96	1.16	0.00	0.39	
	40대		9.56	54.18	33.47	1.59	0.00	1.20	
	50대		7.23	61.45	25.90	1.81	0.00	3.61	
	60세이상		12.15	59.81	20.56	1.87	0.00	5.61	
거주지역	서울경기		7.90	58.66	31.61	1.06	0.15	0.61	X ² =89.92 P=.000 N=1500
	경상		10.53	55.84	32.04	1.60	0.00	0.00	
	전라		8.21	63.59	26.15	2.05	0.00	0.00	
	충청강원		10.95	53.33	26.67	0.95	0.00	8.10	
학력	중졸이하		7.69	57.14	29.40	1.37	0.00	4.40	X ² =37.92 P=.000 N=1500
	고졸		8.71	59.91	29.43	1.50	0.00	0.45	
	대재이상		10.85	55.11	32.34	1.06	0.21	0.43	
가구소득	79만원이하		10.96	58.22	25.34	1.37	0.00	4.11	X ² =43.27 P=.002 N=1497
	80-119만원		9.05	61.73	26.34	1.85	0.00	1.03	
	120-199만원		7.28	55.67	34.69	1.50	0.21	0.64	
	200-299만원		10.29	52.00	37.14	0.00	0.00	0.57	
	300만원이상		11.69	55.84	32.47	0.00	0.00	0.00	
전체			9.1	57.7	30.3	1.3	0.1	1.4	N=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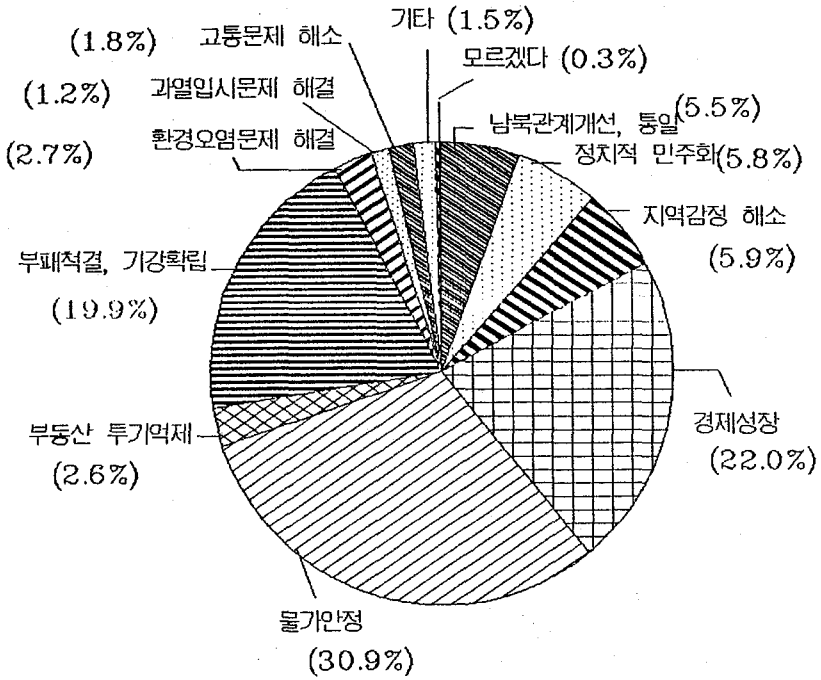
2. 통일이 국민들의 관심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평가

새정부 출범이후 국민들이 정부에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귀하는 현재 새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그림 5-2〉 참조). 응답자중 30.9%가 「물가안정」을 새정부의 우선 과제로 꼽았고 다음으로 「경제성장」(22.0%), 「부정부패 척결 및 사회기강 확립」(19.0%)을 선택한 응답자가 많았다. 이외에는 「지역감정 해소」(5.9%), 「정치적 민주화」(5.8%), 「남북한 관계개선 및 통일」(5.5%), 「환경오염문제 해결」(2.7%), 「부동산 투기 억제」(2.6%), 「교통문제 해소」(1.8%), 「과열입시문제 해결」(1.2%)의 순서로 응답이 나왔다. 이러한 응답결과를 볼 때 국민들이 신정부에 바라는 일차적 과제는 경제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다음의 사회기강 확립문제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남북통일 문제는 정치적 문제들과 함께 부차적인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통일문제를 중요시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충청·강원지역의 주민들이 남북통일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학력별로는 저학력자가 남북통일을 중요시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소득별로는 저소득자가 남북통일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높았다.

새정부의 역점 추진정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배경 변수 별로 정리한 것이 〈표 5-2〉이다.

<그림 5-2> 새정부의 역점 추진정책



〈표 5-2〉 새정부의 역할 추진정책

변수	항목	남북 통일	정치 민주	지역 감정	경제 성장	물가 안정	부기 역제	부패 척결	환경 오염	입시 문제	교통 문제	기타	모르 겠다	유의도
나이	20대	5.24	8.95	3.71	21.62	32.97	1.75	19.43	2.84	0.44	1.75	1.31	0.00	X ² =85.29
	30대	4.44	4.05	6.76	21.62	32.24	4.44	18.92	2.70	1.16	1.93	1.74	0.00	P=.000
	40대	4.38	5.18	4.38	24.70	29.48	2.39	19.92	3.19	3.19	2.39	0.80	0.00	N=1500
	50대	7.23	5.42	9.04	19.28	25.90	1.20	24.10	1.81	1.20	1.20	2.41	1.20	
	60세이상	11.21	2.80	9.35	23.36	27.10	0.00	19.63	2.80	0.00	0.93	0.93	1.87	
거주지역	서울경기	5.93	5.02	6.08	22.34	32.22	1.82	19.45	2.58	0.91	2.43	1.22	0.00	X ² =136.32
	경상	3.20	3.89	1.37	25.17	34.32	4.81	18.99	3.20	1.37	2.06	1.60	0.00	P=.000
	전라	6.67	10.77	16.41	19.49	22.56	1.03	15.90	2.56	2.05	0.51	2.05	0.00	N=1500
	충청강원	7.62	7.62	4.76	16.67	27.62	1.90	26.67	2.38	0.95	0.48	1.43	1.90	
학력	중졸이하	8.52	4.40	7.97	15.11	36.81	1.92	16.21	3.57	1.37	1.10	1.92	1.10	X ² =70.08
	고졸	4.05	4.95	6.31	25.38	30.93	3.15	18.62	2.40	1.20	2.25	0.75	0.00	P=.000
	대제이상	5.11	8.09	3.62	22.55	26.38	2.34	24.47	2.55	1.06	1.70	2.13	0.00	N=1500
가구소득	79만원이하	7.88	4.45	7.88	18.49	30.14	2.05	20.21	3.77	0.68	0.68	2.40	1.37	X ² =69.11
	80-119만원	6.17	5.56	6.79	21.19	33.54	3.09	17.49	1.85	1.65	1.85	0.82	0.00	P=.009
	120-199만원	4.28	6.64	4.71	25.05	29.98	2.36	20.56	1.50	1.07	2.57	1.28	0.00	N=1497
	200-299만원	3.43	7.43	3.43	24.00	28.57	2.86	21.71	5.14	0.57	0.57	2.29	0.00	
	300만원이상	3.90	3.90	3.90	16.88	29.87	2.60	24.68	6.49	2.60	3.90	1.30	0.00	
전체		5.5	5.8	5.9	22.0	30.9	2.6	19.9	2.7	1.2	1.8	1.5	0.3	N=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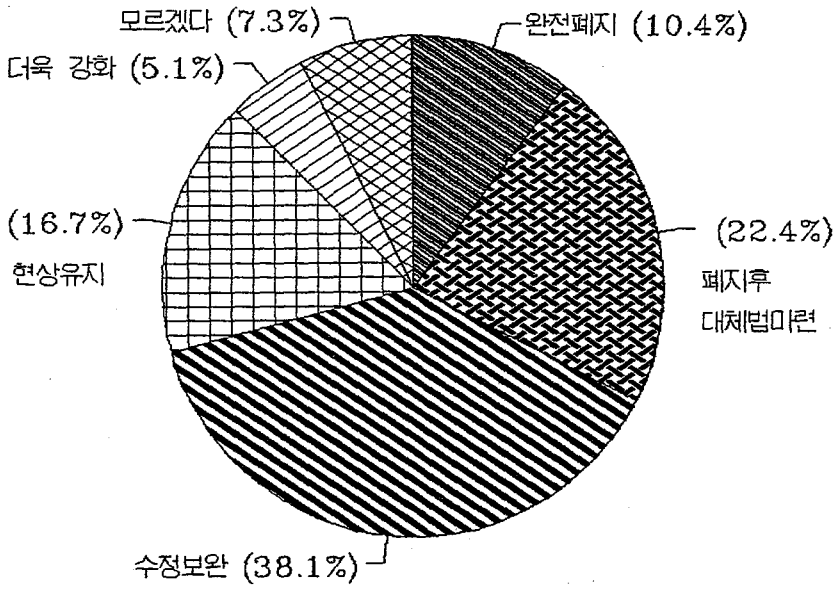
3. 국가보안법에 대한 평가

국민들이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귀하는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어떻게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여 보았다. 이에 대하여 응답자의 38.1%가 「수정 보완하는 것이 좋다」라는 응답을 선택하였으며, 다음이 「폐지하되 이를 대체할 새로운 법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22.4%), 「현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16.7%),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좋다」(10.4%), 「더욱 강화하는 것이 좋다」(5.1%)의 순서로 응답이 나왔다(그림 5-3 참조). 「현상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항목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좋다」는 항목을 합하면 21.8%만이 보안법을 지지하고 있고, 대다수의 응답자는 최소한 보안법은 수정·보완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는 상대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유지·강화하기 보다는 개정·보완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별로는 충청·강원도 주민들이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지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학력별로는 대제이상의 고학력자들이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것을 찬성하는 경향이 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질문을 배경변수 별로 정리한 것이 <표 5-3>이다.

<그림 5-3> 국가보안법 존폐여부



<표 5-3> 국가보안법 존폐여부

변수		항목		완 전	대 체	수 정	현 상	더 욱	모 르	유의도
		폐 지	법 안	보 완	유 지	강 화	겠 다			
나 이	20대	13.32	28.17	43.45	9.39	2.62	3.06	X ² =165.31 P=.000 N=1500		
	30대	10.62	24.13	40.35	14.86	4.44	5.60			
	40대	7.97	19.52	37.05	20.32	8.37	6.77			
	50대	6.63	10.24	28.92	30.12	7.83	16.27			
	60세이상	8.41	14.95	20.56	28.04	6.54	21.50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10.03	25.08	41.34	15.81	3.95	3.80	X ² =109.67 P=.000 N=1500		
	경 상	6.41	17.85	41.88	20.14	5.95	7.78			
	전 라	23.08	19.49	27.69	11.28	2.56	15.90			
	충청강원	8.10	26.19	29.52	17.62	9.05	9.52			
학 력	중졸이하	7.42	11.54	28.02	25.00	9.34	18.68	X ² =192.65 P=.000 N=1500		
	고 졸	8.26	24.17	41.74	15.77	4.95	5.11			
	대재이상	15.74	28.30	40.64	11.70	1.91	1.70			
가 구 소 득	79만원이하	8.56	18.49	29.11	21.92	7.19	14.73	X ² =73.22 P=.000 N=1497		
	80-119만원	11.11	20.16	39.30	16.26	5.97	7.20			
	120-199만원	9.42	23.13	42.18	16.49	4.07	4.71			
	200-299만원	10.86	26.86	43.43	12.57	2.29	4.00			
	300만원이상	16.88	36.36	27.27	11.69	3.90	3.90			
전 체		10.4	22.4	38.1	16.7	5.1	7.3	N=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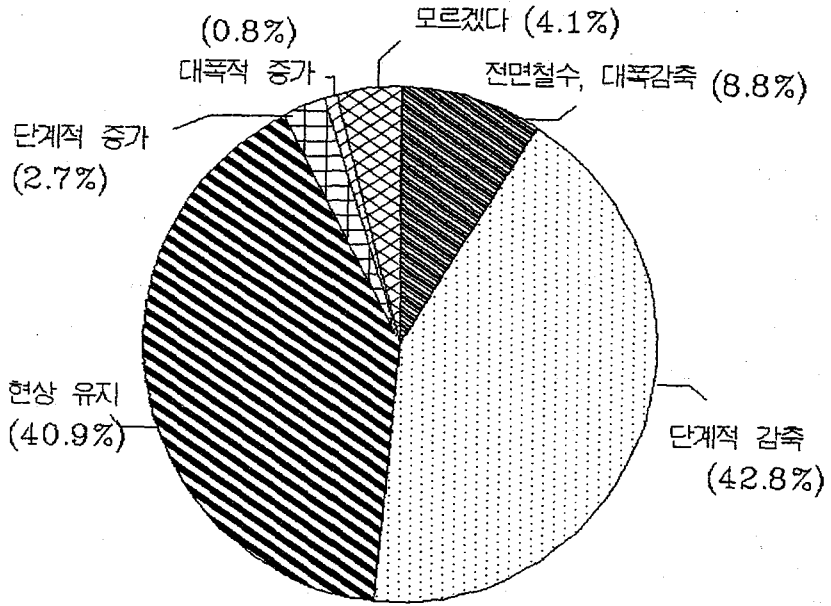
4.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인식

국민들이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기 위하여 “귀하는 주한미군의 주둔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하는 질문을 하였고 이를 정리한 것이 <그림 5-4>이다. 「단계적으로 철수하여야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42.8%로 제일 높으나 「현재의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응답 비율도 40.9%에 달하고 있다. 「전면적 철수하거나 대폭적으로 감축되어야 한다」는 8.8%이고, 「단계적으로 증가되어야 한다」가 2.7%이며, 「대폭적으로 증가되어야 한다」는 0.8%이다. 증가와 감축이라는 기준에 따라 재배열 하여 보면 감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1.6%로 증가라고 응답한 비율 3.5%에 비해 월등히 많으나 현상태의 유지라는 응답도 미군의 유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감축과 유지 내지는 증가의 비율이 엇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의 경우 감축을 하여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50대 이상은 감축을 지지하는 비율이 낮다. 지역별로 보면 충청·강원 지역 주민들만이 감축을 지지하는 비율이 낮으며, 학력별로는 중졸이하의 응답자들이 미군 감축을 지지하는 비율이 낮다. 가구소득별로는 200만원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응답자들이 미군 감축에 대하여 지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미군 주둔문제에 대하여 배경변수 별로 정리한 것이 <표 5-4>이다.

<그림 5-4>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인식



<표 5-4>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인식

변수		항목	전 면 철 수	단 계 철 수	현 상 유 지	단 계 증 가	대 폭 증 가	모 르 겠 다	유의도
나 이	20대		12.66	56.77	24.89	3.28	0.66	1.75	X ² =173.98 P=.000 N=1500
	30대		8.69	44.02	40.93	3.09	0.77	2.51	
	40대		5.18	39.44	49.00	1.99	0.40	3.98	
	50대		6.02	21.69	59.04	1.20	1.81	10.24	
	60세이상		5.61	17.76	61.68	1.87	0.93	12.15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6.53	45.44	42.25	2.89	1.06	1.82	X ² =73.60 P=.000 N=1500
	경 상		8.24	41.65	42.79	2.97	0.46	3.89	
	전 라		18.97	41.54	28.72	0.51	0.00	10.26	
	충청강원		7.62	38.10	43.81	3.33	1.43	5.71	
학 력	중졸이하		5.77	25.82	53.02	2.75	0.55	12.09	X ² =159.96 P=.000 N=1500
	고 졸		7.66	44.14	42.49	3.15	0.75	1.80	
	대제이상		12.77	54.04	29.15	1.91	1.06	1.06	
가 구 소 득	79만원이하		10.62	29.11	47.60	3.08	0.34	9.25	X ² =60.39 P=.000 N=1497
	80-119만원		9.05	41.77	41.77	3.09	0.82	3.50	
	120-199만원		6.85	48.39	39.61	2.36	0.64	2.14	
	200-299만원		9.71	49.14	33.71	1.71	1.71	4.00	
	300만원이상		9.09	51.95	35.06	2.60	1.30	0.00	
전 체			8.8	42.8	40.9	2.7	0.8	4.1	N=1500

5. 주한미군 주둔경비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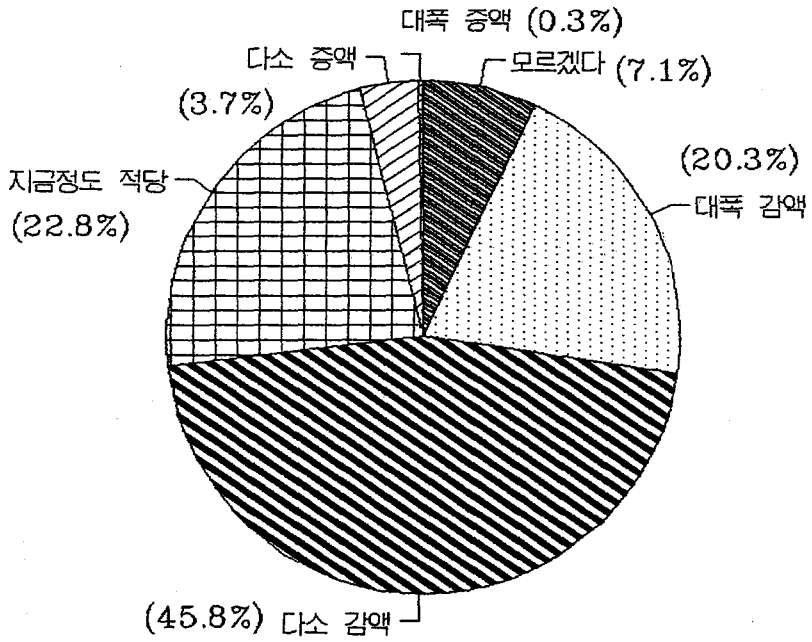
주한미군의 경비 부담에 대하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귀하는 현재 남한이 부담하고 있는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은 <그림 5-5>에 정리되어 있다. 응답자의 45.8%는 「다소 감액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고, 22.8%는 「지금 정도가 적당하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대폭 감소하는 것이 좋다」가 20.3%, 「다소 증액하는 것이 좋다」가 3.7%, 「대폭 증액하는 것이 좋다」가 0.3%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대상자 중 66.1%가 주한미군의 주둔경비를 감액하는 것을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증액을 지지하는 사람은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30대의 다수가 감액을 바라고 있으나 60세 이상에서 감액을 바라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지역별로 보면 전라도 지역 주민들이 감액을 바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학력별로는 대제이상의 고학력자가 감액을 바라는 비율이 높으며, 소득별로는 가구소득이 월3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가 감액을 바라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 질문에 대하여 배경변수별로 응답 비율을 정리한 것이 <표 5-5>이다.

<그림 5-5> 주한미군에 대한 남한의 경비부담



<표 5-5> 주한미군에 대한 남한의 경비부담

변수		항목						유의도
		대폭 감액	다소 감액	적당 하다	다소 증액	대폭 증액	모르 겠다	
나이	20대	29.69	50.22	14.19	2.62	0.44	2.84	X ² =120.09 P=.000 N=1500
	30대	18.73	47.68	23.94	4.05	0.19	5.41	
	40대	16.73	43.43	26.69	3.19	0.40	9.56	
	50대	10.84	41.57	29.52	4.82	0.60	12.65	
	60세이상	10.28	29.91	34.58	6.54	0.00	18.69	
거주지역	서울경기	18.84	47.72	24.16	4.86	0.30	4.10	X ² =58.16 P=.000 N=1500
	경상	16.93	49.66	23.34	2.97	0.46	6.64	
	전라	29.74	42.56	15.90	1.54	0.00	10.26	
	충청강원	22.86	34.76	23.81	3.81	0.48	14.29	
학력	중졸이하	9.89	39.84	30.22	3.57	0.00	16.48	X ² =141.45 P=.000 N=1500
	고졸	18.17	47.75	23.57	4.20	0.60	5.71	
	대재이상	31.28	47.66	15.96	3.19	0.21	1.70	
가구소득	79만원이하	21.58	33.56	24.66	2.74	0.34	17.12	X ² =89.50 P=.000 N=1497
	80-119만원	17.90	49.79	23.66	2.47	0.00	6.17	
	120-199만원	18.84	49.68	22.06	5.78	0.43	3.21	
	200-299만원	25.14	43.43	23.43	2.86	0.57	4.57	
	300만원이상	25.97	49.35	14.29	5.19	1.30	3.90	
전체		20.3	45.8	22.8	3.7	0.3	7.1	N=1500

6. 팀스피리트 훈련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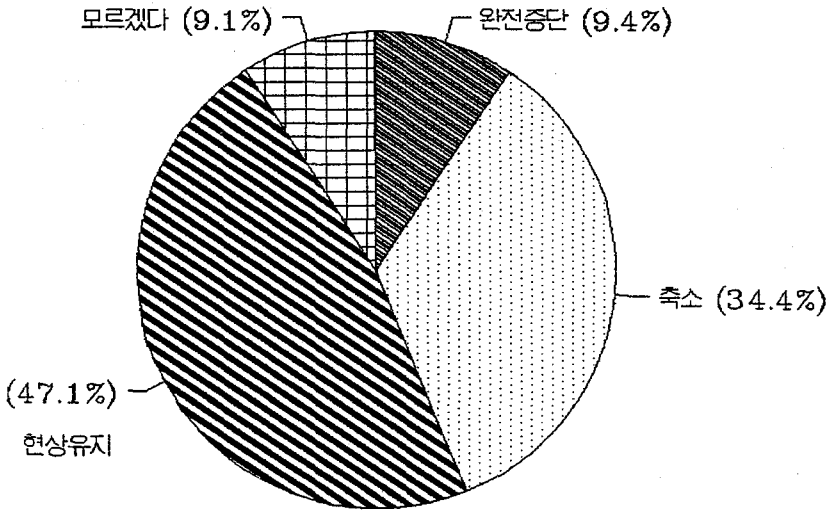
한·미간의 합동 군사훈련인 팀스피리트 훈련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알아보기 위하여 “귀하는 한국과 미국간의 합동 군사훈련인 팀스피리트 훈련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그림 5-6> 참조). 「현재대로 계속하는 것이 좋다」라는 응답의 비율이 전체의 47.1%로 제일 높고, 다음으로 「축소하는 것이 좋다」(34.4%),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 좋다」(9.4%)의 순서로 응답이 나왔다. 따라서 팀스피리트 훈련 존폐여부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견해가 반반으로 나뉘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현상태대로 계속하자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60세이상은 현상태로 지속하자는 응답을 선택한 비율이 높다. 지역별로는 전라도 지역 주민들이 현상태대로 지속하자는 응답 비율 상대적으로 낮다. 학력별로는 대제이상의 고학력자가 현상태대로 계속하자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다. 소득별로는 가구소득이 월 79만원 이하의 사람들이 축소하자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7. 국민적 합의도출방안에 대한 인식

통일정책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것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귀하는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은 <그림 5-5>에 정리되어 있는데 「여론을 청취한다」라는 응답의 비율

<그림 5-6> 팀스피리트 훈련 존재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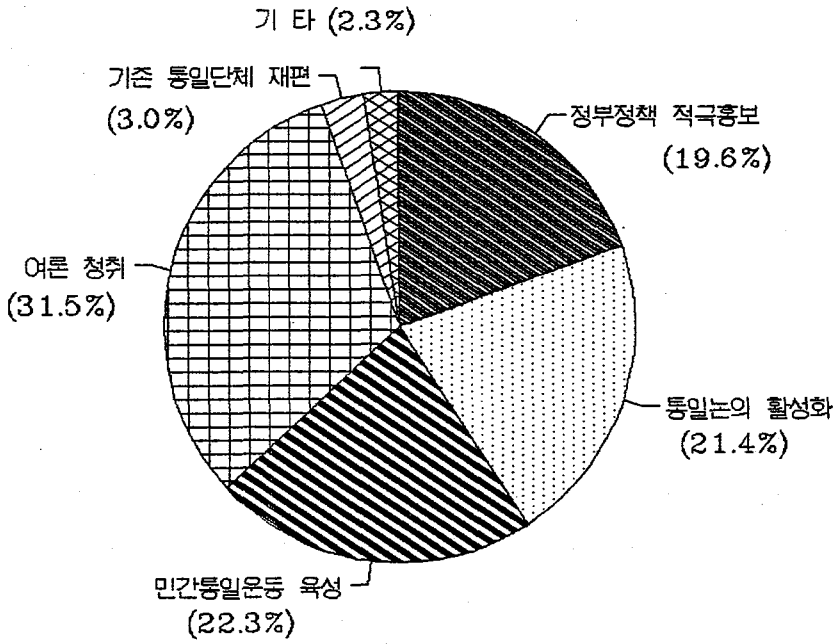


〈표 5-6〉 팀스피리트 훈련 준폐여부

변수		항목	완 전 중 단	축 소	현 상 계 속	모 르 겠 다	유의도
나 이	20대		11.14	44.54	38.21	6.11	$X^2=73.20$ $P=.000$ $N=1500$
	30대		8.49	33.59	50.58	7.34	
	40대		7.57	31.47	52.59	8.37	
	50대		10.24	24.10	47.59	18.07	
	60세이상		9.35	17.76	55.14	17.76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8.81	33.59	51.98	5.62	$X^2=93.46$ $P=.000$ $N=1500$
	경 상		7.09	33.87	51.49	7.55	
	전 라		17.95	44.10	20.51	17.44	
	충청강원		8.10	29.05	47.62	15.24	
학 력	중졸이하		7.97	21.43	50.00	20.60	$X^2=123.04$ $P=.000$ $N=1500$
	고 졸		7.66	34.53	51.20	6.61	
	대제이상		12.98	44.26	39.15	3.62	
가 구 소 득	79만원이하		11.30	27.40	44.18	17.12	$X^2=44.36$ $P=.000$ $N=1497$
	80-119만원		8.85	32.51	49.18	9.47	
	120-199만원		8.99	37.69	47.54	5.78	
	200-299만원		9.71	38.29	45.14	6.86	
	300만원이상		6.49	42.86	49.35	1.30	
전 체			9.4	34.4	47.1	9.1	$N=1500$

이 31.5%로 제일 높았다. 다음으로 「민간통일운동을 육성한다」(22.3%), 「통일논의를 활성화시킨다」(21.4%), 「정부의 통일정책을 적극 홍보한다」(19.6%), 「기존의 통일관련단체를 재편한다」(3.0%)의 순으로 응답이 나왔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국민의 여론을 수집하고 민간부분의 통일논의나 자발적 통일운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7> 국민적 합의도출 방안에 대한 인식



제VI장 요약 및 결론

본 조사에서는 북한체제, 통일의 주변환경, 정부의 통일정책이 우리 국민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쳐지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통일관련 대내외 정세 및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및 평가를 살펴봄으로써 통일문제에 접근하는 자료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합리적인 실마리를 시사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조사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1. 북한에 대한 인식

응답자의 대다수(73%)는 북한 사회에 대하여 이상화, 세습체제, 호전성, 경제적 낙후, 인권탄압 등의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였다. 평등, 자주적 외교, 민족주의, 주체사상 등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24%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주체사상의 나라라는 응답(19.4%)을 부정적인 이미지라고 간주한다면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절대다수에 달한다(92.4%). 또한 응답자의 74%가 북한당국에 대해 불신한다고 응답하였음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이 나이, 교육, 계층, 지역 등의 배경변수에 의하여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다른 변수는 별 영향이 없고 연령별로는 40세 이상의 장년층이 북한에 대하여 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이 북한주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민족적 친화력은 매우 높은 편임을 보였다. 북한이 미국, 일본, 중

국, 러시아와 축구시합을 할 때 어느 나라팀을 응원하겠느냐는 질문에 미국보다는 북한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자가 71.8%, 일본보다는 북한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자가 88.1%, 러시아보다는 북한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자가 87.7%, 중국보다는 북한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자가 83.8%로 나타났음을 보았다. 이것은 우리 국민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주변4강 어느 나라보다 북한에 대한 친화력이 압도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북한을 경쟁하거나 적대해야 할 대상이라기 보다는 협력하고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79.5%에 달하였고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 응답자가 73.3%에 달하고 있음에서 민족적 친화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의 핵무기개발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이 압도적이나(83.7%), 전쟁도발의 가능성에 대하여는 찬반의 의견이 반반으로 나누어짐을 보았다. 배경변수의 하위집단별로 나누어 볼 때 청년층보다는 노년층이 고학력층보다는 저학력층이 고소득자보다는 저소득자가 전쟁도발의 가능성을 높게 보았음을 알았다.

북한체제의 붕괴가 통일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67.3%라는 대다수가 통일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응답을 하였음을 보았다.

김정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이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하면 남북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물어보았는데 그 결과는 64%의 국민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음을 보았다.

우리 국민은 남한과 북한이 언어, 전통관습, 식생활에서는 유사하다고 생각하지만 교육내용, 문화예술, 여가생활에서는 이질화의 정

도가 심하다고 응답하였다.

북한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배경변수는 연령이고 그 다음은 학력임을 보았다. 나이가 젊은 세대일수록, 또 대재이상의 고학력일수록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저소득자보다는 고소득자가 비교적 온건한 집단의 성향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통일정책에 대한 평가

신정부의 통일정책의 3대기조 (국민적 합의, 공존공영, 민족복리)에 대해 대다수의 응답자(75.6%)가 지지하고 있음을 보았다. 배경변수의 하위집단별로 나누어 보면 연령면에서는 40대의 응답자가 가장 높게 지지하고 노년층보다는 젊은층이 더 많이 지지하고 있음을 보았다.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통일정책 3대기조에 대한 지지도가 높음을 알았다.

또한 이상적인 남북통일의 형태로서 교류협력에 의한 점진적 합목적 통일을 지지하는 사람이 82.8%를 차지하고 있어서 압도적인 다수가 단계적 통일방안을 지지하고 있음을 보았다. 이 두가지 지표를 통해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현정부의 통일정책을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정부의 통일정책이 정권유지의 수단인가에 대한 질문에 25.1%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대다수인 62.7%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음을 보았다.

또한 북한을 개방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압력을 가중시키기 보다는 북한을 포용하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사람이 83.9%로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북한개방을 위한 포용수단은 교류 및 협력강화 (75.3%), 북한과 서방과의 수교지원 (19%)을 들었음을 보았다.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73.1%가 찬성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응답자들은 핵문제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에서 북한의 핵개발가능성에 대하여 응답자의 83.7%가 찬성하고 있음을 보았는데 북한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남북경협을 제한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74.9%를 차지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적 찬성은 87.3%의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3. 통일환경에 대한 인식

주변4강에 대하여는 경계하고 있는 편이지만 북한과 미국이 가까워지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이 50.4%로서 반대하는 28.3%보다 훨씬 많으나 북한과 일본이 가까워지는 것은 찬성하는 사람이 28.8%로서 반대하는 48.7% 보다 훨씬 적은 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중국이 북한보다는 남한에 훨씬 가까워질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65.6%나 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배경변수들의 하위집단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다른 변수들은 별 차이를 안 보이고 있으나 연령에 있어서는 40세 이상의 응답자가 40세 이하에 비하여 일본이나 중국에 대한 친화력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세대간의 역사적 경험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통일관련 국내정치에 대한 인식

신정부의 개혁이 통일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사람이 66.8%에 달하며 국가보안법은 적어도 수정·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배경변수별로 보았을 때 이러한 경향의 평가는 나이가 젊을 수록 그리고 고학력자 일수록 더욱 높다는 것을 보았다.

주한미군 주둔경비에 대하여는 66.1%가 현재보다 감액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으며 주한미군 주둔, 틴스피리트 훈련 존폐여부에 대하여는 의견이 반반으로 나뉘어진다는 사실을 알았다.

5. 배경변수들의 하위집단별 인식의 차이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북한 및 통일환경에 대한 인식, 그리고 통일정책에 대하여 연령, 학력, 계층, 지역에 상관없이 국민대다수가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배경변수들의 하위집단간에 미약한 정도나마 일관된 유형이 있음도 발견되었다.

4개의 배경변수중에서 하위집단별로 가장 큰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변수는 연령 또는 세대였음이 발견되었다. 이 세대의 차이는 역사적 경험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20-30대 청년층의 동향이다. 청년층은 노년층보다 북한당국에 대한 불신의 정도가 낮다. 청년층은 북한의 대남도발 가능성에 대하여 노년층보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북한의 변화를 더 많이 인정하고 있다. 청년층은 또한 미국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노년층보다 훨씬 덜 우호적인 태도

를 보이며 중국에 대하여는 노년층보다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청년층은 또한 북한이 미국 및 일본과 가까워지는 것에 대하여 노년층보다 더 지지하고 있다.

청년층은 정부의 통일정책 3대기조에 대해 다른 연령층보다 약간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청년층은 대북정책에 대해서 다른 연령층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청년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북한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청년층은 대북 경제지원 여부에서도 찬성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약간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청년층은 핵문제-경협 연계정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나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것 역시 청년층이 대북정책에 전향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청년층은 또한 정부의 대북 창구단일화정책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청년층은 앞서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현 수준의 허가절차를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허가 대신 신고로 족하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약간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청년층은 통일비용 부담 여부에 대해서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 약간 높은 찬성율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변수는 학력임이 밝혀졌다. 학력에서는 대학 재학이상의 고학력층의 동향이 중요하다. 고학력층은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반면, 정부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는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저학력층에 비해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고학력층 역시 청년층의 동향과 마찬가지로 통일정책에 대해 대체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보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그리고 이들은 이인모 노인 송환에 대해 상대적으로 아주 높은 찬성율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대북 창구단일화정책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는 「현 수준의 허가절차를 유지해야 한다」를 지지하지만 다른 학력층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그것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고학력층은 저학력층보다 북한의 전쟁도발가능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고학력층은 통일비용의 부담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고학력층이 학력수준이 낮은 층에 비해 통일과정에서 통일비용문제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보다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좋다.

다음은 소득수준별 하위집단간의 차이를 종합해볼 필요가 있다. 통일문제 국민여론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다. 우선 주목할만한 것은 소득수준이 높은 층의 동향이다. 이들 역시 정부의 통일정책 기조에 대해 다른 소득층보다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정부의 대북 창구단일화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서 「현 수준의 허가절차를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약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허가 대신 신고로 족하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약간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통일비용 부담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층보다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에서 다음으로 주목할만한 것은 소득수준이 낮은 층이 통일후 경제성장과 빈부격차의 변화방향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소득수준이 낮은 층이 통일에 대해 새로운 경제적 지위상승의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배경변수들의 하위집단별 차이면에서 종합해볼 때 젊은 층일수록, 고학력자일수록, 그리고 고소득자일수록 현정부의 통일정책을 지지하는 집단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되었듯이 이러한 집단간의 차이는 결코 과잉 강조되어서는 안된다. 집단간의 차이는 대체로 일관된 방향의 유형은 있으나 큰 정도의 차이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 보다는 오히려 이 조사연구에서 발견된 전반적인 결과는 국민대다수가 북한에 대한 인식 및 통일정책의 방향에 대한 인식에서 정부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이다.

6. 여론조사 결과의 통일정책에 대한 시사점

이 여론조사의 결과 밝혀진 내용의 핵심과 그것이 시사하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북한사회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북한당국을 매우 불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에 대하여는 매우 높은 정도의 민족적 친화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높은 민족적 친화력을 가지게 된 배경은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해 북한의 대외교섭력이 무력화되었고 경제가 위기적 상황에 달하게 된 반면에, 한국은

그와는 반대로 고도경제성장을 이룩하였고 정치적 민주주의를 꾸준히 발전시키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음에 따른 대북 자신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 국민은 6·25전쟁 이후의 적색공포증을 상당부분 극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국민은 북한에 대하여 민족주의적 포용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북한을 경쟁하거나 적대하기 보다는 협력하고 도와주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민족주의적 통일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변환경의 측면에서도 세계질서의 대체는 이미 탈냉전의 구조로 급속히 이행하고 있다. 사회주의권의 종주국인 소련이 붕괴하였고 그 후계국인 러시아는 이제 제3세계의 수준으로 전락해버렸으며 중국은 형식적인 이념의 측면에서는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내용면에서는 자본주의로 이행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국제적 조건속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카드화하여 냉전 구도의 논리로 퇴행하여 외부세계와 대치함으로써 대내적 사회통합을 극대화하여 체제유지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우리 국민의 일반적인 인식의 구조는 북한의 이러한 시대역행적 노력을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탈냉전의 논리로 통일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 록 : 설문지

빈 면

1993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1 2 3 4 5

--	--	--	--	--

안녕하십니까?

민족통일연구원은 국가의 통일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문연구기관으로 통일정책수립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연구·분석하는 한편, 통일과정 및 통일 후에 예상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중·장기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에 대한 국민여론을 파악·수렴하여 통일정책의 국민적 합의 도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무기명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응답자의 비밀이 보장되며 응답결과는 통계처리되어 연구에만 사용됩니다.

통일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 통일문제에 대한 귀하의 평소 견해를 표명해 주시면 통일정책연구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설문에 대해 응답하실때 다음 사항들을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저희가 묻는 질문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이나 느낌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곳에 V 를 표시해 주십시오.
2. 특별히 지시사항이 없으면 한 곳에만 표시해 주십시오

1993년 6월
민족통일연구원
서울시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237-9288)

우선 국제정세에 관한 귀하의 의견을 여쭙어 보겠습니다.
 각 문항에 대해 반드시 한곳에만 V표를 해주세요.

1. 귀하는 미국이 북한과 가까워지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 ()

① ② ③ ④ ⑤

적극 대체로 찬성도 대체로 적극

찬성 찬성 반대도아님 반대 반대

2. 귀하는 일본이 북한과 가까워지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 ()

① ② ③ ④ ⑤

적극 대체로 찬성도 대체로 적극

찬성 찬성 반대도아님 반대 반대

3. 귀하는 중국이 앞으로 남한과 북한의 어느쪽에 더 가까워 지리라고 보십니까?

() () () ()

① ② ③ ④

북한에 현상태를 남한에 모르겠다

더 가까워 유지할 더 가까워

질 것이다 것이다 질 것이다

4. 귀하는 주변 강국중 한반도의 통일에 “가장 우호적인” 국가는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미국
- _____ ② 일본
- _____ ③ 중국
- _____ ④ 러시아
- _____ ⑤ 통일을 바라는 주변 강대국 없음
- _____ ⑥ 모르겠다

5. 귀하는 주한미군의 주둔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전면적으로 철수하거나 대폭적으로 감축되어야 한다
- _____ ② 단계적으로 감축되어야 한다
- _____ ③ 현재의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 _____ ④ 단계적으로 증가되어야 한다
- _____ ⑤ 대폭적으로 증가되어야 한다
- _____ ⑥ 잘 모르겠다

6. 귀하는 현재 남한이 부담하고 있는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대폭 증액하는 것이 좋다
- _____ ② 다소 증액하는 것이 좋다
- _____ ③ 지금 정도가 적당하다
- _____ ④ 다소 감액하는 것이 좋다
- _____ ⑤ 대폭 감액하는 것이 좋다
- _____ ⑥ 잘 모르겠다

국내정치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여쭙어 보겠습니다.

7. 귀하는 현재 새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남북한 관계개선 및 통일
- _____ ② 정치적 민주화
- _____ ③ 지역감정 해소
- _____ ④ 경제성장
- _____ ⑤ 물가안정
- _____ ⑥ 부동산 투기억제
- _____ ⑦ 부정부패 척결 및 사회기강 확립
- _____ ⑧ 환경오염 문제 해결
- _____ ⑨ 과열입시문제 해결
- _____ ⑩ 교통문제 해소

8. 귀하는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어떻게 되는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좋다
- _____ ② 폐지하되 이를 대체할 새로운 법을 마련하는 것이
 _____ 좋다
- _____ ③ 수정 보완하는 것이 좋다
- _____ ④ 현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 _____ ⑤ 더욱 강화하는 것이 좋다
- _____ ⑥ 잘 모르겠다

9. 귀하는 한국과 미국간의 합동 군사 훈련인 팀스피리트 훈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 좋다
- _____ ② 축소하는 것이 좋다
- _____ ③ 현재대로 계속하는 것이 좋다
- _____ ④ 잘 모르겠다

10. 귀하는 현재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이 통일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 () | () |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 매우
좋은영향
미칠 것이다 | 좋은영향
미칠
것이다 | 별영향
없을
것이다 | 나쁜영향
미칠
것이다 | 매우
나쁜영향
미칠것이다 |

11. 귀하는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정부정책을 적극 홍보한다
- _____ ② (공청회, 학술토론 개최 등) 통일논의를 활성화시킨다
- _____ ③ 민간통일운동을 육성한다
- _____ ④ (여론조사, 국민과의 대화 등) 여론을 청취한다
- _____ ⑤ 기존의 통일관련단체를 재편한다
- _____ ⑥ 기타(기재요망: _____)

12. 귀하는 어느 정당(정치세력)을 가장 지지하십니까?

- _____ ① 민자당
- _____ ② 민주당
- _____ ③ 국민당
- _____ ④ 새한국당
- _____ ⑤ 신정당
- _____ ⑥ 재야세력
- _____ ⑦ 지지정당 없다

13. 「우리사회는 땀흘린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이다」라는 평가에 대하여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 () ()
-
- ① 전적으로 반대 ② 대체로 반대 ③ 찬성도 반대도아님 ④ 대체로 찬성 ⑤ 전적으로 찬성

북한에 관한 귀하의 의견을 여쭙어 보겠습니다.

14. 귀하는 북한을 생각할때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 _____ ① 평등
- _____ ② 자주적 외교
- _____ ③ 민족주의
- _____ ④ 주체사상
- _____ ⑤ 우상화, 세습체제
- _____ ⑥ 호전성
- _____ ⑦ 경제적 낙후
- _____ ⑧ 인권탄압
- _____ ⑨ 기타

15. 귀하는 북한 당국을 얼마만큼 신뢰하십니까?

() () () () ()

①	②	③	④	⑤
매우 신뢰한다	조금 신뢰한다	보통이다	조금 불신한다	매우 불신한다

16. 귀하는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일로 권력이 이양되는 것이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①	②	③	④	⑤
매우 좋은영향	다소 좋은영향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다소 나쁜영향	매우 나쁜영향

17. 귀하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리라고 보십니까?

() () () () ()

①	②	③	④	⑤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다소 크다	매우 크다	잘 모르겠다

18. 다음과 같이 축구시합을 할 때 각각 어느 나라 팀을 응원하겠습니까?

가. () ()
①북한 : ②미국

나. () ()
①북한 : ②일본

다. () ()
①북한 : ②러시아

라. () ()
①북한 : ②중국

19. 귀하는 2~3년전에 비하여 북한이 어느정도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많이 변했다
- ② 약간 변했다
- ③ 거의 변하지 않았다
- ④ 전혀 변하지 않았다

→ 21번 문항으로

→ 20번 문항으로

20. 북한이 변하지 않았다면 귀하는 북한체제가 유지되는 것은 무엇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김일성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
- ② 경제생활의 만족
- ③ 이념적 통일성(주체사상)
- ④ 외부정보에 대한 통제
- ⑤ 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억압
- ⑥ 기 타 ()

21. 북한이 변했다면 귀하는 북한의 변화를 촉진시킨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사회주의권의 몰락
- ② 북한에 대한 국제적 개방압력
- ③ 북한의 경제난
- ④ 북한주민들의 불만
- ⑤ 남한의 대북정책 변화
- ⑥ 기 타 ()

22. 귀하는 다음 분야에서 남한과 북한이 어느 정도 유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난에 V표시 해주십시오.

	① 매우 비슷함	② 다소 비슷함	③ 다소 다름	④ 매우 다름
㉠ 언 어				
㉡ 전통관습				
㉢ 식 생활				
㉣ 교육내용				
㉤ 문화·예술				
㉥ 여가생활				

23. 귀하는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도와주어야 할 대상
 _____ ② 대등한 협력대상
 _____ ③ 경쟁대상
 _____ ④ 적대대상

통일정책에 관한 귀하의 의견을 여쭙어 보겠습니다.

24. 귀하는 통일이 언제쯤 이루어지리라 예상하십니까?

- _____ ① 2~3년 내
 _____ ② 5년 이내
 _____ ③ 10년 이내
 _____ ④ 20년 이내
 _____ ⑤ 30년 이내
 _____ ⑥ 30년 이상
 _____ ⑦ 절대 불가능하다

25. 귀하는 “통일비용의 부담이 있더라도 통일을 빨리 이루는 것이 좋다”는 견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 () ()
-
- ① ② ③ ④ ⑤
 적극 대체로 찬성도 대체로 적극
 찬성한다 찬성한다 반대도아님 반대한다 반대한다

26. 귀하는 새정부 통일정책 추진의 3대기조인 “민족복리, 공존공영, 국민적 합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 () ()
-
- ① ② ③ ④ ⑤
 적극 대체로 찬성도 대체로 적극
 찬성한다 찬성한다 반대도아니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27. 귀하는 경제난에 빠진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 () ()
-
- ① ② ③ ④ ⑤
- 적극 대체로 찬성도 대체로 적극
찬성한다 찬성한다 반대도아니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28. 정부는 이인모 노인을 조건없이 북한에 송환한 바 있습니다. 귀하는 이 같이 인도적인 문제에 전향적으로 대처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 () ()
-
- ① ② ③ ④ ⑤
- 적극 대체로 찬성도 대체로 적극
찬성한다 찬성한다 반대도아니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29. 귀하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 () ()
-
- ① ② ③ ④ ⑤
- 적극 대체로 찬성도 대체로 적극
찬성한다 찬성한다 반대도아니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30. 귀하는 북한의 핵무기개발가능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 () ()
-
- ① ② ③ ④ ⑤
- 가능성이 가능성이 가능성이 가능성이 모르겠다
매우높다 다소높다 다소낮다 전혀없다

31.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남북경제협력을 제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 () ()
-
- ① ② ③ ④ ⑤
- 적극 대체로 찬성도 대체로 적극
- 찬성한다 찬성한다 반대도아니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32. 귀하는 북한의 김일성·김정일정권의 붕괴가 남북한 통일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통일을 앞당길 것이다
 ② 통일을 지연시킬 것이다
 ③ 모르겠다

33. 귀하는 통일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 _____ ① 북한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_____ ② 이산가족의 고통해소 및 단일민족의 재결합
 _____ ③ 민족자주성 확립
 _____ ④ 경제발전으로 선진공업국으로 도약
 _____ ⑤ 전쟁발생 방지
 _____ ⑥ 모르겠다

34. 귀하는 새정부가 통일정책을 정권유지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확실히 그렇다고 생각한다
 _____ ② 약간 그런 생각이 든다
 _____ ③ 그렇지 않은 것 같다
 _____ ④ 전혀 그렇지 않다
 _____ ⑤ 잘 모르겠다

35. 귀하는 현 시점에서 북한을 개혁·개방하기 위해 어떤 방향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_____ ① 북한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①에 응답하신 분은 37번 문항으로

_____ ②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가증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②에 응답하신 분은 36번 문항으로

36. (35번 문항에 대해서 ②번에 응답하신 경우) 북한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압력수단은 무엇이겠습니까?

- _____ ① 외교적 고립화
- _____ ② 경제봉쇄
- _____ ③ 남한의 군사력 증강
- _____ ④ 기 타 ()

37. (35번 문항에 대해서 ①번에 응답하신 경우) 현 시점에서 북한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포용수단은 무엇이겠습니까?

- _____ ① IS훈련 중지
- _____ ② 교류 및 협력 강화
- _____ ③ 북한과 서방국가와의 수교지원
- _____ ④ 기 타 ()

41. 귀하는 통일에 소요될 비용은 어떤 방법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세금으로 징수(통일세 신설 등)
 _____ ② 정부예산 항목의 재조정
 _____ ③ 자발적 성금 모금
 _____ ④ 해외차관 도입
 _____ ⑤ 기금 조성
 _____ ⑥ 기 타

42. 귀하는 통일후 다음 각 분야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크게 개선될 것이다	② 다소 개선될 것이다	③ 마찬가지일 것이다	④ 다소 악화될 것이다	⑤ 크게 악화될 것이다
㉠ 정치적 민주화					
㉡ 경제성장					
㉢ 빈부격차					
㉣ 실업문제					
㉤ 지역격차					

끝으로 귀하 자신에 관해 몇가지 여쭙어 보겠습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_____ ① 남자
_____ ② 여자

2. 귀하의 나이는 만으로 몇 세입니까?

만 _____ 세

3. 학교는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중퇴포함)

- _____ ① 무학
_____ ② 국민학교
_____ ③ 중학교
_____ ④ 고등학교
_____ ⑤ 초급 전문대학 (2년제)
_____ ⑥ 4년제대학
_____ ⑦ 대학원 이상

4. 귀하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 _____ ① 서울
_____ ② 경기
_____ ③ 강원
_____ ④ 충청
_____ ⑤ 경상
_____ ⑥ 전라
_____ ⑦ 제주
_____ ⑧ 이북
_____ ⑨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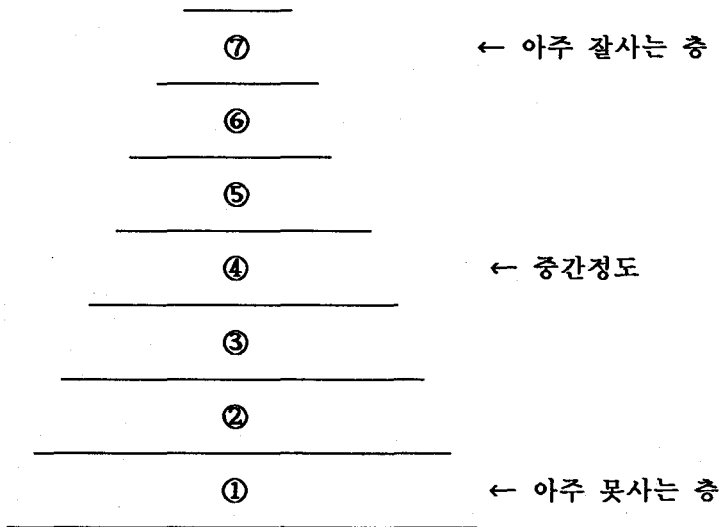
5. 귀하께서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 _____ ① 대도시
_____ ② 중소도시
_____ ③ 농어촌, 산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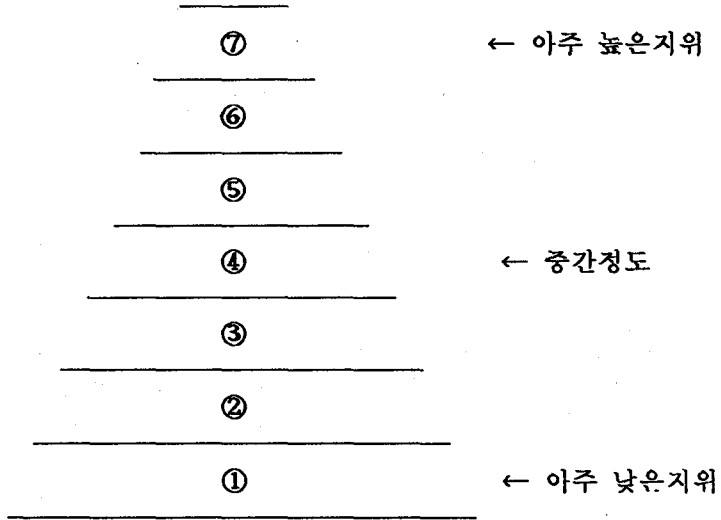
6. 귀하의 덕이나 가까운 친척중에 이산가족이 있습니까?

- _____ ① 있다
_____ ② 없다

7. 경제생활의 측면에서 부동산 소유, 월수입 등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을 아주 잘사는 층에서 아주 못사는 층에 이르기까지 7개의 층으로 나눈다고 할 때, 귀하는 어디쯤 위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번호에 ○표해 주십시오.



8. 사회적 지위의 측면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높은 사회적 지위에서 낮은 사회적 지위에 이르기까지 7개의 층으로 나눈다고 할 때, 귀하는 어디쯤 위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9. 귀하의 한달 평균수입(소득, 이자, 잡수입 등 모두 포함한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귀하의 전체 가구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두가지 모두를 표시해 주십시오.
(농업의 경우에는 1년 총수입을 12개월로 나누어 주십시오)

	본인소득 ()	전체 가구소득 ()	
①	_____	_____	① 40만원 미만
②	_____	_____	② 40만원~79만원
③	_____	_____	③ 80만원~119만원
④	_____	_____	④ 120만원~199만원
⑤	_____	_____	⑤ 200만원~299만원
⑥	_____	_____	⑥ 300만원~499만원
⑦	_____	_____	⑦ 500만원~999만원
⑧	_____	_____	⑧ 1000만원 이상

9. 귀하의 주된 직업은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에 없으면 괄호안에 직접 자세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_____ 번(무엇: _____)

< 보 기 >	
전문직 (01) 의사 (03) 변호사, 판사, 검사 (05) 교사, 학원장사 (07) 엔지니어(무엇:) (09) 대학강사	(02) 약사, 간호사 (04) 대학교수, 연구원 (06) 언론인, 방송인 (08) 종교인 (10) 기타 전문직(무엇:)
공무원 및 사회단체 (11) 고급공무원(4급서기관 이상, 총경 이상) (12) 일반공무원(5급사무관 이하, 경정 이하) (13) 군인(영관급 이상) (14) 군인(위관급, 하사관) (15) 기능직 공무원(무엇:) (16) 고용직 공무원(무엇:)	
기업체 (은행 및 금융업 포함) (21) 대기업체 경영주, 중역, 임원(이사급 이상) (22) 중간관리직 사원(부장, 차장, 과장급) (23) 사무직 사원(대리, 계장, 평사원) (24) 중소기업 사장(무엇:)	
판매·서비스직 (31) 영세자영업 및 상점주인(무엇:) (32) 음식점, 여관, 세탁소 등의 주인(무엇:) (33) 복덕방, 부동산 중개인 (34) 점원 (35) 서비스직 피고용인 (36) 수위, 성무원, 정소원 (37) 외판원 (38) 행사, 노점상, 파출부 (39) 기타 판매 서비스직	
생산직 (41) 생산감독(주임 및 반장) (42) 숙련공(무엇:) (43) 공장근로자(무엇:) (44) 자동차·중장비 운전사 (45) 막노동, 단순노동자 (46) 가내 수공업(무엇:)	
농어민 (51) 부농(소유경작 6,000평 이상) (52) 중농(3,000~6,000평 미만) (53) 소농(1,500~3,000평 미만) (54) 빈농(1,500평 미만) (55) 농업노동자, 품일꾼 (56) 축산, 낙농업주 (57) 선주 (58) 선원, 어부 (59) 기타 농어업(무엇:)	
기 타 (61) 학생 (62) 주부 (63) 무직 (64) 청년퇴직, 연금생활자 (65) 군인(사병), 방위병, 전경 (66) 기타(무엇:)	

1. 귀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 _____ ① 예
_____ ② 아니오

12. 무주택자이면 아래의 어느 것에 해당합니까?

- 2) 전세(독채)
- 3) 전세(방)
- 4) 월세
- 5) 기타(무엇:)

조사원 기록사항

- 조사일시: 월 일

- 조사지역:

- 조사방법: () 면접
 () 응답자 자기기입
 () 면접과 응답자 자기기입의 병행

- 방문회수: ()회

- 조사원 성명:

- 피면접자 전화번호:

◎ 發刊資料目錄 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北韓의 權力構造와 金日成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
조약 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Ⅰ)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具體化方案: 社會·文化·經濟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Ⅱ)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的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 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 方案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統一情勢分析〉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
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
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綜合分析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保에 미
치는 影響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 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關係
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開發過程 分析 및 展望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1993. 3. 31)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1~1992
- 92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2~1993

〈論 叢〉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
(1992)

〈資 料〉

91-01 統一 吳 北韓關係 研究文獻目錄(國文篇)

91-02 統一 吳 北韓關係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研究報告書 93-01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7-9288, FAX : 232-5341
印刷處 오름시스템(주) 전화 : 273-7011
印刷日 1993년 7월 일
發行日 1993년 7월 일
